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 호 5월 2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7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第5호 (138)

1957년 5월 25일

내 용

만국의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받는 우리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은 자기들의 불패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당 및 정부 주위에의 철석같은 단결을 시위하면서 오늘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서 날로 더욱 경이적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미제 략탈자들을 몰아 가게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남반부 형제들의 해방을 달성할 것을 념원하면서 금년도 인민 경제 계획 과제를 훨씬 초과하는 증산 목표를 넘쳐 실행하는 고도의 정치적 로력적 앙양과 사상 의지의 통일을 시위하고 있다.

우리 당 제3차 대회 및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의 결정과 호소는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전체 근로자들 속에서 증산 절약을 위한 획기적인 전변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오늘 거대한 로력 투쟁의 불'길 속에서 무한한 환희와 충천의 기세로써 5.1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 근로자들과의 친선 단결을 우렁차게 시위하였다.

《만국의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라는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은 100여년의 력사 행정에서 오늘 사회주의 진영 9억의 인민들과 전 세계 수억만 근로자들, 피압박 인민들의 사상으로 되였으며 그들의 생활에서 구현되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제 인민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과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령역에서의 호상간의 사심 없는 형제적 협조는 이 나라들의 경제 문화의 급속한 발전과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공동의 앙양을 달성하게 하고 있으며 이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침해의 기도를 매걸음마다 파탄 좌절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화와 민주주의와 제 인민의 민족적 독립을 위한 사회주의 진영의 투쟁과 그의 위력에 고무되면서 이 진영의 주위에 결속된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과 평화 애호 인민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억압을 반대하며 전쟁 도발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날로 장성하는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을 선두로 하는 세계 평화 력량은 사회주의 진영과 평화 애호 인민들을 반대하는 어떠한 전쟁도 허용하려 하지 않으며 더우기 미 영 제국주의자들이 기도하는 원자 전쟁의 위험성을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전 세계 근로자들은 오늘 식민지 체계의 붕괴와 자본주의의 불가피적 멸망의 운명, 공산주의의 전 세계적 승리의 필연성을 눈앞에 보면서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을 지지 옹호하는 데로 점점 더 힘차게 나가고 있으며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 투쟁에 대한 련대성을 더욱 더 행동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견인력,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러나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여 수다한 전쟁—침략 쁠럭들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에 자기들의 군사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에 원자 부대들을 배치하려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세계의 도처에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려고 부단히 발광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장성과 사회주의의 견인력의 증대는 그들을 불안과 공포에로 몰아 넣고 있는바 그들은 특히 쏘련과 사회주의를 훼방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약화시키고 그 나라들을 분렬시켜 《각개격파》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사회주의의 길로부터 부르죠아 민족주의에로, 지주, 자본가 제도에로 돌려 세우려는 그 모든 비렬

한 선전 선동 깜빠니야와 간첩 암해 파괴 공작을 1분도 멈추지 않는다. 웽그리야 사건이 그것이며 쏘련 공산당 20차 대회 이후, 특히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의 실패 이후 쏘련과 사회주의를 비방 중상하는 소동이 그것이다.

그들은 또한 자유와 민족적 독립을 위한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을 압살하며 이미 자주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선 나라들을 다시금 식민주의의 기반으로 얽어매려 하며 자국내에서의 로동 운동과 일체의 진보적 세력을 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애급에 대한 침략적 전쟁, 알제리야에서의 류혈, 중 근동에 대한 《아이젠하워주의》가 그것이며 서부독일과 자르 등에서의 공산당의 비법화가 그것이며 태평양에서의 영국의 수소탄 시험이 그러한 것이다.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을 반대하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제국주의 렬강은 그들의 고유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긴밀히 결탁하고 있으며 각국에서의 그들의 앞잡이들이 또한 그에 복무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웽그리야에서의 모험도, 애급에 대한 침략 전쟁도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및 전 세계 근로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단결의 위력으로써만 분쇄할 수 있었으며 조선 인민과 월남 인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전쟁도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과 전 세계 평화 력량의 적극적 지지 원조하에서 침략자들의 수치스러운 패배로써 끝마치였다.

만약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의 각국 공산당, 로동당들의 주위에의 철옹성같은 정신—정치적 통일이 없고 이 진영 제 인민과 전 세계 근로자들, 피압박 인민들의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협조 단결이 없다고 한다면 제국주의 승냥이들이 전 세계를 자기들의 지배하에 넣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만국의 근로자들은 오직 국내적 및 국제적 단결에 의해서 만 자본과 제국주의의 멍에로부터 해방될 수 있으며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원칙은 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 인민들에게 국제주의적 협조 단결이 필요한 것은 다만 제국주의 략탈자들의 침해로부터 자체를 보위하기 위하여서와 피압박 인민들의 해방을 방조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다. 해방된 인민들은 사회주의적 경제 문화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평화적 로력에 있어서도 보다 급속한 발전과 더욱 번영하는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형제적 인민들 간의 친선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국제적이다. 제국주의가 멸망한 이후에도 국가들이 존재하는 한 인민들 간의 국제적 친선 협조는 더욱 개화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는 아직도 제국주의가 그의 멸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으며 피압박 인민들과 계급들의 해방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날뛰며 지어는 사회주의 진영을 파괴 약화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성과가 더욱 크면 클수록, 근로 인민들의 해방 투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멸망을 예감하는 제국주의 승냥이들의 발악은 더욱 치렬하여 질 것이다.

세계 혁명 발전의 현 단계에 있어서 전 세계 로동 계급과 만국의 근로자들의 전투적 단결과 행동의 통일은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분렬은 오직 원쑤들을 리롭게 할 뿐이라는 것을 지나간 력사는 력력히 보여 주었다.

만국의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행동의 통일과 전투적 단결의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에 충실할 것이 요구되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할 것이 요구된다.

사상, 의식은 행동의 전제이다. 그러니 만큼 사회주의의 원쑤, 인민의 원쑤들은 사회주의를 반대하며 근로자들의 국제적 및 국내적 단결을 파괴하려는 투쟁에서 우선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를 공격하며 이에 민족주의, 부르죠아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대치시킨다. 맑스—레닌주의 이데올로기에의 부르죠아 사상의 영향, 침투——

이것은 곧 수정주의로 나타나며 사상에 있어서의 수정주의는 곧 행동에 있어서의 기회주의로 나타나며 사회주의로부터의 일탈과 배반으로 나타난다.

오늘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고수 강화하며 사회주의의 위업을 수호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임무로 된다.

오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제국주의 반동들의 주되는 무기는 소위 《민족 공산주의》라는 개념이다. 공산주의가 본질에 있어서 국제적 현상이라는 것은 맑스주의자들에게는 상식이다. 말 자체의 모순인 《민족 공산주의》적 경향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의 비프로레타리아적, 우경적 분자들과 부르죠아, 소부르죠아 인테리층의 민족주의적 기분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것이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제 인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을 증오하며 반대하는 투쟁의 구호로 복무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 아니다.

오늘 수정주의를 대표하는 《민족 공산주의》적 경향은 공산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을 거부하는 데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공산주의,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실천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원칙들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와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등등을 거세하며 거부할 것을 기도하며 부르죠아적 제도와 민족—배외주의적 경향에로 기울어진다. 수정주의는 종파주의와 결부되며 이리하여 당을 사상적—조직적으로 혼란시키며 통일과 순결성을 파괴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것은 바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원하는 바이며 요구하는 바이다.

지나간 웽그리야 사건의 경험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생하게 실증하여 주었다. 웽그리야 인민 주권을 반대하여 폭동에로 넘어간 자들에게 《민주주의》를 주라고 로 농 혁명 정부에 권고하며 로동자 당의 재건을 무익한 일이라고 설교하며 《쓰딸린주의자》들을 반대한다는 구호 밑에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과 그의 충실한 지도자들을 비방 중상하며 자기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이 《유일하게 옳은》길이라고 한 유고슬라비아의 일부 지도자들과, 《만국의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는 이미 낡은 것이며 오늘의 정세하에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존》이 요구된다고 선언한 파란의 일부 인테리들은 바로 제국주의 반동들이 명명한 바 《민족 공산주의》적 경향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주의, 기회주의는 공산주의 운동 내부에서의 제국주의자들의 대리점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포함한 맑스—레닌주의 사상 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 당 대렬의 통일과 전 세계 로동 계급 및 그들의 공산당, 로동당들, 전체 근로자들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의 기초로 되며 맑스—레닌주의의 백전 백승의 위력의 원천으로 된다.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쏘련은 세계 혁명의 근거지로, 중심으로 되였다. 오늘 쏘련을 떠나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은 실현될 수 없다. 전 인류를 위하여 전인미답의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개척한 쏘련은 세계 혁명에 대한 그의 지향에 있어서나 그의 풍부하고 선구적인 고전적 경험에 있어서나 위대한 력량에 있어서 세계 혁명의 근거지로, 원천으로, 중심으로 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되고 있다.

쏘련과의 친선 단결에 의거함이 없이, 쏘련의 경험에서 배움이 없이 또는 쏘련을 반대하면서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거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도 없으며 일어난 일도 없다.

쏘련에 대한 지지와 옹호, 그와의 친선 단결——이것은 맑스—레닌주의 자체에 대한 지지 옹호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들, 전 세계 근로자들의 무조건적 의무로 된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의 충실성은 결코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과업 내지 리해와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민족적 리익의 수호, 민족적 과업의 실현을 위한 전제로 된다. 꼬쓰모뽈리찌즘과는 반대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민족적 자주성과 평등, 민족적 전통과 특수성을 철저히 존중할 것을 요

구한다. 여기에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불패의 생활력의 원천의 하나가 있다. 때문에 또 진정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자만이 진정한 애국자로 될 수 있는 것이다.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위대한 40년의 력사가 이것을 실증하여 주고 있다.

10월의 영향하에 비로소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게 된 우리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은 쏘련 및 중국 인민들과의 국제주의적 련계 밑에서 만 승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으며 드디여 우리 나라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되였다. 해방후 12년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 력사는 쏘련 및 쏘련 인민과의 련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의 투쟁의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쏘련의 사심 없는 국제주의적 지지 원조하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당과 인민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쏘련을 비롯한 형제 국가들과 그 인민들에 대한 친선 단결에 의거하였으며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국가들과 그 인민들은 또한 우리 인민에 대한 자기들의 국제주의적 의무를 다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하면서 우리 당은 우리 혁명 수행에서 주체성을 견지함으로써 우리의 투쟁에서의 최대의 성과를 보장하였다.

우리 당은 또한 맑스—레닌주의의 사상적 순결성을 고수하며 특히 당내의 사상적, 조직적 통일과 순결성을 파괴하는 종파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정력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 대렬의 통일 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수호하였으며 또 하고 있는 바 이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승리와 성과의 기본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우리 당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우리 당과 북반부 민주 기지에 대한 도발적인 책동을 격화시키고 있을 때에 엄중한 반당적 종파 활동을 감행한 최 창익을 비롯한 일부 분자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함으로써 당의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을 가일층 강화하였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에 충실하게 자기 대렬의 사상적, 조직적 통일 단결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세계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사상 의지의 통일 없이는 당 대렬의 통일이 있을 수 없고 당의 통일과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함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단결을 고수할 수 없으며 민족적 독립도, 사회주의의 승리도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 당과 전체 인민 앞에는 세계 혁명의 일환으로서의 우리 혁명의 당면 과업—— 조국의 통일 독립 완수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업이 놓여 있다. 오늘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은 나날이 장성하고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해방 투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환경하에서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미제 식인종들은 남반부 인민들에 대한 략탈 학살을 더욱 파렴치하게 감행하며 《북진》전쟁의 기도를 더욱 로골화하면서 우리 인민에 대한 식민지적 예속화를 영구화하려 하고 있다. 미제—리 승만 통치 10년 여에 남조선은 더욱 더 페허로 화해가고 있으며 오늘에는 절량 농가 100만 이라는 참극을 연출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남북 조선 인민의 절박한 초미의 요구로 되고 있다. 남북 조선 전체 인민이 원쑤를 반대하여 한 덩어리로 통일 단결됨이 없이는 미제 식인종들을 물러가게 할 수 없다. 우리 인민의 령도적 계급인 남북 조선의 로동 계급은 조국의 통일 독립 촉진을 위하여 우선 자기 대렬의 결속과 남북간의 련합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그를 선두로 하는 전체 민족 통일 전선을 최대한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반동의 괴수 미제를 반대하는 민족 해방의 과업은 국제 제국주의 세력을 반대하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의 공동의 투쟁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된다.

전 세계 근로자들은 국제주의적 단결의 위력으로써만 자본의 국제적 력량을 타승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와 민족적 독립과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미래는 영원히 근로자들의 것이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역할

림 춘 추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조국 력사에서 가장 암담하던 일제 강점 시기에 민족 해방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기 조국의 영예를 고수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유구한 애국 전통과 혁명 전통을 영광스럽게 계승 발전시켰다.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발전 계단에서 우리 나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립각한 정확한 전략 전술을 확립하였다. 그들은 1920년대의 조선 공산주의 운동과 대중 운동의 경험을 총화하며 국제 프로레타리아 운동 경험을 참작하면서 민족 해방 투쟁에 맑스—레닌주의적 지도를 주었으며 무장 투쟁 형태를 주로 하여 15 성상에 걸치는 간고한 반일 투쟁을 전개하였다.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오랜 반일 민족 해방 투쟁 과정에서 혁명의 참모부이며 근로 인민의 전위인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핵심적 골간을 갖추며 그의 사상적, 조직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부단히 전개하였다. 실로 반일 혁명 투쟁에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로 구성된 혁명적, 지도적 핵심들은 항일 무장 투쟁 대렬과 애국적 혁명 세력을 규합 결속하며 그 투쟁에서 온갖 승리를 조직하였다. 그들이 이룩하여 놓은 사상적, 조직적 준비에 토대하여 우리 당은 해방 후에 조직되였으며 오늘과 같이 강화 발전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무장 투쟁은 우리 민족 해방 투쟁의 빛나는 전통으로서 인민 대중의 투쟁은 이를 기간으로 전개되였다. 이 빛나는 반일 혁명 투쟁은 우리 민족의 력사에서 찬란히 빛날 것이며 그의 애국 전통과 혁명 전통은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 ※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1910년에 우리 나라를 강점하게 되였던 결과 우리 나라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전락되였고 인민 대중은 식민지 노예로 되게 되였다. 조선 인민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전복하고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를 쟁취하기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전개하였다.

1925년에 창건된 조선 공산당은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급속한 발전에 추동력을 주었으나 인민 대중의 혁명 투쟁에 대한 진실로 혁명적이며 볼쉐위끼적인 지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주로 당시 당의 지도적 핵심을 이루었던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의 동요와 파쟁에 기인되는 것이다.

사실은 종파 분자들이 당 창건을 종파적으로 진행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당시 당의 창건은 분산된 맑스주의적 소조들과 단체들을 전국적 범위에서 규합 통일하여 종래의 파벌 종파 크루쇼크적 근성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적 당성을 확립하는 사상 투쟁 과정을 통하여 통일 단결되여야 할 것이였다. 이와 같은 통일 단결은 당시 조선의 주객관적 정형에 알맞는 당의 강령, 규약과 그에 기초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적 원칙하에서 로동자, 농민 및 진보적 인테리들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며

우수한 분자들을 당에 인입시켜 그들을 핵심으로 하여야 만 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 창건은 력사적 제 사실이 실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을 창건하기 위한 꾸준한 원칙적인 투쟁과 준비가 없이 과거 량반 계층과 민족주의자, 우연 분자, 자산 계급층들로 구성된 각 파벌 두목들이 호상 종파 투쟁에서 패권을 쥐기 위하여 당 창건을 선언하고 파벌 투쟁에서의 패권을 잡는 데 만 급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의 소조들과 단체들을 맑스—레닌주의 당 조직 원칙의 기초 우에서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되지 못하게 하였다. 당 내에는《화요파》,《북풍회》,《상해파》등 재래의 각 파의 대립 투쟁이 그대로 끌려 들어 왔으며 당 외에 서울파 파벌 조직이 분파적으로 계속 남아 있었고 무원칙한 파벌적 대립 투쟁이 격화되였다.

이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적 당 건설 원칙에 립각하여 당 창건을 진행하지 못한 종파 분자들이 당의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 원칙을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였다. 《화요파》, 《북풍회》,《상해파》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선 공산당 창립 대회에서는 당 강령이나 규약도 채택되지 않았으며 조선 혁명의 성격과 그 동력에 대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에 의한 정치적 권력의 쟁취의 과업과 로동 계급의 령도에 대하여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식민지 민족 혁명에서 기본 문제인 토지 혁명에 대하여서와 반제 통일 전선에 대하여서도 전혀 론의되지 않았다. 심지어 공장과 농촌에 초급 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서와 지방 당 단체의 지도에 대한 통일적 방침도 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당 창립 대회는 종파'군들의 파적 행동 때문에 당의 전략 전술 문제들과 당의 목적 및 의무들을 규정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종파 분자들의 활동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파 분자들은 당 생활의 일체 사실과 사건들을 당과 로동 계급, 그리고 인민 대중의 리익의 견지에서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파적 선전과 음모 책동의 리익의 견지에서 평가하였으며 다만 자파의 외교적 음모와 그 음모적 리익 만을 추구하였으며 무원칙한 파적 경향이 유일한 옳은 정책인듯이 생각하고 활동하면서 심지어 자기들 개인의 지위와 파적 리익을 위하여는 다른 파의 사람들을 적에게 밀고하는 것까지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그들은 당의 통일과 규률을 (물론 규약도 없었지 만)문란케 하고 당내 생활을 적에게 밀고함으로써 당으로 하여금 일제 경찰의 수중에 쥐운 장란감으로 변하게까지 하였으며 당내의 일체 적극적 사업을 깨뜨림으로써 당의 위신을 저락시켰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로는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면서 무원칙한 종파 투쟁에 여념이 없었으며 또한 조선 혁명에 대한 정확한 전략 전술을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민족 통일 전선을 결성하며 맑스—레닌주의를 복잡하고 특수한 조선 현실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이 되여 당내에서 사상상 혼란과 조직상 산만성, 그리고 무규률성과 행동의 불일치는 극단에 이르렀으며 드디여 1928년에 조선 공산당으로 하여금 조직된 력량으로서의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종파주의에 여념이 없었던 자들은 그후에도 자체를 개조할 대신 계속 파적 행동을 하면서 로동자, 농민 대중이 자체의 투쟁을 통하여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로 긴밀하게 접근하고 있을 시기에도 혁명 대중을 분렬하였고 심지어 그중 어떤 분자들은 일제 앞에 투항 변절하였으며 투쟁을 포기하고 은신 도피하였다. 박 헌영, 리승엽 등과 같은 종파 분자들은 제국주의 스파이로 전락되였으며 다른 일부의 종파 분자들은 투쟁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제와 타협하고 결탁하는 길을 걸으면서 비속한 시정배로 떨어졌다. 이런 때에 오직 국내외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 만이 민족 해방 투쟁의 재 계단에서 그의 선두에 남아서 혁명 대중을 조직 지도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종래의 조선 공산주의 대렬내의 결정적 질환이였던 종파주의에 대하여 비타협적 견지에 서면서 소규모적 공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신중한 노력을 기울였다.

1930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하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의 지도적 핵심이 출현하여 국내외의 일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이 지도적 핵심의 주위에 집결시키고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　　　*

일제하의 조선에 있어서 통일적 맑스—레닌주의적 당은 재건되지 못하였지 만 김 일성 동지를 중심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의 조직적, 사상적 기초는 구축되였다.

세계 로동 운동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승리적 전진의 중요 조건은 로동 계급의 령도이다. 로동 계급의 령도의 실현은 그의 전위——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다. 1930년대 이후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로동 계급의 령도가 김 일성 동지를 중심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핵심에 의하여 실현되였다.

1930년대 우리 나라 형편으로 보아 즉시 전 조선적인 통일적 당을 재건하기는 매우 곤난하였다. 1920년대의 조선 공산주의 대렬 내에서 우세하였던 종파주의의 악영향은 그것이 1930년대 이후 일제 통치의 전 시기의 운동에 미치게 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조선에서 통일적 당을 재건하는 사업은 일대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30년 대에 있어서도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은 다수 경우에 수공업적 상태, 지방 할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계속 종파주의적 배타성이 심하였다. 그들의 다수는 공산주의자로서의 순진성과 순결성을 잃어버리고 서로 자기가 정통파요, 국제 로선이요 하면서 다루고 있었으며 무엇이든지 걷잡을 건드레기 만 있으면 자기파를 내세우고 다른 파를 깎아 내리였다. 이러한 정형과 종파 분자들의 죄과로 인하여 20년대 맑스—레닌주의의 원칙적 리론들이 우리 나라에 정당하게 광범히 침투되지 못하였던 조건 등등으로 말미암아 아직 어린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시비 판단을 곤난케 하였으며 어느 것이 당의 재건을 위한 정당한 길인가를 옳게 리해할 수 없게 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정당한 부르짖음도 많은 저해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주체적 약점과 다른 조건들로 인하여 통일적 당 창건이 간고하고도 장기적인 투쟁을 요하게 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상의 모든 형편을 타산하고 맑스—레닌주의적 당을 창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도를 강구하게 되였다. 그들은 전 조선적인 통일적 당을 즉시로 창건할 수 없는 조건에서 당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그 방도를 강구함으로써 통일적 당 창건을 위한 핵심적 간부들을 단련육성 보존하며 또 내외의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을 체계화함과 함께 그에서 종파주의와의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방침을 취하게 되였다. 견실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엠엘파》, 《화요파》 등 각 파벌 두목들의 고질화한 종파 활동을 분쇄하면서 국제 공산당의 1국 1당의 원칙에서 당 생활을 지속하는 조직적 대책을 취함으로써 동북의 조선인 거주 지역들과 조선 인민의 반일 무장 대오 내에서 공산당의 체계적인 조직을 수립 확장하게 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조선 공산당 재건의 튼튼한 기초를 축성할 수 있었으며 그의 골간들을 육성할 수 있었다. 만약 이와 같은 조직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서는 종래로부터 계속하여 오던 종파 분자들과 그 잔재 요소들을 없이 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이 맑스—레닌주의적 조직적 대책을 수립하고 국제 공산당의 직접 지도하에 공산당 조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당시 당 조직체 내에서는 과거 파쟁 두목들과 그의 영향하에 고집 불통으로 된 완고한 분자들을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엄격한

개별적 입당 절차에 의하여 로동자, 빈고농민 및 일부 진보적인 인테리들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자기 희생을 각오한 투사들을 당 대렬내에 흡수하여 당의 순결성을 보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매개 당 단체와 당원들을 수량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적은 수로써 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시켰으며 파쟁 분자들의 잠입을 경각성 있게 극력 주의하였다.

당시 재만 공산주의자들 중에서 파쟁 두목들은 은근히 자기들의 파쟁을 연장하기 위하여 당내에 기여 들어 오려고 기도하면서 마치도 자기들이 훌륭한 《국제주의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재만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혁명에서 손을 떼라》는 투항주의적 구호까지 내어 걸었다(엠엘파를 중심한 《조선 공산당 만주 총국 해체 선언》). 후안무치한 파쟁 분자들은 갖은 아양을 다하면서 청소한 당내에 잠입하여 적지 않은 해독 작용을 하였다.

그들은 국제주의를 떠들면서 실지는 사대주의 사상을 고취하였고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서 주요한 전투적 정신을 추동하여 주는 민족적 자존심을 마비시키며 심지어 맑스—레닌주의 립장에서 조선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려는 애국주의적 혁명 투사들에 대하여 협애한 민족주의자라는 모자를 씌워 위협 공갈하는 등 별짓을 다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경향들이 1933—1935년까지의 반《민생단》 투쟁 행정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대오 내에서 파쟁 분자들의 암해 책동과 그들로 말미암아 발생된 사대주의 사상 경향과 일부 락후한 분자들의 대국주의 사상 경향과 일제의 가혹한 테로 통치 하에서의 비겁한 투항주의자들 및 우경 기회주의자들과 모험 및 맹동적 좌경 기회주의 분자들과 꾸준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을 공고 발전시키였으며 불패의 력량으로 단련시키였다. 그러나 파쟁 분자들은 자파에 속한 사람들을 위주로 하여 당 생활을 지속케 하려 하였으며 계속 당 내에서 파적인 지도적 지위를 보존하려는 데 여념이 없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종파적 활동이 폭로 분쇄되자 어떤 종파 분자들은 적에게 투항하였고 다른 어떤 종파 분자들은 도주도 하였고 은신도 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핵심이 구성된 후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생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당성을 단련하였으며 대중 투쟁의 불'길 속에서 시련되여 그들의 조직 지도 수준은 제고되였으며 로동자, 농민, 학생들의 대중 투쟁에서 그들을 조직하여 반일 무장 대오에 결속하였으며 당 내에서 일체 종파주의적 잔재와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여 행동과 의지의 통일을 보장하였으며 김 성도, 송 일과 같은 종파 분자들을 숙청하며 좌경 반당적 로선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로선을 고수하였으며 볼쉐위끼적 강철의 규률을 엄수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통일된 의지로써 국내 혁명 조직의 창건과 조선 혁명의 발전을 위해 적극 투쟁하였다.

당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당시 군사 봉건적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테로 통치하에서 가장 긴절한 것이였다. 그러나 당의 질적 보장을 위한 량적 제한은 당 외의 광범한 비밀 외각 단체들——반제 동맹, 농민 협회, 혁명 호제회, 공산 청년단 단체 및 공산주의 아동단 단체의 조직 확대 강화의 필요성을 제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긴절하게 제기하였다.

1935년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지난 수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당 및 외각 단체의 조직상 결함을 통절히 감촉하였으니 그것은 당시 주객관적 모든 정세와 적아간 력량 대비상 너무 협소하고 제한된 조직체는 시기에 알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제의 일층 가혹한 테로 통치하에서 당 대오의 순결성을 여전히 보장하며 비밀을 더욱 엄수하는 문제는 극히 주요하였으나 단지 순결성을 보장한다 하여 소수공업적으로 너무 제한된 조직 방법을 견지한다는 것은 고립주의적 착오를 범할 수도 있고 우경 관문주의적인 편협한 생활을 꿈꾸는 자로 전락할 위험을 조성할 수 있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을 더욱 높은 계단으로 발전시키며 일제에게 보다 큰 타격을 주기 위하여 수년간의 실지 투쟁 경험에 근거하여 희생적으로 싸운 우수한 자들을 당에 인입하였으며 동시에 광범한 조중 인민들을 단결시켜 그들을 항일 구국 투쟁에 궐기시키기 위하여 조국 광복회, 민족 해방 동맹, 반일 구국회 등 보다 광범한 각계 각층을 망라할 수 있는 조직체를 구성하였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혁명 조직체들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으며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 각 부대 내에는 당 단체와 공청 단체들이 조직되였으며 그것들은 부대 사업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인 지도를 보장하였다. 동북의 조선인 거주 지대들에는 이미 1930년대 초부터 당 조직이 광범하게 조직되였다. 특히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국내 혁명 단체 조직 방침을 세밀히 실천하기 위하여 국내 중심부에 가까운 압록강 연안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당 조직은 더욱 광범하게 조직되였다. 당시 당 조직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사업은 당 간부 양성 훈련 사업, 반일 무장 대오와 대중과의 련계 강화를 위한 제반 대책의 실시, 외각 단체들에 대한 령도, 생산 유격대의 조직과 그에 대한 지도 사업, 일제 주구들과의 투쟁에로 대중을 발동시키는 사업, 일제 정책의 폭로 규탄 사업 등이였다.

그들은 국내에서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며 믿을 만 한 기성 조직들을 묶어세웠다. 1930년대 초부터 두만강 연안의 국내 지방에 공산주의자들이 파견되여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조직과 련계를 취하였으나 특히 1936년 가을에는 우선 함남 갑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박 달, 박 금철 및 기타 우수한 혁명 활동가들에 의하여 지도된 공산주의 단체와 련계를 확립하였으며 이 단체가 국내에서 수행할 정치적 및 조직적 로선을 명시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직접 지도하에 그들은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들로써 민족 해방 동맹을 창건하여 당 창건의 핵심적 조직체를 건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반일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반일 민족 통일 전선체를 조직할 구체적 과업을 제시하여 실천케 하였다. 이와 동시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기외의 국내 지하 조직들과의 련계를 확립하는 한편 직접 국내 각지에 공산주의자들을 파견하여 활동케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삼수, 갑산, 라진, 청진, 명천, 길주, 단천, 신흥, 풍산, 북청, 홍원 등지와 그리고 국내 깊이 들어가서 함흥, 홍남, 원산, 철원 기타 지방들에서 공산주의적 핵심체들을 구성하고 그로 하여금 민족 통일 전선체의 하부 조직들을 결성하고 활동케 하였다.

이것은 물론 통일적 당의 창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 재건 기초의 준비를 위한 견실하고 현실적인 방도였으며 그 기초적 조직의 준비였으며 반일 무장 투쟁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당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맑스—레닌주의적 지도 체계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기초가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확실히 구축되였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직 사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상 리론 선전 사업에 있어서도 과거의 조선 혁명 운동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원칙적 문제들을 해결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를 조선 혁명 문제와 결합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실천하였다. 그것은 바로 맑스— 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에 립각하여 조선 혁명의 성격과 과업,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민족 해방 투쟁에서 쟁취할 목적과 임무 및 전략 전술의 원칙들을 리론 사상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우리 나라 혁명 문제를 결합함으로써 혁명의 전략 전술적 기초 뿐만 아니라 사상적 기초를 구축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 재건과 통일 전

선 결성 문제 및 무장 투쟁과 대중과의 련계 문제에 대한 제 대책을 리론 사상적으로 정확히 규정하는 한편 대중 속에 사회주의 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사업을 가강히 진행하였다.

그들은 《3. 1 월간》,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등과 기타의 소책자들과 격문, 삐라, 혁명 가곡집 등을 발간하였는 바 그것들은 공산주의자들의 활동 방향을 제시하며 유격대원과 대중 속에 사회주의 의식을 주입하여 그들의 애국심과 적에 대한 증오심과 승리의 신심을 제고하였다. 승리의 신심이 없으면 실패하는 법이요 적에게 투항도 한다는 것이 하나의 구호였다. 또한 그들은 대중 속에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야만성과 침략성으로 인하여 조중 인민은 혁명에 궐기하게 되며 이 힘 앞에서 일제는 그의 미약성과 자본주의적 본질 때문에 망하게 되고 조중 인민은 최후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는 사상을 침투시켜 그들의 승리의 신심을 확고히 가지게 하였다. 동시에 일제가 조선 인민의 항일 투쟁 의욕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감행한 각종 기만적 책동과 일제와 야합한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매국적 행동들을 폭로 규탄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증오와 투지를 높이게 하였으며 개량주의적 및 각종 타협주의적 독소의 반혁명성을 폭로하여 그들의 달콤한 소리에 대중들이 유혹되지 않게 하였으며 일제와의 투쟁에서 비타협적인 불굴의 정신, 대중적 단결과 궐기의 정신을 끝까지 견지하도록 교양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원들과 조선 인민 혁명군 내에서의 정치 사상 사업, 특히 정책적 교양에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그들 속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 그의 일반적 원리에 립각하여 조선 혁명 문제에 대한 기타 정치 시사 학습과 정책 문제들에 대한 학습이 계통적으로 진행되였다. 매개 당원은 물론 매개 유격대원들은 정치 공작원으로서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양되였다. 이와 동시에 그들 속에서 유격 전술을 세심히 학습함과 아울러 유격대 내에서 소부르죠아적 조급성과 모험, 맹동주의를 배격하는 투쟁을 일상적으로 진행하면서 혁명적 락관주의 정신으로 당원들과 유격대원들을 교양하여 반일 무장 투쟁의 장기성과 간고성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또한 당내에서 종파 분자들과 그 잔재를 반대하는 원칙적 투쟁과 강철의 규률을 강화하는 투쟁을 가강히 진행함으로써 당의 사상상, 조직상, 행동상 통일을 강화하였으며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하였다.

견실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당원 및 유격대원들과 혁명 대중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하기에 주력하였다. 20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은 부르죠아 민족 배타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국제주의 사상과 결부함이 미약하였거나 거의 결부되지 못하였다. 특히 로농 대중을 쏘련을 적극 지지하는 사상과 중국 및 기타의 피압박 인민들과의 혁명적 련대성의 정신으로 교양하지 못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유격대 내와 혁명 군중 속에서 국제주의적 사상 교양을 강화하였는 바 쏘련을 옹호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기본 의무의 하나이라는 것과 쏘련의 존재는 우리 힘의 원천이라는 것, 따라서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쏘련을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무조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들 속에 침투시켰으며 중국 혁명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것은 조선 혁명 투쟁 발전의 주요 조건 중의 하나이라는 것, 조 중 인민의 단결은 우리 승리의 주요 담보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조 중 인민들이 단결하여 공동의 원쑤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보급시켰다.

이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학설이 반일 유격대 내와 인민 대중 속에 침투되였으며 또 그들이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칙에 립각하여 우리 혁명 문제들을 사상 리론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우리 나라 혁명 문제를 결합하였으며 그를 우리 나라 혁명 실천에 적용한 제 사실은 우리 나라에서 맑스—레닌주의적 당 창건을 위한 사상적 기초가 김 일성 동지를 중심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

기에 구축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　　*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경제, 정치적 제 조건을 고려하며 종래의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제 결함을 교훈 삼아 정확한 투쟁 로선을 규정하였으며 국제 혁명 운동에서의 조선 혁명 투쟁의 위치를 타산하면서 조선의 구체적 조건에 적응한 정확한 전술의 제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적극적인 반일 투쟁을 위한 주되는 투쟁 형태를 발견하고 이에 적응한 조직적 대책도 수립하였다.

일제 통치 하에서 조선 인민들의 긴급한 요구와 투쟁 목표는 무엇보다도 혁명 정권을 쟁취하는 문제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혁명 정권의 정치적 형태를 인민 정부 즉 인민 공화국 형태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국제 혁명 운동의 전진 과정을 타산하면서 조선의 구체적 제 조건과 그리고 유격 지구와 해방 지구들에서의 실천적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써 조선 혁명 수행에 가장 적응한 정권 형태였다. 종래에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서의 혁명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쏘베트 정부의 수립을 예견하면서 투쟁하였다.

그러나 1930년대 각국에서 특히 파쑈 세력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던 나라들에서 인민 전선 운동이 전개되면서부터 쏘베트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 쏘련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성숙되고 있었다. 더우기 식민지인 우리 나라의 제 특성과 1930년대의 력사적인 일정한 모멘트에 있어서 로동 계급과 농민 이외에 더 광범한 층, 특히 민족 부르죠아지의 일정한 부분도 혁명에 참가할 수 있는 민족 해방 혁명에 있어서 쏘베트적 형태보다 광범한 사회적 지반을 가지는 정권의 수립은 더욱 필연적인 요구로 성숙되고 있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 일제를 전복하고 민주주의적 독립 국가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 세력 결속에 대하여 《조선 민족의 총동원으로써 광대한 통일 전선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정확한 로선을 규정함으로써 혁명에서 고립주의적 경향과 좌경적 전술 계획을 극복하였다. 이는 광범한 통일 전선이라는 무기를 장악하고 수백만의 대중 및 가능한 일체 혁명의 동맹군을 조직하고 단결시켜 일제와 그 앞잡이인 민족 반역자들을 향하여 공격 전진하는 정확한 로선이였으며 당시 조성된 력사적 환경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 전략적 로선이기도 하였다.

1931년 이후 더욱 강화된 일제의 조선 민족 압살 정책과 생산 소비에 걸친 가혹한 략탈 정책, 독점 자본의 중압, 그리고 조선 청년들을 모조리 자기들의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빼앗아 간 이 모든 사정들은 대지주, 대부르죠아지를 제외한 중 소 기업가 및 기타 각 계층에게 한결같이 사회적 불안과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력사적 환경 하에서 이와 같은 계층은 공산주의자들이 옳은 현명한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반일 혁명 투쟁에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며 또는 호의적 중립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군중과의 관계에서 종파주의적, 고립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통일 전선 로선을 확립한 것은 일체 가능한 반제 혁명 세력을 통일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지은 것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제하 조선 혁명의 근본 문제는 반제, 반봉건 토지 혁명이며 그 주력'군은 로동자, 로동 계급의 령도하의 농민이라는 것을 명백히 규정함과 동시에 조성된 정세 하에서 일체 반일 혁명 력량을 결속하기 위한 통일 전선 로선으로부터 출발하여 전체 지주 토지 몰수를 내여 걸지 않고 친일 지주의 토지 몰수를 제기하였다.

당시 모든 가능한 계급과 계층들을 반일 투쟁에 가급적으로 광범히 동원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일부 지주까지도 이 투쟁에 동원된다면 물론 그들과 함께 반일투쟁을 전개하여야 되는 것이였으며 또한 당시 이러한 가

능성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당시의 력사적 환경에서 정당한 것이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의 적은 일본 제국주의는 물론이지 만 그와 야합한 봉건 지주 및 민족 반역자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혁명의 동력은 로동자, 농민, 도시 소부르쬬아지와 또한 친일하지 않는 민족 부르쬬아지까지도 포함한 인민 대중이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혁명의 성격과 목적, 그리고 전략 전술의 일반적 문제 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의 전략 전술적 임무들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주되는 투쟁 형태도 규정하였는 바 1930년대에 있어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주되는 형태로써 상설적 군사력에 의한 무장 투쟁을 규정하였다. 이 투쟁 형태는 당시에 있어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합법칙적인 산물이였으며 조성된 력사적 시기에 적절하였고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투쟁 형태였으며 조선 인민 속에서 력사적으로 내려 온 혁명적 전통을 전폭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투쟁 형태였으며 국제 혁명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투쟁 형태였다. 물론 무장 투쟁 형태는 조선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최초의 것은 아닌 바 20세기 초의 의병 운동 및 3. 1 운동 직후의 독립군 운동 등도 무장적 투쟁 형태를 취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가 인민적 무장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적 령도가 없었으며 그 결과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적 원칙과 령도에 립각하였으며 무장 투쟁에 필수적 조건인 인민적 기초를 부여하여 인민적 무장 투쟁의 길을 열어 놓았다. 바로 여기에 그 특성의 중요한 하나가 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 수행의 주되는 투쟁 형태를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명 투쟁의 중심 근거지를 창설하는 로선도 규정하였다. 그것은 바로 조선과 중국의 국경 지대이며 쏘련과 린접한 지대인 장백산맥 일대의 원시림 지대에, 조선의 혁명적 인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장기적 또는 림시적 혁명 근거지를 창설하는 로선이였다.

혁명 근거지를 정치, 군사적으로 보아 타당한 지대에 선택하여 설정할 것을 규정한 것은 당시의 국내 정세와 당시의 혁명 투쟁의 주되는 형태인 무장 투쟁에 적응되며 국제주의적 견지에서 가장 정확한 규정이였다. 참말 혁명 투쟁의 중심 근거지를 장백 산맥 지대에 두게 된 것은 조선 혁명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졌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30년대에 조선 혁명 앞에 제기된 당면한 민족 혁명의 승리를 쟁취할 혁명적 강령을 작성 제시하였으며 앞으로의 사회주의 혁명 완수를 보장하기 위한 최고 강령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말하며 1930년대 우리나라에 맑스—레닌주의 당은 아직 창건되지 못하였으나 당의 전술적 기초는 이미 수립되였으며 오늘 우리 당의 전술적 제 원칙은 벌써 그때에 기초 지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적 원칙을 규정짓게 한 전제는 무엇이였으며 일제하 조선 인민이 해결해야 할 기본적 모순들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와 조선 인민간에 존재하는 불상용적 모순이며 국내의 봉건적 잔재와 조선 인민간에 존재하는 불상용적 모순이였는 바 이 두 모순은 호상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와 함께 다른 모순, 례컨대 민족 부르쬬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모순과 기타의 모순도 있었다. 그러나 일제와 조선 민족간의 모순은 여러가지 모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순으로써 그것은 우리 혁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규정짓게 하였다. 그것은 조선 인민을 압박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적 압박이 가장 큰 것이므로 일본 제국주

의가 조선 인민의 첫째가는 가장 흉악한 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순들의 투쟁 및 그의 첨예화는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적 전략 전술을 확립하고 진실로 혁명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데서 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였다.

* *

맑스—레닌주의는, 식민지 예속 국가에 있어서 공산주의자들의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한 중요한 전술적 기초가 맑스—레닌주의적 당을 창건하며 타협적 민족 부르쬬아지와 제국주의와의 쁠럭을 반대하는 로동자, 농민 및 혁명적 인테리겐챠의 민족적, 혁명적 쁠럭을 결성하고 그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를 확보하며 소부르쬬아지를 타협적 민족 부르쬬아지의 영향하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민족 해방 운동과 국제 프로레타리아 운동과의 련결을 확보하는 것 등으로 된다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식민지 예속 국가에서의 민족 해방 운동에 있어서 민족 통일 전선에 관한 문제는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전술적 기초의 하나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1930년대 초부터 반일 무장 투쟁을 적극 진행하면서 인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였으며 광범한 각계 각층의 인민 대중을 그들의 자발성과 그들의 요구에 기초하여 다종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함으로써 인민 대중을 분렬시킴이 없이 반일 통일 전선에 결속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1930—32년대에 동만 일대에서 진행된 농민 대중의 추수 폭동, 기민 폭동과 각종 정치 깜빠니야들을 조직 지도하면서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인민 대중을 다종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하였으며 통일하였다. 그리하여 동만 각 현과 북만의 여러 현들에는 공산당 단체들이 조직되였으며 로동 조합, 농민 협회, 협동 조합, 반제 동맹, 반일회, 농민 자위대, 야학, 연구회들이 조직되였으며 생산 유격대, 동창회, 부녀회, 청년단, 소년 선봉대, 아동 선봉대 등 단체들이 조직되였다. 물론 인민 대중의 각계 각층은 그의 요구에 기초하여 조직되게 되였으며 이 기초적 조직 우에 인민의 각계 각층을《타도 일본 제국주의》란 기치하에 점차 통일 결속화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인민의 각계 각층이 조직 결속되면서 있었던 이것은 그후 1935년에 조직된 반일 통일 전선체로서의 조국 광복회의 튼튼한 지반으로 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중 인민의 우의와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 중 인민의 친선 단결은 우리 승리의 담보라고 믿었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조 중 인민의 민족 분렬 책동을 적극 진행하면서 그의 주구 단체인《민생단》,《협조회》,《협화회》등을 통하여 조 중 인민간에 민족적 반목을 조성하며 상호 멸시케 하면서 각종 모욕적 요언들을 류포시켰다.

협애한 민족 개량주의자들도 일제와 맞장구를 쳤다. 그외에 중국 사람들에게는 대국주의 사상이 있었고 조선 사람에게는 편협한 민족주의 표현들이 있어 이것들이 서로 엉키여 조 중 인민간에 불화를 조성할 수도 있었다.

때문에 조 중 인민의 친선 단결을 쟁취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므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 중 인민의 단결 쟁취 문제를 항상 깊이 고려하여 실천에 옮겼던 것이다.

당 및 외곽 단체 내의 간부 정책에서도 중국인 간부를 대담히 제발하였으며 중국인 거주 지역에로 유격 활동을 확대하기도 하였으며 반제 동맹 내에 중국인부도 설치하였으며 중국인 부락을 찾아 가서 정치 공작도 하군하였다. 그리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 중 인민의 친선 단결을 정치, 군사적으로 달성하였던 것이다. 조 중 인민을 그 성원으로 하는 항일 련군 제1, 2, 3, 4, 5, 6, 7, 8군의 토대의 창시자들은 견실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이였으며 이 항일 련군들은 공동으로 또는 단독적으로 원쑤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조 중 인민의 친선 단결은 력사적으로 또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한 피어린 공동 투쟁에서 맺어진 것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당시 동만 일대에 산재한 반일 무장 세력과의 행동 통일 및 련합을 실현함으로써 항일 구국군과 기타 반일 병사들에게 목적 의식성을 주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들의 령도하에 반일 무장 세력의 통일의 유리성을 알게 하였다. 당시 동만 일대의 항일 구국군이란 구 장 학량의 동북 군벌 중에서 일제가 만주 침공을 감행하자 산으로 도망한 군대들이였는 데 이들은 일제의 군사 공세만 있으면 일부는 투항 변절도 하고 점차 토비화도 되고 있던 군대들로서 그들과의 련합 통일을 위한 공작은 참말 곤난한 공작이였다. 그러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을 쟁취하기 위하여 그들 내에 우수한 공산주의자들을 파견하여 장기간 별동대 공작을 하게 하면서 그들의 항일 투쟁을 견지케 하고 련합 및 행동 통일을 진행케 하였으며 때로는 그에 정치 공작원들도 파견하였으며 실지 전투를 통하여 행동 통일의 모범도 보여 주었다. 례하면 동영현성 진공 전투와 왕청현 타자거우 전투와 같은 대전투를 비롯한 여러 전투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항일 구국군》과 기타 반일 병사들과의 행동 통일 및 련합의 쟁취는 군사적 의의를 훨씬 넘어 중요한 정치적 의의가 있는 것이였다. 그것은 그들이 전부가 중국인이며 대부분 빈농 출신이고 가장 천대 받던 사람들이였기 때문이며 그들과의 련합의 달성은 조 중 인민의 우의와 단결에 일정한 작용도 하는 것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적 군대의 반일 요소까지도 포섭하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일본군 휘하의 《위만군》들을 분리 쟁취하며 나아가서 그들이 병변을 일으키게 하며 항일 유격대와의 전투를 기피케 하기 위한 공작을 적극 진행하였다. 《중국인 끼리는 싸우지 말자》는 구호는 바로 그것이며 일만군 혼성 부대와의 전투시에는 집중 사격을 하였으나 위만군에 대하여는 그들이 사격할 때만 응전한 사실이 그것이며 전투에서 포로한 《위만군》 일반 병사들을 우대하여 석방한 것도 바로 그 공작이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인민 대중을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결속한 경험 우에서 국내외의 모든 애국적 력량을 통일적 민족 전선으로 단합시키기 위하여 1930년대 중엽에 와서 통일 전선 운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35년 5월에 조국 광복회가 창설되였다.

그가 조직된 후 그의 산하에는 수십만의 반일 애국 세력의 각계 각층이 망라되였다. 조국 광복회는 정당, 정파, 신앙, 직업의 여하를 막론하고 일제를 반대하며 조국의 자유 독립을 희망하는 일체 반일 요소를 규합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체였다.

이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당시 국제적으로 제기되였던 반파쑈 통일 전선 정책과 완전히 합치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 혁명 투쟁이 국제 혁명 운동의 발전 로선에 튼튼히 립각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1930년대 이후의 조선 민족 해방 운동은 열렬한 국제주의적 성원 속에서 그의 유기적 일환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조선 로동 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친선은 강화되였다. 20년대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입으로는 국제주의를 부르짖었으나 무원칙하고 악랄한 종파 투쟁을 진행하면서 대중 속에 들어 가지 못하였으며 진정한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 못하였으며 국제 혁명의 일환으로서의 조선 혁명 세력들을 분렬시켰으므로 그들은 국제주의에 립각하지 못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조국 광복회는 악질적인 친일 분자, 민족 반역자를 제외한 일체 반일 력량과 제휴하면서 행동 통일을 위하여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1936년에 《남만 조선 혁명군》 구 양 세봉 부대와의 통일 전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는 1938년에 와서 최 윤구 지도하에 있던 그 부대가 완전히 조선 인민 혁명군에 편입되였다. 이는 종전에 공산주의를 반대하여 오던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 전선 형성의 례이며 동시에 민족주의자들이 개조된 례이기도 하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국내 반일 력량을 통일하기 위하여 1936년 경부터 국내에 조국 광복회의 조직망을 본격적으로 조직하게 되였다.

반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국내 혁명 운동의 앙양을 크게 고무하였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국내에 혁명 단체를 직접 조직 지도하기 위하여 국내 중심부에 가까운 압록강 연안에 진주하여 장백현 일대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였으며 여기서 유격 투쟁과 당 및 대중 단체 사업, 간부 양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내 기성 조직과의 련계를 수립하였다. 국내에서의 공작은 우선 각 지방에서 분산적이고 수공업적으로 투쟁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여 공산주의적 핵심들과 그루빠를 형성하여 이를 항일 빨찌산의 주위에 집결시키며 공산주의 대오의 통일과 확대 강화와 그의 공고화를 도모하였으며 타방 로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 및 기타 광범한 반일 력량을 조국 광복회에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조국 광복회의 조직망은 동북 지방은 물론 압록강, 두만강 연안인 갑산, 신갈파, 무산, 경성, 신의주, 후창 등 지방을 비롯하여 신흥, 풍산, 단천, 합흥, 원산, 서울, 철원 등 국내 중심부에까지 확대되여 인민 대중 속에 깊이 뿌리를 박게 되였으며 그에는 혁명적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다수의 애국 인민들이 망라되였다. 그 조직 체계는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그 지방의 구체적 특성과 또 적의 공세와 파괴를 최소 한도로 멈추기 위하여 공작 위원회, 반일 청년 동맹, 반일 그루빠, 소년 탐정대, 구원회, 반일회, 부녀 해방 동맹 등 광범한 반일 력량을 흡수할 수 있는 조직 형태로서 그들은 그 지방에 있어서 실제 투쟁을 전개하며 반일 력량의 축적에 노력하였다. 이리하여 조국 광복회와 련계를 가지게 된 혁명적 로동자, 농민, 학생과 많은 애국적 인민들은 빨찌산 대오를 찾아 갔던 것이다. 이렇게 국내 혁명 단체들과 긴밀한 련계를 확립하고 원칙적 지도를 줌으로써 30년대 우리 나라 각지에서 광범하게 전개된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농민 투쟁은 목적 의식성과 정치적 성격이 더욱 높아졌으며 적색 로조 운동과 적색 농조 운동도 그에게서 거대한 영향을 받게 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 공산주의자들이 항일 무장 투쟁의 영향하에서 또는 그와의 직접적 련계를 가지고 가두로부터 공장과 농촌에로 깊이 침투하였으며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가 결합되였다는 것,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가 수립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20년대에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분렬되였던 민족 해방 혁명 세력은 통일되게 되였고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 *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한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그 휘하의 《위만 군대》를 대상으로 하여 15개 성상이란 기나긴 동안 국내외에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1931—1935년 시기에 반일 무장 부대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 밑에 국내외의 광활한 지대에서 활동을 전개하면서 일제의 군경들과 《위만군》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이 시기에 유격 부대는 주로 동만 일대인 연길현, 왕청현, 훈춘현, 화룡현, 안도현과 북만 일대인 동령현, 위하, 오상, 액목현 등지와 국내 두만강 연안들에서 투쟁하였다. 이 시기에 유격 부대는 급속히 강화되였고 벌써 일제의 군대 및 《위만군》의 대부대와 대전할 수 있게 장성되였다. 1933년 여름의 동령현성 진공 전투, 1934년 봄의 왕청현 당수하자 부근 전투, 라자구 진공 전투 및 기타 수다한 전투들에서는 수백명 내지 천 여 명의 적군을 상대로 하여 전투하였으며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유격 부대들을 조직 지도하면서 유격 부대들이 계속 장성 발전하게 됨에 따라 1932년 가을에 동만 일대의 각 현과 송화강 일대에 유격 근거지를 창설하

는 데 성공하였다. 유격 근거지의 창설과 확대는 무장 투쟁의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졌다. 그것은 혁명 군중을 무장적으로 훈련하며 군사, 정치 간부들을 양성할 수 있었으며 가렬한 전투에서 피로한 유격 대원들에게 휴식하고 정상적인 군사, 정치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후방을 보장하여 주었으며 혁명의 참모부를 적의 집중 공격으로부터 보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격 운동의 통일적, 항구적 발전을 기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인민 대중을 항일 투쟁에 발동시킬 수 있게 하였으며 당시 근거지가 없이 유랑하던 항일 구국군과의 항일 무장 련합 전선을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유격 근거지들에서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였으며 혁명적 정권 기관도 인민의 손으로 건립되였으며 군정 학습을 위한 학교와 병원 기관들도 설치되였다. 또한 유격 근거지 내의 인민들은 그들의 계급적 각성과 투쟁 의욕의 제고 정도에 따라 여러 항일 단체에 망라되여 교양되며 훈련받음으로써 그들의 정치 사상적 통일과 조직적 단결이 강화되였다. 이러한 근거지들은 유격대의 영용한 활동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확대 강화되여 갔으며 유격 부대들은 이 근거지를 발판으로 하여 점점 광범한 인민 대중에 깊이 뿌리를 박은 광대한 대련합 부대로써 점차 장성 강화되였다. 드디어 1934년에 이르러 김 일성 동지와 그 전우들의 지도 아래에서 동만 반일 유격대를 중심으로 한 조선 인민 혁명군이 창건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의 건립은 분산된 소규모적인 투쟁 형태로부터 대규모적인 기동적 투쟁 형태에로의 이행을 의미하며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반일 무장 부대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와서 인민 혁명군은 기동 작전으로써 적에게 거대한 타격을 련속적으로 주었다. 이리하여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게 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의 승리적 전진과 유격 근거지 창설 및 거기에서 진행된 제반 혁명적 개혁에 고무되면서 국내에서도 로동자들의 파업 투쟁과 농민들의 소작 쟁의가 광범히 전개되였다. 1931—1935년간에 902건의 로동자들의 파업과 351건의 농민들의 소작 쟁의와 폭동들이 일어났던 것이다.

1935년—1937년 시기부터 반일 무장 투쟁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 서게 되였다. 1934년 말경에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령솔하에 조선 인민 혁명군 련합 부대는 유격 지구를 확대하며 혁명의 씨앗을 북만의 조 중 인민 속에 뿌리며 국제 혁명 세력과의 직접적 련계를 가지기 위하여 북만에 진출하였다. 그 후 그들은 국내에 혁명의 핵심 조직과 혁명 단체를 조직하며 혁명 운동을 직접 조직 지도하기 위하여 1935년 봄에 북만으로부터 동만으로 돌아 오게 되였다. 그들은 혁명의 대중적 기반을 구축 공고화하기 위하여 조국 광복회를 조직 확대하면서 국내 중심지에 가까운 국경 지대에 접근하기 위하여 압록강 연안에로 진출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의 주력 부대는 1936년 봄과 여름에 걸쳐 무송현과 림강현 일대에서 대규모적인 전투를 진행한 후 국경 지대에로 진출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장백현 일대에 장기적, 림시적 혁명 근거지를 설정하고 국경 지대와 조선 국내 북부 지역에서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 무장 투쟁은 대규모적 성격을 띠게 되였으며 그러한 작전은 1936년 9월부터 중 일 전쟁이 발발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였다. 즉 그 동안에 장백현 내덕수, 반제구, 이십도구, 이도구, 흑사재구, 흑사재, 밀영, 문암동, 홍루산, 도천리, 리명수, 구시산, 간상봉 전투 등과 안도현 요탄골 전투, 몽강현 소석한 전투, 무송현 해청령 전투 등이 전개되였다. 이 모든 전투들은 모두 수백명 이상의 혁명군들이 동원되여 작전하였다. 이러한 전투들에서 거둡되는 승리는 조중 인민 대중으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이 앞으로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신념을 굳게 가지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 인민 혁명군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 지도하에 국내 진군을 더욱 확대하였다.

갑산의 제 조직을 위시한 국내의 혁명 단체들과의 긴밀한 련계 하에 1937년 6월 4일에는 김 일성 동지가 직접 령솔한 조선 인민혁명군의 일부대는 압록강을 건너 고국의 땅, 보천보에서 전투를 전개하였다. 이 전투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은 일제에게 정치, 군사적으로 되는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실로 보천보 전투는 일본 강탈자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비운에 싸였던 조선 인민에게 서광을 비추어 주었다.

보천보의 전투는, 조선 인민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며 민족 해방 운동의 세력은 살아 있다는 것을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인민 대중에게 해방에 대한 새 힘을 주었으며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이 시기에 국내의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과 그리고 이 무장 투쟁과 직접 련결되지 못하였던 국내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의 빛나는 성과들에 의하여 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핵심과 간접으로 련결을 갖고 있는 국내 혁명 조직들의 지도 하에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비밀리에 연구하면서 승리의 신심과 계급 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을 높이고 직접 간접으로 일제의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전개하였다.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된 후 견실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임무는 더욱 커졌다. 일제의 후방인 만주와 조선에서 유격 투쟁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그들의 패배를 촉진시키며 조 중 인민에게 일제의 패망과 조선 독립에 대한 신심을 더욱 북돋아 주어야 하였다. 당시 일제는 중국 관내 침략을 감행함과 함께 반쏘 침공준비에도 광분하였던 만큼 그들의 전략적 기지인 조선과 만주의《안전》을 도모하려고 수십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대규모적 포위 작전을 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은 대규모적인 섬멸전으로써 특히 1939년에는 대부대 유격 전투로써 그들에게 패배를 주었다. 이 기간에 장백현 십이도구, 가재수, 십오도구, 반재구 전투, 림강현 륙도구, 고가령, 오가령 전투, 안도현 대사하 전투, 화룡현 대마록구 전투들이 진행되였으며 적군 군용 렬차와 수송 부대 등에 대한 습격 전투들이 계속되였다. 특히 이 시기에 그들은 일제가 쏘만 국경에서 장고봉 사건과 만몽 국경에서 노몽항 사건을 도발하고 반쏘 침공을 감행하였을 때 무장적으로 쏘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제에 대한 배후 공격 작전을 과감히 진행하였다. 이 시기에도 조선 인민 혁명군은 국경을 넘어 조국 강토에 진군하는 작전을 계속하였다. 1939년 5월에 함남 갑산군 지역과 함북 무산군 지역에 진출하여 근 10여 일간에 걸치는 장기적인 전투를 진행하였다.

이 시기는 국내에서 민족 개량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원쑤 일제와 야합하였고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이 일제에게 투항 변절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일제의 극단의 파쑈 폭압 정책에 대하여 국내의 조국 광복회 조직과 기타 지하 조직들의 일부가 파괴된 때였으며 인민 대중은 모든 것을 여지 없이 유린당하고 《아이구 이 놈의 세상 날래 번져집시사》하고 있을 때였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 인민 혁명군이 국내에서 일제의 뒤통수를 내려 갈긴 것은 국내의 혁명 투사들과 인민 대중에게 거대한 혁명적 영향으로 되였다.

1940년 경에 와서 조선 인민 혁명군의 투쟁 조건은 현저히 달라졌다. 제2차 세계 대전이 폭발된 후 일제 군벌들은 태평양 전쟁 도발을 기도하면서 중일 전쟁을 속결하고 반쏘 침공을 적극 준비하기 위하여 놈들의 전략적 기지인 만주와 조선에 무력을 증강하고 우선 조선 인민 혁명군에 대한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되는 전면적 포위 공격을 취하였다. 일제놈들은 관동군의 정규병 수개 사단을 위시한 20여 만의 대병을 동원하였으며 산간 주변의 주민을 강제로 모아 곳곳에 만들었던 《집단 부락》을 《대집단 부락》으로 통합하면서 인민 혁명군에 대한 경제적인 봉쇄 정책을 감행하였다.

변동된 국제 정세와 일제의 인민 혁명군에 대한 전면적 포위 공격에로의 이행의 조건

하에서 또 그리고 일제의 종국적 패배가 더욱 확연하게 되여 가고 있으나 최후 결전의 시기는 성숙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조선 인민 혁명군은 자기의 투쟁 전술을 변경하게 되였다. 그것은 앞으로 도래할 대사변의 영접 준비를 위한 혁명의 핵심 보존의 전술인 바 이는 우선 력량을 보존하기 위하여 종래와 같은 대부대의 행동으로써 집중적 섬멸을 주는 전술을 취할 것이 아니라 소부대의 영활한 활동으로써 일본 군대에 대한 계속적인 소모전을 전개하여 그에게 타격을 주는 투쟁 전술이며 또 조선 인민 혁명군 전체 성원들이 선전 선동원이 되여 인민 대중 속에 조국 광복회의 강령을 침투시키여 인민 대중이 도래할 대사변기에 대처하여 승리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하는 정치 공작의 전술로, 그리고 대중 속에서 혁명적 지하 조직들을 확대 강화하며 지하 조직들을 정리 보존하는 사업에로, 혁명 간부들을 재양성하는 사업에로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 기습 소조들은 동북과 국내의 여러 지방에서 적의 요소와 수송선, 군수 창고와 교량들을 습격 파괴하였으며 적의 중요 군사 시설들에 대한 정찰을 감행하였다. 훈춘 경내의 경비 초소에 대한 기습 전투를 감행하는 동시에 적의 전초 기지였던 라남, 청진, 라진 요새지에 대한 정찰도 계속 진행하였다. 정치 공작 소조들은 동북의 여러 지방과 조선 북부 일부 지방에서 혁명 단체의 정리 복구와 련락선의 복구 설치를 진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일부 지도적 핵심은 쏘련 인민의 적극적인 원조 하에 수년 동안 재교양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사변에 대처할 현대적 군사 지식과 지휘 능력을 더욱 련마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게 됨으로써 이미 실지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당성의 토대 우에 과학적인 세계관과 혁명 리론을 풍부히 하게 되였으며 조선 혁명 문제들을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적으로 소유하게 되였다.

1945년 8월 9일 위대한 쏘련 군대가 일제를 반대하는 전투를 개시함으로써 대사변은 도래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습격 소조들은 급속히 집결되여 쏘련 군대와 함께 일제를 격멸하는 성전에 직접 참가하였으며 승리적 조국 개선을 맞이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조직 전개한 조선에서의 무장 투쟁, 그것은 인민의 무장 부대가 무장한 반혁명을 타승하며 자기의 진지를 창건하기 위하여 의거하였던 가장 훌륭한 투쟁 형식으로서 조선에서 민족 해방 투쟁의 발전의 합법칙적 산물이며 민족 해방 투쟁의 빛나는 전통인 것이다. 그것의 본질은 로동 계급——곧 공산주의자들의 령도 하에서의 농민을 주력으로 한 인민 대중의 무장 투쟁이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이 시기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로농 동맹을 확고히 실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로동 계급의 령도를 수립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의 혁명적 활동에서 맑스—레닌주의에 확고히 립각하였으며 그의 일반적 원리를 조선의 구체적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으며 20년대 조선 공산주의 운동 내에 있었던 종파주의와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적 혁명 운동을 확립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

1930년대 초에 김 일성 동지를 중심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적 핵심이 구성된 것은 우리 나라의 혁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를 중심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함으로써 조선 인민의 반일 혁명 운동으로 하여금 무장한 혁명이 무장한 반혁명을 반대하는 무장 투쟁 단계에로 올라 서게 하였다. 이 반일 무장 투쟁은 1930년 이후의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운동에서 빛나는 전통을 이루었으며 인민 대중의 모든 투쟁은 이 반일 무장 투쟁을 근간으로 하고 전개되였다. 반일 무장 투쟁이 민족 해방 운동의 빛나는 전통으로 된 이 사실은 로동 계급의 령도 하에 농민을 주력으로하여 구성된 반일 유격대에 의한 무장 투쟁이 농민에 대한 로동 계급의 령도의 실현 만이 아니라 조선 인민 대중에 대한 령도의 실현을 확증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하는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전개된 반일 무장 투쟁은 조선 인민의 모든 반일 투쟁과 배합된 것 만큼 무장 투쟁과 그와 련결된 대중 운동의 본질은 민족 해방 혁명 운동인 동시에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의 사상적, 조직적 지반을 닦기 위한 것이였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 인민의 지도적,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사상적, 조직적 및 전술적 기초를 구축하였으며 분산되였던 공산주의자들이 단결하며 혁명 간부를 단련해 냄으로써 당 창건의 튼튼한 토대와 핵심을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혁명 전통은 8. 15 해방 후 당 창건의 사상적, 조직적 및 전술적 기초로 되였으며 당의 공고 발전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반일 무장 투쟁을 조직 전개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조선 인민 혁명군과 그 지도적 핵심은 조선 혁명 운동의 골간이였던 만큼 8. 15 해방 후의 당 및 인민 정권과 인민 군대 창건에서 견고한 핵심으로 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창건 공고화된 조선 로동당은 오늘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도당을 반대하며 조국의 통일 독립을 위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 인민 대중을 령도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새 전쟁 도발을 획책하는 미제의 앞길을 가로 막아 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인민들이 공동으로 부르고 있는 《영웅적 조선 인민》이란 존칭은 반일 민족 해방 투쟁 시기에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쌓여진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자료

웨. 이. 레닌의 새 문헌들

아래에 발표하는 웨. 이. 레닌의 문헌들은 1918년—1921년에 집필된 것이다.

일견 미완성 결정서 초안과 같은 문헌 《쏘베트 정권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성격에 관하여》에서 웨. 이. 레닌은 국가 정권기관으로서의 쏘베트의 진정으로 인민적인 사회주의적 성격과 광범한 근로 대중을 국가 관리 및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는 사업에서 가지는 쏘베트의 의의를 천명하고 있다.

웨. 이. 레닌은 공장 또는 로동자들이 일하는 생산 부문들에 대한 로동자들의 소유를 공인하려는 시도들에서 표현된 무정부—싼지깔리즘적 경향들과 그리고 중앙 국가 정권의 명령, 지시를 약화 또는 방해하려는 시도들을 쏘베트 정권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최대의 외곡으로서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포기로서 준엄하게 비판하고 있다.

1918년 7월 26일 모쓰크바시 쁘레쓰넨쓰끼 구역 집회에서 한 연설에서 웨. 이. 레닌은 진정한 인민적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쏘베트 헌법의 특징을 선명하게 설명하고 이 헌법이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노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웨. 이. 레닌은 부르죠아 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 민주주의의 근본적 대립을 천명하고 부르죠아 사회에서의 자유의 허위적 성격을 폭로하고 있다. 쏘베트 로씨야에는 근로자들을 위한 진정한 자유, 출판, 집회의 자유, 신교의 자유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로동자 출판물을 탄압하며 그로 하여금 략탈적 제국주의 전쟁에 관하여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허위와 비방의 독소로 인민의 의식을 중독시키고 있다고 웨. 이. 레닌은 교시하고 있다. 제국주의 략탈자들에 의하여 사면으로 포위된 쏘베트 로씨야의 어려운 처지를 특징지우면서 웨. 이. 레닌은 쏘베트 인민이 무력 간섭자들의 세력을 타승하리라는 데 대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웨. 이. 레닌은 1920년 2월 6일에 제4차 도 비상 끄미싸 대표자 회의에서 연설을 하였다. 대표자 회의가 소집된 시기는 쏘베트 나라가 꼴차크, 데니낀 및 유데니츠를 분쇄하고 림시 휴식을 전취하여 경제 건설 문제에 전심할 수 있게 된 때였다. 외래 간섭자들과 국내 반혁명의 군사력에 대한 쏘베트 인민의 승리의 원인을 밝히면서 레닌은 일체 력량이 단결되였음으로 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가 실지로 실현되였음으로 하여 승리를 획득하게 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쏘베트 공화국의 국제 및 국내 정세를 특징지으면서 웨. 이. 레닌은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 이행하는 새로운 조건에서의 비상 끄미싸들의 제 과업을 지적하고 쏘베트 나라 앞에 나선 경제상 애로들을 해결 및 극복함에 있어서와 우선 운수의 파괴 상태를 퇴치함에 있어서 비상 끄미싸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웨. 이. 레닌은 자기 연설에서 가장 잔인한 투쟁 방식들을 취하여 전대 미문의 범죄와 테로를 감행하는 전복된 착취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폭력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동방 인민 선전 및 행동 협의회에 보낸 웨. 이. 레닌의 축사는 동 협의회의 서한에 대한 회답이였는 바 동 서한은 신문 《붉은 동방》이 근일에 발간되리라는 것을 전하고 웨. 이. 레닌에게 론문 집필을 의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였다. 자기 축사에서 웨. 이. 레닌은 서방 문명의 운명에 대해서 동방 인민들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

쏘베트 정권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적 성격에 관하여

쏘베트 정권의 민주주의와 그 사회주의적 성격은

이때까지 자본의 압박을 받아 온 대중들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거되며 또 임의의 시기에 대체되는 근로 인민(로동자, 병사 및 농민들)의 대표들로써 구성되는 쏘베트가 최고 국가 주권이라는 것과,

지방 쏘베트들은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칙 우에서 단일한, 하나의 련방으로서 단합된, 전국적, 로씨야 쏘베트 공화국의 쏘베트 정권으로 자유로이 련합된다는 것과,

쏘베트들은 례외 없이 전체 근로 주민이 국가의 립법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로 점차 이행할 목적으로 자기 수중에 립법권과 법령 집행에 대한 통제를 집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쏘베트 전체 성원을 통하여 법령을 직접 실시한다는 것에서 표현된다.

다음으로 아래와 같은 것에 류의하면서 즉

개개 공장 로동자들 또는 개개 직업 로동자들의 특수한 생산에 대한 그들의 소유를 또는 전 국적 정권의 명령, 지시를 약화 또는 방해할 그들의 권리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공인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할 것 없이 쏘베트 정권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최대의 외곡으로 또한 사회주의의 완전 포기로 된다는 것*

1918년 전반년에 집필

---

*여기에서 원고는 중단되였음

모쓰크바시 쁘레쓰넨쓰끼 구역 집회에서 한 연설

1918년 7월 26일

(레닌 동지가 나타나자 박수 오래 계속된다) 레닌 동지가 발언한다. 그는 쏘베트 헌법의 기본 규정들을 해석하면서 이 헌법의 본질을 아주 명료하게 또 알기 쉽게 천명해 준다. 쏘베트는 인민 주권의 최고 형태이다. 쏘베트는 머리 속에서 나온 고안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 현실의 산물이다. 그것은 인류 력사상 처음으로 락후한 우리 나라에서 나타나고 성장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근로자들의 정권 형태로 되여야 한다. 오늘날까지 존재한 모든 헌법들은 지배 계급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오직 쏘베트 헌법 만은 근로자들에게 복무하는 것이며 또 언제나 그러할 것이며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강력한 도구로 된다. 레닌 동지는 부르죠아 헌법들에서의 《출판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요구와 쏘베트 헌법에서의 그것에 대한 요구간의 차이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그곳에서 출판 및 집회의 자유란 부르죠아지의 완전한 독점물이다. 그곳에서는 부르죠아지가 자기네들의 사교장에 모이며 허위와 비방을 퍼트려 인민 대중의 의식을 중독시킬 목적으로 은행의 자금으로 간행되는 자기네들의 대신문을 발간한다. 그곳에서는 로동자 출판물을 탄압하며 그로 하여금 략탈적 전쟁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추궁하며 그들의 집회를 금지한다. 그러나 이곳 쏘베트 로씨야에서는 로동자 출판물이 존재하여 근로자들에게 복무한다. 로씨야에서 우리는 부르죠아지에게서 화려한 집들, 궁전들을 몰수하여 로동자들에게 내맡겨서 그들의 구락부로 되게 한다. 이것이 곧 실지의 집회 자유인 것이다. 종교는 사사(私事)이다. 어떤 것이든지 믿어도 좋고 아무 것도 믿지 않아도 된다. 쏘베트 공화국은 각 민족 근로자들을 단결시키며 민족의 구별 없이 근로자들의 리익을 고수한다. 쏘베트 공화국은 아무러한 종교상 차별도 모른다. 쏘베트 공화국은 온갖 종교 밖에 있으며 종교를 쏘베트 국가로부터 분리시켰다. 다음으로 레닌 동지는 제국주의 략탈자들에 의하여 사면으로 포위된 쏘베트 정권이 처해 있는 어려운 처지를 설명하였다. 레닌 동지는 붉은 군대 병사들이 전력을 다하여 우리 쏘베트 공화국을 국제 제국주의의 침해로부터 옹호할 것이며 우리의 동맹자——국제 프로레타리아트가 우리를 도우러

올 때까지 우리 쏘베트 공화국을 유지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집회는 레닌 동지의 연설에 한결같이 오래 계속되는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기사에 의하여 게재

제4차 도 비상 꼬미쌰 대표자 회의에서 한 연설

1920년 2월 6일

동지들, 지금 당신들은 쏘베트 로씨야가 새로운 활동 지대에로 과도하는 조건에서 사업하여야 한다. 과도기의 이 조건이 국제 조건에 의해서도, 국내 조건에 의해서도, 더 정확히 말하여 최근에 발생한 국제 및 국내 전선의 정세 전환에 의하여 야기되였다는 것을 당신들은 물론 모두 알고 있다.

근본적 변화는 백파 반혁명의 주력이 유데니츠 및 꼴차크의 패배 후와 데니낀에 대한 승리 후에 분쇄되였다는 데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최근에 로쓰또브 근방 노브체르까쓰크에서 일시적 곤난이 발생하여 데니낀이 회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조성되였음으로 신중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요한 승리들은 새로운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부르죠아지는 그에게 유리한 전환을 이미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것은 국제 정세가 역시 아주 변하였다는 것, 즉 련합국이 봉쇄를 철회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변하였다는 것으로써 더욱 명백하다. 우리는 에쓰또니야와 강화를 체결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는 주요한 성과를 달성하였는 바 이것은 우리의 립장을 매우 튼튼케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10중 8,9는 나머지 모든 변강 국가들과의 강화를 달성하게 될 것인 바 그렇게 되면 련합국의 어떠한 공격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하여 반혁명과의, 백파 무력과의 은연한 또는 공연한 투쟁의 날카로운 첫 시기는 일견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 저러한 반혁명 운동과 폭동의 시도들이 반복되리라는 것은 아주 확실하며 또 이 밖에도 로씨야 혁명 운동의 경험은 순전히 테로적 성질을 가진 시도들이 빈번히 대중적 무장 투쟁을 수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무기 소유와 그 사용에 가장 익숙한 분자들인 장교들의 반혁명 무력이 이 무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것을 단념하지 않으리라고 예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또 예기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로쓰또브 점령 후 제르진쓰끼 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사형이

폐지되기는 하였지 만 우리는 사살 회복의 가능성을 조금도 묵과하지 않는다는 보류 조건을 맨 처음에 부치였던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합목적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쏘베트 정권이 사형을 필요성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보다 더 오래는 보존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사형 폐지로써 쏘베트 정권이 어떤 부르죠아 공화국의 어떤 민주 정권도 하지 못한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당신들은 백파의 압제하에 있던 모든 변강 지방의 대다수 로동자와 농민들이 그곳에 많으면 많을 수록 그들이 더 확고하게 우리 편에로 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들은 부르죠아지의 모든 시도들이 일찍부터 실패의 선고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쏘베트 정권의 2년간의 실천에서 관찰하였다. 우리는 수만명의 장교들, 지주 분자들이 아무러한 범행도 감행할 것을 결심하고 외래 제국주의 렬강들의 앞잡이들과 교량 폭파 조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시도들이 중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들 하였다. 하여간 우리는 새로운 전 국적 사태를 고려하여 무조건하고 의연히 무장 경비를 하여야 하며 무장 투쟁 시기가 큰 력사적 규모에서 비록 끝나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추호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반혁명을 진압하는 기관들 앞에는, 비상 위원회 기관들 앞에는 매우 복잡하고 곤난한 문제가 제기되여 있었으며 또 의연히 제기되여 있다. 한 편으로는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의 이행을 리해 고려하여야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공고한 평화를 어떻게 빨리 달성할 것인가를 우리가 모르는 만큼 언제나 무장 경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새 방법의 적용이 부르죠아층들에게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 변경들이 무엇을 가져 올 것인가를 념두에 두고 실지로 시험해 보아야 하며 오직 이것을 고려하면서 이 실지 경험에 기초하여 이러 저러한 변경을 가하여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우리는 여전히 적을 격퇴할 수 있는 완전한 전투력을 보존하여야 한다. 침공의 시도들이 있으리라는 것, 데니낀이 국내 전쟁을 계속하기 위하여 강화되리라는 것, 반혁명 분자 집단들 측으로부터 테로의 시도들이 있으리라는 것 등은 가능한 일이므로 전투 태세의 유지는 우리들에게 있어 의무적이다. 우리는 이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한 기관을 약화하지 않는 동시에 반드시 전술을 점차 변경하며 탄압의 성격을 변경하면서 전쟁으로부터 평화에로의 새 이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는 이 문제가 당신들의 토의에 있어서 적지 않은 역할을 놀았으며 또 물론 당신들은 실제적인 구체적 결정들을 위한 자료를 나보다 비할 바 없이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당신들이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연구하려고 노력하리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당신들은 로씨야의 최근에 해방된 지방들에서, 씨비리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반혁명 진압 기관들의 활동이 어떠한 방면

에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는 자기의 활동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상세히 고려하고 이 문제에 오래 머므르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하면 나는 실제 자료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되말하려는 것은 매개 비상 위원회에서 실제로 나타난 구체적 자료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러한 대회들의 과업은 그러한 실제 자료를 될수록 더 상세히 토의하며 매개 지방 일'군이 자기의 협소한 범위에 파묻혀 있지 않고 의견 교환에 의하여 더 확고한, 오래'동안 확정된 전술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특히 나는 반혁명 진압 기관들 앞에, 반(反)간첩 및 반투기 투쟁 기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문제에, 즉 지금 쏘베트 정권의 건설의 견지로 보아, 로농 정권의 강화와 파괴된 경제의 복구의 견지로 보아 전면에 나서고 있는 류혈 없는 로동 전선에 주의를 돌리려고 한다.

련합국의 지지를 받는 꼴차크, 유데니츠 및 데니낀을 반대하는 투쟁의 과업은, 전 세계의 가장 부유한 강국들이 자기 편에 있었음으로 하여 승리가 자기들에게 보장되여 있다고 지금까지 확신하고 있던 반혁명적 지주 및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과업은 쏘베트 공화국 자체의 존재를 고수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나섰기 때문에 국내의 일체 력량을 긴장시킬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한 그러한 과업이였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다.

쏘베트 정권 수립 후 이 두 해 동안에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수행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 하면 국제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에서는 세계가 보지 못한 그러한 전대미문의 대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것은 로동 계급의 선봉대가, 우수하고 성실한 전위가 쏘베트 정권 수립 후 이 두 해 동안에 믿을 수 없을 만한 영웅성과 결단성을 발휘하였고 미증유로 큰 동요를 일으킨, 로동 계급과 농민내의 락후한 모든 동요 분자들이 더욱 동요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더 우리 편으로 기울여졌다는 그런 의미에서 일체 력량의 단결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실제적 실현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시련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그들은 더욱 더 빨리 우리 편으로 넘어 왔던 것이다.

그와 같은 력량 집중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탄식과 불평과 불만을 무릅쓰고 강제의 방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10월 혁명 전후에 우리는, 새 제도의 탄생은 혁명적 폭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 우리들이 무소속 소부르죠아 인테리겐챠로부터 듣는 온갖 불만과 불평은 반동에 불과하다는 견지에 서 있었다. 결사적 계급 투쟁에 의하여 움직이는 력사는 지주와 자본가들이 사태가 판가리 싸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들은 무엇이건 서슴치 않고 취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력사는 혁명적 폭력 없이는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로동자와 농민의 직접적 원쑤들에 대한 혁명적 폭력 없이는 이 착취자들의 반항을 분쇄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혁명적 폭력은 근로 대중 자체의 동요하는

자제력이 없는 분자들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우리들이 붉은 군대의 거대한 승리의 목격자였다면 쏘베트 정권의 지난 두 해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승리들을 향하여 갔는 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10월 혁명이 군대의 완전 붕괴와 군사 단체의 완전한 결여의 조건하에서 시작되였다는 것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군대를 못가지였으며 우리는 오랜 곤난한 방법으로 이 군대를 징모 단결시키며 새로 창건하여야 만 되였다. 그리하여 새로운 규률 있는 붉은 군대의 이 창건에 있어서도 혁명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되였다. 또 이 혁명적 폭력은 리기주의 분자들에 대하여 아주 옳게 적용되였다. 선봉 분자들이 자기의 전 력량을 반혁명파의 투쟁에 바치고 있었을 때, 선봉 분자들이 최대의 헌신성을 발휘하면서 전장(戰場)에서 수 많이 쓰러지고 있었을 때 일부 락후한 농민들(땅을 얻은)과 일부 락후한 로동자들은 오직 자신을 위해서 만 일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선봉 분자들은 새로운 규률을 확립, 강화하지 않으면 아니되였는 바 새 규률은 혁명적 폭력에 의하여 유지되였으며 또 그것은 오직 로동자와 농민, 전체 근로 대중의 전체 자각적 분자들이 이 폭력에 공명하였고 이 강철같은 규률이 없었다면 우리는 붉은 군대를 창건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2년간의 투쟁을 견디여 내지 못하였을 것이며 일반적으로 조직되고 련합된 자본을 반대하는 데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도 금후 투쟁에 견디여 내기 위하여 규률로 교양하며 규률을 지지하며 우리 력량을 단결하는 과업은 점차로 변경되고 있다. 처음에 우리는 전 력량을, 령락된 나라의 전 력량을 전쟁에 투하하였다. 이로써 전국은 더 큰 령락을 당하게 되였다.

2년 전에는 그 누구도 로씨야 즉 4년간의 제국주의 전쟁에 의하여 령락된 나라가 또 2년간의 국내 전쟁을 견디여 낼 수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그러하며 또 그럴 수 있다. 만일 1917년 10월말에 우리에게 우리가 전 세계 부르죠아지를 반대하는 2년간의 공민 전쟁을 견디여 낼 만 한가 하고 물었다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었을는 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로농 대중들이 전개한 정력은 10월 혁명을 수행한 사람들이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컸었다는 것을 제 사변은 보여 주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결과에 얻은 것은, 또 국내 전선들이 우리에게 보여 준 것은 새 력량의 원천이 우리가 타산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였다. 동시에 이 원천은 군사 전선에서 승리할 줄 아는 붉은 군대가 국내 전선에서 새로운 장애물——특히 이것은 지금 운수에서 나타나고 있다——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물론 지금은 식량 형편도 곤난하며 기근과 추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혹심하나 우리 나라의 가장 큰 곡물 산지인 도들이 해방되였기 때문에 식량 형편은 개선되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주요 위기는 지금은 운수 위기이다. 또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이 위기가 그러한 계속 부절한 전쟁을 겪지 않은 모든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도 있는 것과 동일한 위기라는 것이다. 지어 이 나라들까지도 차량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6년간 전쟁을 하였으며

교량과 기관차의 의식적 파괴를 당한 우리 로씨야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가는 가히 상상할 수 있다.

이 방면에서 우리의 형편은 물론 지극히 곤난하며 비상 위원회 운수부들과 그 전체 기관과 자각적 혁명 력량의 전체 대중의 과업은 파국에 가깝다고 과장 없이 말할 수 있는 이 위기 상태에서 빠져 나오도록 방조를 주는 방향에로 돌려지고 있다. 또 지적하여야 할 것은 동기 후 2월달의 운수 상태가 눈더미로 말미암아 언제나 1년중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운수 위기는 철도가 완전히 정체될 위험에 처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최근 모쓰크바의 곡물 예비는 3일분 밖에 남지 않았는 데 연료가 부족하고 그것을 반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십개의 렬차가 정지되였다.

우리는 이 파국적 상태와의 투쟁 방법을, 즉 우리가 전쟁 2년간 적용하여 온 투쟁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 투쟁 방법이란 곧 대중의 자각성 제고와 그들에의 솔직한 호소이다. 그러한 절망적 경우에는 언제나 우리는 로농 대중에게 호소하며 조성된 어려운 처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간주하였다. 우리는 쏘베트 로씨야의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 있으며 또 전 력량을 하나의 일정한 과업에 투입하기 위하여 얼마마한 정력의 긴장이 필요한가를 그들에게 호소하고 가르치였다. 이 과업들은 쏘베트 정권이 자기 원쑤들과 싸우고 있었을 때 루차 변하였다. 그리하여 국가 형편에 대한 일체 리해는 파괴를 극복하고 정상적 건설에로 넘어가기 위하여 틀어 쥐어야 할 그런 과업들을 옳게 고려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하여 지금도 당신들은 운수의 위기 상태를 로동자와 농민들에게 해설해 주는 데 가장 많은 주의가 돌려져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기에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농민의 전 력량의 긴장이 필요하다. 연료의 반입과 같은 일은 곤난한 과업이며 이것은 만일 로농 주민층에서 붉은 군대의 훌륭한 승리 시기에 실현된 것과 같은 앙양과 대중적 집단 로동이 없다면 전연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례를 들면 연료의 반입, 철로의 제설은 농민들에게 물품을 보상해 줄 데 대한 약속이 허다히 있었다는 것으로써 곤난하게 되었다. 반입은 말(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데 농민들은 이것을 할 수 없으며 또 그들은 일정한 량의 상품으로 보상을 받지 못함으로 아주 싫어 하고 불친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우리는 운수의 완전 정체로 말미암아 다소나마 상품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농민들이 굶주린 로동자들을 구원하며 공업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기 로농 국가에 주는 대부의 형식으로 그것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바이다. 농민들은 그것을 대부의 형식으로 주어야 한다. 왜냐 하면 례를 들어 일부 지방들에서 농민들은 몹시 소금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 데 우리는 아주 방대한 소금의 저장을 가지고 있으나 운수가 절대로 필요한 량의 곡물의 수송 과업을 해결하고 있지 못함으로 우리들 만으로는 이 소금을 반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편하에서는 더욱 규률이 요구되며 전체 로동자와 농민들을 교양, 단결시키는 선전과 선동이 요구된다. 또한 적용되는 혁명적 폭력은 이 규률을 현실로

전환시키는 바 현실은 자각적 로동 계급이 확고한 실천적 과업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이 과업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 바로 유데니츠, 꼴차크 및 데니낀과의 가장 곤난한 투쟁 시기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을, 책임 일'군들을 첫 대렬에 내세우고 이 훌륭한 투사들의 생명을 바쳐 큰 희생을 냄과 동시에 규률을 세우고 리기주의자들을 처벌하였기 때문에야 말로 우리는 인민적 정력의 최대한의 긴장을 달성하고 승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똑같은 목적을 똑같은 시련된 방법으로써 반드시 지금도 운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달성하여야 한다.

우리에게는 빵, 소금이 있으며 충분한 원료, 연료가 있으며 공업을 복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달에 걸친 긴장된 투쟁을 요구하며 이 투쟁에서 비상 위원회 기관들은 프로레타리아트의 집중된 의사를 실행하는 도구로, 우리가 붉은 군대에서 수립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규률을 수립하는 도구로 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협의회가 끝난 후 실지로 당신들의 기관들이 자기 사업에서 또 당신들이 이 자리에서 다른 곳보다 철도 일'군들 속에 더 많이 있는 간상배들 및 태공 분자들과 투쟁하기 위하여 비상 위원회 운수 본부가 어떠한 역할을 놀며 그가 어떻게 조직되여야 할 것이며 그가 자기 대렬 속에서 새 일'군들을 어떻게 동용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합의를 볼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것은 당신들의 실지 경험의 과업이며 당신들이 의견 교환의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할 과업이다. 철도계는 그곳에 로동자들의 수준에 처해 있는 다수의 로동자들과 투기에 참가하는 소수의 로동자들이 있다는 것으로써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비상 위원회 운수부의 과업은 옳은 분업을 달성하며 로동력의 절약에 있어서 책임성을 기하며 이 모든 것을 철도 일'군들의 공산주의적 요소의 강화로써 달성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우수한 대중에게 의거함으로써 만 우리는 투기의 이 분류를 타승할, 짜리제의 제일 나쁜 시기에 모집된 이 분자들을 타승할 그러한 력량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세력을 즉 자본주의로부터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은 세력을 타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수단이 있다. 이것은 곧 최대한으로 규률과 혁명적 에네르기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비상 위원회는 공산당 세포에, 직업 동맹에 의거하여야 하며 자기 사업을 선전 및 선동과 결합시키며 철도 일'군 대중 속에서 투쟁에 대한 자각적 태도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

그리하여 나는 우리들이 조직의 방조하에, 우리의 지난 경험을 고려함으로써 우리들이 무장 투쟁 분야에서 달성한 것과 똑같은 승리를 우리의 새로운 사업에서 달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우렁찬, 계속되는 박수).

속기록에 의하여 게재,

동방 인민 선전 및 행동 협의회에 보내는 서한*

* 동방 인민 선전 및 행동 협의회는 1920년 9월 바꾸에서 진행된 동방 인민 제1차 대회에서 선거되였다.

친애하는 동지들!

근일에 발간될 당신들의 출판물을 충심으로 축하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내가 론문들을 보내 주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동방 근로자들의 우수한 대표들의 인입이 당신들의 신문에 의하여 더 빨리 또 광범히 진척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전체 서방 문명의 운명은 동방 근로 대중을 정치 생활에 인입시키는 여하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최대의 희망과 축하를 보내면서

로씨야 사회주의 련방 쏘베트 공화국
인민 위원회의 의장 레 닌

1921년 12월 17일 이후
비서의 수기에 의하여 게재

쏘련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이 가지는 국제적 의의

김 상 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사회주의는 일국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후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력량의 세계사적 승리를 말해 주는 동시에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 반동 세력의 약화와 자본주의의 불가피적 멸망의 과정을 보여 주는 생생한 실증으로 된다.

제국주의 반동 세력은 이와 같은 력사 발전의 법칙적인 흐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중상과 날조, 비방으로써 사회주의, 민주주의 진영을 약화시키려는 어리석은 시도에서 멸망으로부터의 출로를 찾으려 한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공격은 주로 쏘련에 집중되고 있다. 쏘련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이며 사회주의의 조국이다. 제국주의자들이 공격의 예봉을 쏘련에 돌리고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사회주의 및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반동들의 발광적 책동과 관련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에서는 일련의 수정주의적 견해들이 발로되고 있는 바 그것은 쏘련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이 가지는 일반적, 국제적 의의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내에서의 쏘련의 지위를 응당하게 평가하지 않으려는 태도들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에 있어서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의 전 세계사적 의의를 천명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문제는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리론적, 실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쏘련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으로, 사회주의 조국으로 되는 그 리론적 및 실제적 근거는 어데 있는가?

공산주의 운동은 그것이 시작되던 첫날부터 국제적인 운동이였다.

쏘련은 이 운동에서 승리한 선구자이며 스승이며 모범이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들인 맑스와 엥겔스는 처음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불가피적인 멸망과 사회주의 사회에로의 교체에 관한 필연성을 론증하고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리론과 전술을 기초지었다. 레닌은 제국주의 시기에 로씨야에서 혁명적 활동을 전개하여 맑스주의 학설을 가일층 발전 풍부화시키면서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승리의 길을 가리켰다. 레닌을 선두로 하는 쏘련 공산당의 령도하에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는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류 력사에서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았다.

10월 혁명 승리 후 쏘베트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농민과의 공고한 동맹에 기초한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에 의거하여 인류 력사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페하고 계급을 영원히 청산하였으며 사회주의 경제를 성과적으로 건설함으로써 점차 공산주의에로 이행하는 길에 들어 섰다. 쏘련의 경제 문화의 장성은 어떤 자본주의 국가와도 대비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1956년의 공업 총생산고는 혁명전 최고 수준의 해인 1913년에 비하여 30배로 장성하였고 농업에 있어서도 강력한 사회주의 공업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그 류례를 볼 수 없는 대규모적인 기계화된 집단 경리가 발전하였다. 공업과 농업의 앙양에 기초하여 쏘련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형편은 근본적인 개변을 가져 왔으며 이리하여 쏘련은 가장 선진적인 과학 기술과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 문화를 소유한 나라로 전변되였다.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이 달성한 이와 같은 빛나는 업적은 다만 쏘련 인민에게만 관계되는 것은 아니다. 레닌은 정당하게도 로씨야의 로동 계급을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라고 불렀다. 로씨야 프로레타리아트의 전투적 참모부이며 그의 전위대인 쏘련 공산당은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돌격대의 영예를 지니고 공산주의의 홰'불을 높이 들고 고난과 투쟁의 길을 선구적으로 개척하면서 압박과 착취에 시달리는 전 세계 피압박, 피착취 대중을 혁명에로 불러 일으켰으며 승리의 신심으로 고무하여 주었으며 또 고무하고 있다. 레닌은 로씨야에서의 10월 혁명을 그 어떤 자족적인 과업으로 간주하지 않았으며 어느 때든지 그를 세계 혁명의 일환으로서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한 나라의 범위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쏘련이 세계 혁명을 지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나라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고 레닌은 가르쳤다.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은 바로 그렇게 실천하였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쏘련의 탄생 그 자체가 벌써 제국주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이 때로부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프로레타리아 혁명 전선과 식민지 예속 국가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 전선은 쏘련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세계 혁명 전선으로 련합되였으며 이리하여 사회주의에로의 인류의 불가 극복적인 전진이 개시되였던 것이다.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이 달성하는 매개 성과들과 투쟁 경험들은 모든 나라에서의 로동 운동과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하여 심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무한한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쏘련 인민들의 성과들은 조선 인민에 대하여도 고무적인 힘의 원천으로 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일본 식민지 략탈자들을 반대하는 힘에 겨운 어려운 투쟁에서 우리의 위대한 린방인 쏘련의 성과들은 언제든지 조선 인민에게 기대와 전투적 정신의 원천으로 되여 있었다》 (선집 제4권 7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전 세계 근로 인민은 국적과 민족을 불문하고 쏘련을 사회주의 조국으로 간주하고 이를 적극 지지 옹호하였고 쏘련은 각국의 근로 인민을 성의껏 원조하였다.

쏘련은 그가 창건된 첫날부터 평화 애호적인 대외 정책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제 인민간의 평화와 친선의 사상을 고취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방화 정책을 반대하여 적극 진출하였다. 또한 쏘련은 《모든 인종과 민족은 평등하다》라는 레닌적 원칙을 선포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구현함으로써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서 나아 갔다.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이 인류 력사 발전, 국제 공산주의 운동 발전에 남긴 특출한 업적의 하나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파시쓰트 침략자들을 격파함으로써 인류의 문명을 구원하여 놓은 데 있다. 결과에 국제 무대에서의 세력 관계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유리하게 근본적으로 변동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는 한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 체계로 전환되게 되였다.

전후 시기에 쏘련은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조선, 그리고 인민 혁명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둔 중국 및 월남 등 제국에 대하여 특히 경제 건설에서 막대한 국제주의적 원조를 주었으며 이 나라들과 함께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쏘련은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해방 투쟁과 평화 옹호 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제2차 대전 후 식민지 체계

로부터 떨어져 나와 민족적 독립을 쟁취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평화 애호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쏘련은 레닌주의의 조국으로서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가장 풍부한 경험과 가장 강대한 력량을 가지고 있으며 이 경험과 력량으로써 사회주의 제국 인민들의 자유로운 발전과 식민지 피압박 민족들 및 자본주의 제국의 근로 인민들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지지 방조하는 것을 자기의 신성한 의무로 삼고 있으며 또 이를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때문에 쏘련은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으로 되며 세계 혁명의 근거지로 된다. 만약 어떤 공산주의자들이 쏘련 인민들이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기본 경험들의 원칙성을 거부하려 한다면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며 사회주의에 대한 변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력사적 사실은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현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에서의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의 비판, 웽그리야 사건을 계기로 한 국제 반동들의 반공산주의적 악선전과 관련하여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내의 일부 견실치 못한 사람들 속에서는 맑스—레닌주의와는 배치되는 사상적 경향들이 발로되였다. 그의 대표적인 것은 소위 《민족 공산주의》적 경향이며 맑스주의 당의 령도적 역할과 프로레타리아 독재 및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거부하는 경향들이다.

《민족 공산주의》란 국제 반동들이 사회주의 진영내에 불화의 씨를 뿌리며 맑스—레닌주의의 불멸의 홰'불을 흐리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주의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조작해 낸 명층 이다. 《민족 공산주의》적 경향은 본질상 부르조아 민족주의적 편견에 물젖은 소부르조아적 계층의 압력을 반영한 민족주의 사상의 최신 변종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을 분렬시켜 소위 《각개 격파》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좋은 리용물로 되고 있다.

민족 공산주의적 경향의 대표적 실례로서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일부 지도자들에 의하여 표명된 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서의 유고슬라비야의 《새 로선》이 유일하게 정당한 로선이라고 하는 견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 공산당내의 일부 우익 기회주의적 분자들도 로골적으로 민족주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는 바 그들의 견해에 의하면 《맑스주의는 낡았고 레닌주의는 오직 로씨야적인 것이고 맑스의 정치 경제학설은 특수한 법칙에 따라 발전되는 미국내 자본주의의 분석에는 무능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은 《쓰딸린주의》를 비판한다는 구실 밑에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말살하거나 과소평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의 일부 일'군들은 쏘련이 달성한 성과와 업적에 대하여 비방과 중상을 일삼으면서 개인 숭배를 쏘베트 제도의 산물이라고 떠벌이였다.

또 일부 사람들 속에서는 개인 숭배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당 및 국가 생활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중앙 정권제 원칙을 거부하며 당 및 국가 지도에서의 지도자와 수령이 노는 역할과 그 의의를 부인하려는 편향들도 발현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도들은 민주주의와 독재를 대비시키고 소위 《절대적 자유》를 운운하면서 당의 령도 및 수령의 지도적 역할도 부인하는 것으로써 계급적 원칙으로부터 리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정주의적 견해에 일관된 의도는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의 거부이며 맑스—레닌주의 실천의 력사로서의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경험들의 원칙성을 거부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상과 같은 수정주의적 견해들은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분렬을 획책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주관적 의도야 어떻든 간에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중심으로서와 인류 해방의 성새로서의 쏘련

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첫 돌격대로서의 쏘련 공산당의 역할과 의의를 약화시키거나 말살 거부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객관적으로는 국제 반동들에 발을 맞추어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내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축적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들, 보편 타당성을 가지는 기본 경험들은 무엇이며 그의 현실적 의의는 어데 있는가?

❊ ❊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은 10월 혁명과 그 이후 4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행정에서 실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다.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에서의 경험은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와 로씨야적 민족적 특성과의 결합에서 이루어졌는 바 때문에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기본적인 경험으로서 인류 력사의 현 단계에서 보편적 의의를 가지며 국제적 범위에서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로씨야적 민족적 제 특성과 관련된 그러한 경험이다.

쏘련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경험은 과오와 실패의 경험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경험이 우리들에게는 고귀한 것으로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서 구감으로 되는 것이며 유익한 교훈으로 된다.

그러나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의 국제적 의의에 대하여 말할 때, 특히 쏘련에서 성공한 기본 경험을 더 많이 강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제에 있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한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의 경험은 국제 로동 운동과 각이한 나라에서의 혁명 및 사회주의의 건설 사업에서 무엇이 본질적이며 필수적 기본적인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게 하여 준다.

레닌은 10월 혁명 이후 카우츠키를 선두로 한 우경 기회주의자들이 로씨야 혁명의 경험을 서구라파의 조건에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개별적인 특수한 경험에 불과하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론박을 가하면서 쏘련에서의 경험이 가지는 국제적 의의를 두 가지로 나누면서 다음과 같이 명백히 지적하였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적 의의가 아니다. 즉 우리 혁명에 있어서 수개의 특징 만이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특징과 아울러 많은 제2차적 특징까지도 모두 다 우리 혁명이 모든 나라에 대하여 영향을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국제적 의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의 가장 좁은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즉 국제적 의의란 것을 국제적 보편 타당성이라고 해석하든가 혹은 우리 혁명에 있었던 것이 국제적 규모에서 반복된다는 것이 력사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해석할 때 그러한 국제적 의의가 우리 혁명의 몇몇의 기본 특징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조선 로동당 출판사 1949년판 4페지).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에서 얻어진 보편 타당성을 가지는 기본 경험들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우선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이 없이는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그것이다. 여기에서 혁명적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리론에 확고하게 기초하면서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고 있으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된 혁명적 당을 의미한다. 쏘련 공산당은 이러한 당의 모범으로 된다. 쏘련 공산당의 창건과 그후 당 건설의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2 국제당의 낡은 형의 사회 개량의 당이나 로씨야의 멘쉐위크들이 주장한 기회주의적 무정형의 당으로써는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지도하기에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경험은 당이 강력한 맑스주의 당이 되자면 맑스—레닌주의의 혁명

적 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정확한 리론은 당을 명백한 목적으로 무장시키고 사상적 혼란과 동요를 제거하며 확고한 조직적 통일과 사상 의지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여 준다. 때문에 쏘련 공산당은 당내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 리탈되며 적대되는 일체 사상적 조류, 특히 수정주의와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으며 당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반동적 종파 해독분자들의 활동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였다.

쏘련 공산당은 당 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및 집체적 지도의 원칙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면서 중앙 집권제와 집체적 지도를 능숙하게 결합시킴으로써 당내 민주주의의 발양과 강철같은 규률을 보장하였다. 최근 국제 공산주의 운동 대렬내에는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의 결정 정신을 외곡하면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는 구실 밑에서 당 생활에서의 민주주의 일면 만을 과장하고 중앙 집권적인 규률을 약화시키려는 자유주의적 편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이러한 수정주의적 편향들은 맑스—레닌주의적 당 생활의 규범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당내 민주주의는 어데까지나 중앙 집권적 지도하에서의 민주주의이며 중앙 집권적 지도도 당내 민주주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당내 민주주의는 결국 당내 규률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개인의 적극성과 창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당의 전투적, 지도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의 특성은 또 군중과의 긴밀한 련계에 있다. 아무리 전위적이며 조직적인 부대이라고 해도 비당원 대중과의 튼튼한 련계 없이는 자기의 지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로동 계급의 당은 대중과의 튼튼한 련계 없이는, 특히는 자기 계급의 수백만 대중의 신뢰와 지지 없이는 공고하게 발전할 수 없다. 레닌은 맑스주의적 당이 되기 위해서는 실로 계급의 지지를 받지 아니하면 안된다 라고 하였다. 군중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군중에게서 배우며 군중에서 나와 군중 속으로 들어 가는 군중 로선의 옹호와 실천——이것은 맑스주의 당의 가장 중요한 표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당 만이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 사업의 승리를 보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쏘련 공산당이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인 바 각국의 형제적 당들은 이 기본 경험을 실천적인 모범으로 하여 당의 사상적 순결성의 옹호, 당의 통일과 당내 민주주의와 집체적 지도의 보장, 군중과의 련계의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당의 지도적 기능을 일층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의 지도하에 창건된 첫 날부터 선진 당인 쏘련 공산당의 이 기본 경험을 실천적인 지침으로 하여 당 건설에 관한 레닌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불패의 당으로 단련 육성되였다. 우리 당은 당내에서 맑스—레닌주의 원칙으로부터의 일체의 사소한 리탈도 편향들도 용허하지 않았으며 이를 제때에 적발 폭로하였으며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을 약화시키려는 온갖 책동들을 제때에 폭로 분쇄함으로써 당 대렬의 통일을 강화하였으며 광범한 당원 대중의 창발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의제와 집체적 지도 원칙을 엄격히 준수할 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여 왔다. 또한 인민 대중과 리탈하며 대중에 의거하지 않으려는 관료주의, 명령주의 등 일체 반인민적 사업 작풍을 일소하고 군중 관점, 군중적 작풍의 배양 확립을 위한 투쟁을 일관하여 견지하여 왔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승리의 담보의 하나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기본 경험은, 프로레타리아트는 공산당의 령도하에 로농 동맹을 기초로 한 광범한 인민 대중과의 련합에 의거하여 혁명 투쟁을 통하여 부르죠아지로부터 정권을 탈취하여야 하며 혁명이 승리한 후에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고 과도기에 제기되는 력사적인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그것이다. 과도기의

제 과업이란 전복된 계급의 반항의 진압, 착취 제도의 청산, 사회주의적 인민 경제의 계획적 건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실현, 전기화, 농업의 집단화, 기계화, 사회주의적 문화의 건설, 인민 생활의 향상 등등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에로의 이행을 위한 제 조건을 준비하는 데 있다.

혁명에서 주되는 문제는 주권 문제이라고 맑스—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종래의 혁명과 같이 한 착취 형태를 다른 착취 형태로 교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레타리아트는 주권을 장악한 후 낡은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제를 조직해야 하며 사회의 근본적인 개조를 이룩하여야 한다. 자기 수중에 주권을 장악한 로써야 프로레타리아트는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착취 제도의 청산,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화, 국방력의 강화, 사회주의 공업화의 실현, 농촌에서의 소상품 경리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농업의 집단화 등을 완수하였다. 그리하여 쏘련은 혁명 전에 공업이 락후하였고 문맹자가 많았다면 현재에는 세계에서 일등급의 고도로 발달된 공업—농업국으로 전변되였다.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거대한 변혁은 비단 사회의 경제적 령역에서 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사상 의식에 있어서도 수행되였다. 이러한 철저한 혁명적 변혁은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다른 어떠한 계급의 주권도 수행할 수 없었으며 오직 맑스—레닌주의적 혁명적 당의 령도하에 가장 혁명적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주권 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

프로레타리아 독재——이것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어서 성숙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로동 계급이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가장 유력한 무기이며 중요한 공간으로 된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의 하나이다.

과도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본 과업은 전복된 계급들의 반항을 진압하며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하면서 그들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보장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건설하는 그것이다.

전복된 착취 계급에 대한 프로레타리아 독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바 즉 징벌적, 강제적 측면과 설복적 교양적 측면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 결합되여 있다. 웽그리야 사건을 발생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이 사건이 일어 나기 전에 웽그리야에는 사실상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징벌적 기능이 마비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경험의 기본이야말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전취 및 공고화에 관한 력사적 경험인 것이다. 현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야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까르젤은 과도기의 계급 투쟁의 측면을 차요시하려 하고 있는 바 그의 의견에 의하면 과도기의 주되는 위험은 전복된 계급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말하였다 《사회주의적 발전 과정을……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간의 충돌을 통해서 만 리해하는 것은 사상적으로 무의미하며 정치적으로 반동적이다. 왜 무의미하며 반동적인가. 그러한 견해로부터는 공산당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하여 자동적인 찬양이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과도기의 주되는 위험은 전복된 계급의 반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과 국가 지도 일'군들에게 있는 관료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까르젤은 전복된 착취 계급의 위험성이 없다는 론거를 전체 주민 중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데서 찾으려 하고 있다. 이는 과도기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거부하는 것이며 적아간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간)의 모순보다 인민 내부(례하면 지도 일'군들과 인민들 간) 모순이 더 큰 것으로 과장하는 허황한 론리인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전복된 착취 계급의 힘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민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기준을 두려는 견해는 전혀 옳지 않은 것

이다.

일찌기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전복된 착취자들의 힘은 자본의 힘에 있는 바 착취자들이 의연히 일정한 재산과 돈을 가지고 있으며 수세기에 걸친 통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국제 자본과의 광범한 련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거기에 있다. 다음으로 그들의 힘은 관습의 힘과 소생산의 힘에있는 데 소생산은 날마다, 시간마다 자연 생장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죠아지를 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 원인으로 인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필수적이며 프로레타리아 독재 없이는 어떠한 사회주의 건설도 불가능한 것이다.

쏘련에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부르죠아지에 대한 수탈로써, 착취 계급을 청산하고 협동화의 방법으로 소상품 생산자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을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교양 훈련하였다. 계급 즉 착취 계급을 청산하고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청산하는 것, 이것은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 과업의 하나인 바 전복 수탈된 다음 남아 있는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하여서는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수탈의 방법이 유일하고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매개 나라들에서의 계급적 력량 관계 기타 사회 정치적 조건들에 따라서는 점차적 개조의 방법도 또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소상품 생산자들은 이를 반드시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여야 하며 개조하는 데는 협동화의 방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것은 또한 본질적이며 보편 타당성을 가진 경험으로 된다.

쏘련에서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경험은 또한 계급의 청산과 생산 관계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함께 중공업의 우위적 장성에 의거하는 나라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및 농업의 집단화——기계화에 의하여 사회주의의 물질 생산적 토대를 구축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승리,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었다. 사회주의의 물질적 토대로 될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대기계 생산이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조성되지 못한 나라들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위한 투쟁은 필수적이며 일체의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중공업의 우위적 장성이 필수적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독재하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 행정은 계급 투쟁을 동반하는 바 계급 투쟁의 첨예성과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중국과 우리 나라에서의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평화적 개조 정책은 계급 투쟁의 포기를 결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국제 무대에서 계급적 력량 관계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변동된 현 조건하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계급 투쟁이며 역시 프로레타리아 독재 기능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인민 민주주의 제국의 형제적 당들과 함께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이 축적한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본 경험에 의거하면서 우리 나라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강유력한 무기인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민 정권을 창설 공고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는 데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당이 쟁취한 모든 성과는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의 정치 로선과 조직 지도가 정확하였으며 그가 항상 맑스—레닌주의 학설과 형제적 당들의 투쟁 경험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면서 내외의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당 내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였으며 인민 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견지한 데 기인된다.

다음 쏘련에서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기본 경험의 하나는 쏘련 공산당이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서 언제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였으며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일환으로서 그와의 긴밀한 국제적 련계 밑에서 진행되였다는 사실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충실성은 쏘련의 레닌적 대외 정책 및 민족 정책에 뚜렷이 표명되였으며 쏘베트 주권 존재의 40년의 력사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 밑에서의 제 인민간의 평화와 친선 그리고 민족적 평등의 정책이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다민족 국가인 쏘련 령내의 여러 민족들을 단결시킬 수 있었으며 전 세계 피압박 식민지 민족들과 근로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으며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동정을 집중시켰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쏘련은 전 세계 근로 인민의 해방 투쟁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주었는 바 특히 제2차 세계 대전에서와 전후 시기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 준 국제주의적 원조는 그의 실증으로 되고 있으며 웽그리야의 반혁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웽그리야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주의적 원조와 애급 사태와 관련하여 애급 인민들에게 준 지지 성원은 그의 명백한 표증으로 된다.

우리 조선 인민은 쏘련 군대에 의한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평화적 건설 시기 그리고 제국주의 원흉인 미제와의 간고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복구 건설 시기——이 전 기간을 통하여 쏘련의 국제주의적 원조가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을 얼마나 고무하였으며 승리을 보장하였는가를 똑똑히 알고 있다. 쏘련을 위시한 형제적 국가 인민들의 물심 량면의 국제주의적 원조는 우리의 승리를 결정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다.

그러나 구라파의 일부 견실치 못한 공산주의자들은 국제주의의 진지로부터 물러서는 일련의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바 그들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간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친선과 협조 대신에 《공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공존의 리념, 이것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간의, 서로 적대되는 두 체계간의 공존을 말하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로 굳게 결속된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 간에는 전연 통용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제국간의 한계를 없애려는 것이다. 이는 계급 투쟁의 관점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를 부르죠아 민족주의로 바꾸려는 것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유고슬라비야 《보리바》지는 사회주의 나라들의 통일과 그의 민족적 독립간에는 마치도 모순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민족적 리해와 그의 국제적 과업간에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생활은 이와는 정반대로 매개 나라의 가장 긴절한 민족적 과업——주권의 수호, 경제 및 문화의 진보, 인민의 복리의 향상 등등은 사회주의 진영내 다른 나라들과의 형제적 친선과 국제주의적 협조로써 만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민족적 리해와 국제적 리해, 국제주의와 애국주의는 긴밀히 결합되여 있는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로동당에 의하여 지도되며 교양 받고 있는 조선 인민들은 국제주의에 튼튼히 립각함으로써 만이 조국과 민족적 리익을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자체의 경험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였으며 또 진정한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분리될 수 없으며 부르죠아 민족주의와 상반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선집 제4권 190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이 각국의 공산주의 대렬을 향하여 발광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쏘련을 중심으로 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국제적 단결을 강화한다는 것은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리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피압박 민족의 독립 운동과 평

화의 위업에도 부합되며 국제 반동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 타격으로 된다.

* *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기본 경험은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기초지어졌고 레닌에 의하여 발전 풍부화된 프로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에 대한 실천적 론증이며 그의 구현의 고전적 모범이라는 데 국제적 의의가 있다.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의 생동하는 현실적인 기본 경험의 국제적 의의는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제 방도들을 리론적으로 만이 아니라 실천적 모범으로써 생활을 통하여 가르쳐 줌으로써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지향하여 사회주의 건설에로 나아가는 전 세계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인민들로 하여금 전인미답의 길이 아니라 이미 선구자에 의하여 개척된 길을 따라 확신성 있게 전진할 수 있게 한다는 데도 있다. 현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모든 나라 인민들은 이미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에 의하여 닦아 지고 개척된 길을 따라 나가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전진할 수 있게 되였다는 사실은 더 론박할 여지가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길이 아무리 다양하고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이 가리키는 길로부터 리탈될 수 없는것처럼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의 구현의 고전적 모범인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에서의 기본 경험으로부터 물러 설 수는 없다.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 경험은 상술한 바의 기본 경험 이외에 자본주의 포위 속에서 로씨야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한다는 사정과 로씨야의 사회 력사적, 민족적 특성으로 인한 일련의 특수적인 경험도 가지고 있는 바 이것들은 오늘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게는 아무런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경험들——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이 내외의 원쑤들과 어떻게 싸웠고 사회주의를 어떻게 승리적으로 건설하였는가에 관한 풍부한 모든 경험들은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는 최량의 량식인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우리의 간고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쏘련의 력사적 모범에 대하여 어떻게 배웠는가에 대하여 《언제든지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쏘베트 로씨야의 력사적 모범이 우리를 격려하여 주었으며 고무하여 주었다. 혁명의 첫 몇해 동안에 아직 약하고 잘 무장되지 못한 로씨야가 14개국의 무력 침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자기의 독립을 능히 성과있게 수호한 것처럼 우리 조선도 힘에 겨운 투쟁에 자기의 력량을 일층 강하게 집결하고 영웅적으로 투쟁을 계속하였다》 (선집 제4권 21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쏘련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 가운데에는 실패와 오유의 경험도 있다. 레닌은 개인이나 정당이 자기 활동에서 오유가 불가피하다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개인에 대하여서 적용되는 그것은—적당한 변경을 가해서이지만—정치나 정당에도 적용된다. 오유를 범하지 않는 자가 현명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인간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극히 중대한 오유를 범하지 않으며 또 오유를 신속하게 정정할 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인 것이다》 (전집 25권 182~183페지). 처음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길을 개척한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의 투쟁 행정 속에서 어떻게 아무런 오유나 결함이 없을 수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 오유와 결함이 쏘련 공산당과 쏘련 인민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되였고 간고성을 가중하는 것이였지 만 늦게 사회주의 길로 나가는 전 세계 근로 인민에게는 더 없는 귀중한 경험과 그러한 오유를 피하는 데 있어서 힘과 교훈으로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레닌이 볼쉐위크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의 하나가 실패에 절망하지 말고 실패의 경험에서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쏘련 공산당의 극히 부차적인 오유와 실패와 오유의 경험도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실패와 결함을 면하게 할 수 있는 《신호등》으로 간주한다. 보는 바와 같이 쏘련에서의 혁명과 건설에서 축적한 모든 경험은 무조건적으로 신중히 연구되여야 하며 이로부터 응당한 전술적인 지침과 교훈을 얻어 내야 한다.

그러나 배우는 데는 정확한 방법이 있어야 한다. 쏘련의 경험을 배우는 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 바 그 하나는 쏘련의 경험을 통채로 삼키여 기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교조주의적인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쏘련의 경험을 각이한 나라들에서 사회 력사적 및 민족적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구체성 있게 연구 도입하는 창조적 방법이 있다. 교조주의와 그의 후과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경험에서 즉 로씨야의 멘쉐위크들에서 그의 례를 보는 것이며 중국 공산당의 경험과 가까이는 이전 웽그리야 근로자당의 지도 일'군들이 범한 오유와 후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에도 일부 교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민족 문화의 전통과 문화 유산을 허무주의적으로 거부하면서 주체를 말살하려고 시도하였으며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 비판된 반당적 종파 분자들은 쏘련에서의 개인 숭배에 대한 비판을 기본적으로 해당하지 않은 우리 나라에다 그대로 끌어 부치려고 하였으며 《주체》에 대한 문제를 민족주의적 경향이라고 비방하였다.

우리 당은 일체의 교조주의적 편향을 폭로 분쇄하면서 쏘련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연구 도입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줄기찬 노력과 투쟁을 전개하여 왔다.

우리 당이 제기한 사상 사업에서의 《주체의 확립》은 쏘련의 경험에 대한 창조적 태도의 실제적인 표현이다. 쏘련의 경험을 창조적으로 연구 도입한다는 것은 쏘련의 경험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갈라 낼 줄 알며 배우는 데 있어서는 력사적 사실보다는 방법적인 것과 옳은 관점을 배우도록 해야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이한 나라들의 사회 력사적 및 경제적 조건과 계급적 력량 관계, 국제적인 환경을 신중히 타산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경험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엠. 이. 깔리닌은 《어떠한 환경에서 볼쉐위크들이 어떠한 실천적 문제를 결정하였는가? 왜 그들이 이 문제를 달리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했으며 무엇으로부터 그들이 출발하였는가? 모든 문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현대적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의 표본으로서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우리가 쏘련의 모든 경험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 관점으로 되야 할 것이다.

* *

국제 반동들과 맑스—레닌주의 원쑤들이 쏘련을 선두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제국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기 위하여 그의 주되는 공격을 쏘련에 집중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우리들 맑스—레닌주의자들 앞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쏘련을 옹호하여야 할 국제주의적 의무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당은 시종 일관 쏘련을 옹호하는 립장을 견지하여 왔다. 그것은 쏘련이 인류 해방과 평화의 성새로 되고 있는 데서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인민에게 직접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해방후에는 끊임 없이 우리를 물심 량면으로 도와 오늘의 거대한 성과를 가져 오게 한 원조자라는 데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 인민은 《쏘베트 련맹에 대한 절대적 옹호와 지지를 자기의 신성한 의무》 (김 일성)로 간주하고 있다.

우리 당 제3차 대회 결정을 받들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에로의 대로를 밝혀 준 쏘련에서의 40년간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은 지극히 귀중하다. 사회주의 건설에로 나가고 있는 모든 나라 근로자들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투쟁을 《10월 혁명의 계속》 (모 택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쏘련에서의 경험, 이것은 우리의 승리의 중요한 조건이다. 우리는 또한 쏘련을 선두로한 국제 사회주의 진영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현실적 길이 우선 우리 당 자체의 통일을 공고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쏘련 공산당의 력사적 경험은 맑스—레닌주의 당이 만일 자기의 대렬의 조직적 통일과 유일한 의지 그리고 행동의 일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혁명과 건설 사업에서 《자기의 지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당 내의 철벽같은 통일과 단결을 옹호한다는 것은 말로써가 아니라 당 내의 일체의 종파주의적 요소와 견결히 투쟁하며 강철같은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당의 결정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실제 투쟁에서 행동으로써 표현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통일과 단결, 이것이야 말로 우리의 확고한 승리와 성과의 담보이다.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파괴 음모 활동도, 불견실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의 그 어떠한 수정주의적 시도도 공통한 목적과 리해로 단합된 우리의 국제주의적 단결을 훼손시킬 수 없으며 쏘련에 대한 사랑과 신심을 약화시킬 수 없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에로 향하여 나가는 인민들의 전진을 막을 힘이란 이 세상에 없다.

반관료주의 투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서 을 현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일'군들의 사상을 바로 잡으며 당과 인민의 요구에 적합한 사업 방법과 작풍을 소유하도록 간부들을 교양 훈련하며 당 정책과 로선에 대한 당 내 견해와 행동 통일을 보전하며 당과 대중과의 정상적 호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킴에 있어서 주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하나이다.

이 문제에 대한 리론적 해명과 실천적 대책들은 김 일성 동지의 력사적인 2월 연설, 당 중앙 위원회 4월 전원 회의, 제3차 당 대회 문헌들에서 이미 정확히 제시되였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의 정확한 방침과 꾸준한 조직 정치 사업의 결과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인민적 사업 작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계속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투쟁 분야에서의 당의 요구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환경 조건들이 부단히 변화 발전하며 날마다 시간마다 지도 일'군들 앞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를 정확히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 앞에 제기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과업은 지도 일'군들에게 많은 문제들을 보다 능숙하게 해결하며 지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대중의 계급적 의식과 창조적 열성도 급속히 장성되며 당 및 국가 지도 일'군들에 대한 군중의 요구도 점점 높아 가고 있다. 고정 불변한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지고는 군중 령도에서 장성하는 대중의 요구에 수응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오늘 당의 경제 정책 관철의 주요 고리의 하나로서 대중 령도에서 반관료주의 투쟁 강화와 지도 일'군들의 혁명적 군중 관점 확립에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군중의 력량을 확신하고 그에 튼튼히 의거하자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사업 작풍,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군들의 사업 행정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사상과 방법의 종합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사업 작풍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일'군들의 사업상 능력 또는 일'군들의 성격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군들의 세계관 또는 그들의 사상 의식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다. 군중에 대한 맑스주의적 관점에서는 과학적 령도 방법에 기초한 인민적 사업 작풍이 나오며 비맑스주의적 관점에서는 관료주의적 방법에 근거하는 온갖 반인민적 사업 작풍이 배출된다는 것은 리론적 및 실천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였다. 우리 당의 군중 관점은 대중을 력사의 창조자로 인정하며 자기를 혁명 군중의 복무자로 보는 관점이며 그들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며 그들의 무궁 무진한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면서 허심하게 배우며 또 그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관점이다.

지도 일'군들의 군중 관점의 정확한 소유 여부는 그들의 혁명자적 자질과 품성 및 당

성의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고 있다. 군중에 대한 지도 일'군들의 관점은 우선 그가 실천적 활동에서 어떻게 군중의 힘을 확신하고 그에 의거하는가 하는 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군중의 힘에 대한 확신, 이것은 사무실이나 맑스주의 서적 속에서 저절로 생겨 날 수 없다. 그것은 오직 대중의 힘이 약동하는 생활속에 침투하여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대중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여 사업하는 그러한 때에라야 만 생길 수 있다. 대중의 힘에 의거할 줄 모르는 관료주의, 형식주의적 사업 작풍의 해독성은 최근 수개월 간에 실지 생활에서 더욱 확증되여 가고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채택 및 그의 집행 과정에서 일부 경제 성(국) 및 중앙 기관들과 기업소 일부 지도 일'군들은 당이 규정한 경제 과업이 지나치게 방대한 듯이 주장하면서 초기에는 그의 실행을 주저하였다. 이것은 장성 발전하는 군중의 창조적 력량에 대한 불신임 혹은 과소 평가였으며 타방으로는 우리 당의 세련된 군중 령도의 위력을 과소 평가하는 그릇된 사상 관점의 단적인 반영이였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당의 경제 정책의 정당성과 군중의 창조력에 대한 철석같은 확신을 가지고 직접 지도 그루빠를 조직하여 하부에 파견하였으며 그리하여 대중과 함께 증산과 절약의 예비 탐구 방도를 진지하게 연구 토의하고 경제 건설에서 대중의 미증유의 창발성과 로력적 앙양을 불러 일으켰다. 당 경제 정책과 군중 로선의 이 모범적인 배합은 지도 일'군들의 군중 관점 확립과 사업 작풍 개선에도 큰 자극을 주고 있다. 엄연한 사실이 확증하는 바와 같이 군중의 힘을 확신하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옳았으며 경제 건설에서 부분적 일'군들의 주관적 견해와 고집과 소극적인 주장이 오유였다는 것도 더욱 명백하여졌다.

최근 수 많은 지도 일'군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지도적 모범에 고무되여 자기의 견해와 사업 방법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도를 하부에 보다 접근시키며 대중의 력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굳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생생한 경험에서 교훈을 얻으려 하지 않는 일부 개별적 일'군들은 아직도 사무실적 사업 작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중을 홀시하며 군중 지도에서 관료주의를 지속하고 있다.

평양시 당 단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경제 건설 분야에서의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대중의 창발적 제기들을 말로만 접수하고 그 해결을 리유 없이 체연시키거나 또 해결할 조건을 지어 주지 않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사업의 내용보다 겉치레를 좋아하는 일부 일'군들은 밑으로부터 제기되는 창발적 의견 특히는 가장 가치 있는 기술 경제적 문제들과 생산의 본질적이고 전망적인 문제 해결에는 손을 대기 겁나하며 증산 일면에만 치중하고 절약 과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제품의 질 제고, 원가 저하, 경제 과업의 일별, 지표별 완수에 대해서는 당과 인민 앞에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금액상 실적 만을 가지고 자만하고 있다.

새 기술의 도입 및 그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개별적 일'군들 중에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말로만 강조하면서 눈 앞에서 전개되는 대중적 창의 고안 운동에 대하여 기술적 방조와 조직적 지도를 주지 않고 이를 방관시하고 있는 일들이 드물지 않다. 실례로 동평양 자동차 사업소 당 단체와 지도 일'군들은 운전수들이 휘발유 조절기를 창안 제작하기 위한 자재와 기술적 방조를 요구하였을 때 이를 적극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운전수들이 자기의 발기로서 휘발유를 절약하면 그것을 허위로 인정하고 주행 거리를 삭감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군중의 힘에 대한 일종의 불신임의 표현이며 로동자들의 창발성에 대한 관료주의적 억압이다.

우리 당은 근로자들의 창발성에 대하여 정신적 지지와 함께 물질적 지지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며 또 대중이 창조한 모범을 지체 없이 일반화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지도 일'군들의 주요한 임무의 하나는 대중의 발기를 기록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능과 지혜를 보다 쉽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와 조건을 제때에 지어 주며 창발력의 장성 및 발현 과정을 최대한으로 촉진시키는 데 있다.

지도의 이같은 적극성과 추진적 역할이 우리의 혁명 발전과 경제 건설을 위하여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은 실례에서도 명백히 볼 수 있다. 건설성 산하 평양 건설 3트레스트에서는 30여년간 철공 로동의 경력을 가진 건실한 한 로동자의 기술적 재능과 창발성을 홀시하고 그를 부적당한 직종에 배치하였던 결과 그로 하여금 일정한 불만을 가지게 하였다. 이 사정을 료해한 당 단체는 그를 설복한 다음 그에게 몇 가지 창의 고안의 대상과 과제를 줌으로써 일정한 목표에 사고를 집중시킬 수 있는 동기를 지어 주었으며 고안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 기자재와 보조 로력의 제공, 기술적 방조 등 실제적 조건과 가능성을 옳게 보장하여 주었다. 이 로동자는 당 단체의 조직적 지지와 진지한 방조 하에 수일 후에는 15종의 가치있는 발기를 제기하였으며, 단시일 내에 철재 절단기를 완성하여 국가에 막대한 리익을 주었으며 국가로부터는 영예로운 표창을 받았다. 그는 현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전력 및 발동기를 쓰지 않고도 2톤 이상의 중량물을 고층 건물에 기동성있게 운반할 수 있는 새형의 수동식 기중기의 창안 제작을 완성 중에 있다.

사회주의는 수백만 근로자들의 창조력, 창발성이 없이는 건설될 수 없다. 대중의 창조적 노력과 창발성 만이 인민 경제 내부의 모든 예비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산에 동원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당과 지도 일'군들에게 지어 준다.

그러므로 창발성을 억압하거나 그를 적극 지지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저해하는 가장 유해한 행동의 하나이다.

경험은 대중의 창발성에 대한 피상적 지지, 난관 회피, 당 경제 정책 집행에서 안일과 무사 태평, 외곡과 태공 등등과의 꾸준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거쳐서 만 사업에서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근절할 수 있으며 모든 일'군들이 당과 인민 앞에서 끝까지 책임지며 또 대중의 힘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서 사무를 간소화하고 지도를 하부에 보다 접근시키자

군중의 힘을 확신하고 그에 의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하부에 내려 가야 하며 또 하부에 내려 갈 수 있는 시간을 전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시간 전취의 예비는 우리의 기관, 기업소들에 상당한 정도로 잠재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의 문서 사무 간소화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지도 일'군들의 령도 방법을 개선하며 상부의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킬 수 있는 첫째가는 예비의 하나이다.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이 있은 후 많은 성(국), 중앙 기관들과 기업소들의 기구와 사무가 현저히 간소화되였으며 불필요한 문서 공작과 회의들도 축소되여 시간적으로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례하면 기계 공업성 만 하더라도 행정 기구와 사무를 간소화한 결과 적지 않은 기술 일'군들을 생산 현장에 파견 배치하며, 년간 900여 만원에 해당하는 비생산적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예비를 탐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하부에 보다 접근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와는 반대로 일부 개별적 지도 일'군들 중에는 사업 분량과 대상이 다소 증가되기 만 하면 우선 사무적인 기구의 확장을 무원칙하게 요구하며 인원과 문서 만 가지면 만사가 다 해결될 듯이 생각하는 일들이 없지 않다.

최근 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기업소 당 단체들의 사업을 지도 방조하는 행정에서 동구역

당 단체가 발견한 바와 같이 평양 곡산 공장에서는 7—8 단계의 결재 체계를 기계적으로 집행하였는 바 지배인을 위시한 책임 일'군들은 매일 평균 300～400회나 날인 결재하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문서 결재에 소비하였으며 따라서 생산에 대한 구체적 지도로부터 멀어지게 되였다.

물론 일정한 결재 체계가 있어야 하며 사무 질서도 있어야 만 한다. 그러나 경험은 대중과의 접촉이 없으며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번잡한 제도나 문서 결재 방법은 그의 《창안자》들이 기도한 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진 운동을 오히려 저애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관료—관청식 사무실적 사업 작풍은 서류의 장벽 때문에 종종 산 사람들과의 련계를 차단하며 전진한 사람들의 창발적 활동을 지체시키며 탐오 랑비 분자들에게 탐오 랑비할 틈을 허용하며 아첨 분자, 공명주의자들에게 상부를 기만하여 허위 보고할 가능성을 지어 주는 하나의 조건으로 된다.

관료주의를 퇴치하고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문서 공작으로부터 일'군들을 대담하게 해방시키며 국가 경제 기관들의 기구와 사무 질서를 계속 간소화하여 되도록 경비는 적게 들고 생산 현장과 대중을 직접 대상하는 충분히 신축성 있고 기동적인 기관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보다 기관 기업소들을 관료주의, 형식주의 기타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의 수단으로 되게 하며 인민 대중과 특히는 근로자들에게 국가 관리 운영에 광범히 참가할 수 있는 민주주의적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주는 도구로 되게 할 수 있다.

대중 지도에서 관료주의,형식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며 사무를 간소화하는 것 만으로서는 부족하다. 지도와 대중을 련결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의 기본 요구와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연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중을 설복하고 그들 속에서 능히 사업을 조직할 만한 리론 수준과 실무적 능력이 또한 요구된다.

특히 대중을 설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근로 대중의 선봉대인 우리 당은 자기의 정책을 수립할 때 목전의 협소한 리익보다 큰 장래의 리익과 전 인민적 리익을 첫 자리에 내세우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대중은 목전의 협소한 리해 관계에 치중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은 당의 의식 수준보다 뒤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중은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일에 대해서는 신속히 긍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는 일이 드물지 않다. 바로 이러한 의문을 풀어 주고 옳게 사리가 납득이 되도록 지도하는 데 일'군들의 기본 임무와 역할이 있다.

대중에게 당 정책의 정당성과 당의 목적, 의도를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의 생활과 결부되고 충분히 전개된 구체적인 해석과 인내성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사리가 납득되지 않는 대중에게 욕설과 공갈로써 대하거나 내려 먹이는 식으로 대하는 관료주의적 작풍은 그 일'군의 무능력을 표시한다. 대중을 설복하기 위해서는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해설 설복 공작에서 일정한 조직적 수완이 요구된다. 대중을 설복하기 위해서는 군중 속에서 그의 선진 분자들에 의거하여 우선 당 정책 실현을 지체 없이 조직하며 그리하여 경험을 창조하여 락후한 부분들에게 당 정책이 옳음을 실천을 통하여 알게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지난 시기 평양시 당 단체가 당의 방침에 의하여 건설 부문들에서 등짐 운반 대신에《따찌까》를 광범히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을 때 많은 로동자들은 《쓰기가 불편하다》하여 반대하였다. 당 단체들은 국부적 범위에서 선진 로동자들에 의거하여 《따찌까》 사용의 시범을 조직하고 그 우월성을 이여의 로동자들에게 실물 교육을 주도록 하였던 결과 그 후 곧 건설장들에서는 《따찌까》의 사용이 일반화되였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지도 일'군들의 인내성 있는 해설과 설복,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은 군중 령도 방법의 정확성을 규정하는 기본 조건의 하나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모범의 위대한 힘을 리용할 줄 아는 지도에서의 조직자적인 능숙한 수완이 관료주의 없는 지도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도에서의 형식주의를 퇴치하며 비판과 자기 비판을 강화하자

당 정책 집행을 정확히 보장하며 일'군들의 관점, 작풍, 사업 방법을 정확히 평가하며 통제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지도와 검열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평양시 당 단체의 경험에 외하면 반관료주의 투쟁에 있어서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약점의 하나는 바로 지도 검열에서의 형식주의이다. 일부 지도 일'군들은 지도 검열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로 지도 검열 사업에서의 형식과 각종 통계적 자료만을 가지고 그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필연적으로 지도 사업에서 목적과 지향의 상실, 무계획성과 무책임성을 초래하며 날림식 지도를 허용하여 때로는 지도를 관료주의로 대치하여 역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

얼마 전에 남구역 당 단체는 지도 사업에서 바로 이와 류사한 결함을 발생시켰다. 남구역 당 단체는 평양 자동차 사업소 전 소장이였던 장 응팔 동무의 사업과 작풍에 관계되는 하부로부터의 신소를 접수하고 해당한 검열 확인 사업을 조직한 결과 신소가 무근거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던 것이다.

구역 당이 조직한 검열 확인 사업은 소장 장 응팔 동무와 그의 몇몇 추종 분자들 만을 대상으로 극히 협소한 범위에서 잘못 진행되였다.

그후 시당도 이 신소에 대한 검열 확인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

시당 단체는 광범한 당원,비당원 대중에 의거하여 신소의 내용을 검토하였는 바 장 응팔 동무의 엄중한 비당적 행위의 본질을 낱낱이 폭로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추종 분자들로서 기업소에서 가족주의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원칙적 립장에 선 사람들을 행정적으로 박해하는 관료주의자였다. 또한 그는 국가 재산을 랑비하였으며 절약 예비를 고의적으로 사장하는 등 죄행도 범하였었다.

그는 《휘발유 절약은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언하고 그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지어는 선진 로동자들의 발기를 묵살하며 매월 막대한 휘발유를 초과 소비하도록 랑비를 인공적으로 조작하였다.

근로 대중의 전진 운동의 로정에서의 인공적 장애가 제거된 금년 4월에 만 하여도 동 자동차 사업소에서는 9톤 이상의 휘발유가 절약되였으며 이것으로써 전 소장이 범한 관료주의 해독성과 죄행의 엄중성은 더 명백히 반증되였다.

사실이 확증하는 바와 같이 기업 관리 운영에 있어서나 하부 지도 검열 사업에서의 이 두 가지의 상이한 방법과 작풍은 또한 그것이 각각 판이한 결과를 가져 왔다.

여기에서 우리가 체험한 경험은 하부에 대한 지도와 집행에 대한 검열을 책임적 지도 일'군들의 직접 참가 하에 목적 지향성 있게 조직 진행하여야 하며 지도 검열에 대중을 광범히 인입하며 관료주의,형식주의와의 투쟁을 당 핵심들과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는 그것이다.

관료주의,형식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 비판과 자기 비판 특히 밑으로부터의 비판은 일'군들의 군중 관점과 령도 작풍 확립을 촉진시키는 유력한 수단이다.

당원들과 근로 대중에게 당 정책 교양을 강화하여 당 정책 및 로선으로부터의 온갖 형태의 리탈을 경각성있게 주시케 하며, 그를 제때에 판별하여 낼줄 알게 하며 그와 투쟁하는 수단과 방법을 소유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 현상에 대한 대중적 통제를 조직 실현함에 있어서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된다.

동시에 발전의 객관적 내부 과정과 새 사건

들의 시발적 요인들의 섬세한 작용을 다 예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업에서 엄중한 주관주의적 오유를 범하지 않으려면 자진하여 대중의 통제를 받을 줄 알아야 하며 또 대중으로부터의 통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유를 범한 자기 자신이나 지도 일'군들을 군중적 비판으로부터 면제하여 줄 것을 종종 당 단체들에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당내 비판이 일'군의 위신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신에 대한 이와 같은 소부르죠아적 견해는 비판의 정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군중의 총명과 그리고 시비를 가릴 줄 아는 군중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위신에 대한 그릇된 관점은 실천적 활동에서 지도 일'군들에게 부지 부식간에 안일과 교만, 그리고 대중에 대한 귀족적 태도를 조장한다.

실례로 평양 건재 기계 제작소 전 지배인 독고 택, 기사장 김 봉진 동무들은 《위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향해지는 온갖 성실한 비판을 억제하였으며 행정 측에 제기하는 로동자들의 온갖 창발적 발기들을 묵살하면서 당 단체와 대중의 통제로부터 벗어 나려고 시도하였다. 이리하여 이들은 경제 건설 지도에 헌신할 대신에 호화로운 사무실을 꾸미고 명령과 호령을 일삼았으며 공명과 출세를 위해서 상습적으로 생산 실적을 허위 보고하였으며 개인에게 아첨 굴종하면서 오래'동안 자기 정체를 감춰 왔다.

결함을 감싸주는 것은 그 일'군에게 대해서 유해롭다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근로 대중들은 지도 일'군들이 오유를 범하였을 때 그 오유 때문에서 만이 아니라 그 보다도 범한 오유를 솔직하게 뉘우치지 않고 비판을 겁내거나 혹은 회피하는 그러한 경우에 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지도 일'군들은 대중의 이 성실하고 소박한 감정과 요구를 정확히 리해하고 그에 옳게 수응함으로써 만 대중의 존경과 사랑에 기초한 진정한 위신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군중 령도에서 주관주의적 편견을 근절하자

군중에 대한 관계에서 소부르죠아적 편견으로부터 산생되는 좌우경적 경향을 극복하는 것은 반관료주의 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일'군들의 혁명적 사상 관점을 확립하며 과학적 령도 방법을 완성시킴에 있어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일부 일'군들에게서 나타나는 좌우경적 경향은 그들의 주관주의로부터 흘러 나오고 있다.

일부 젊은 일'군들 중에는 사업에 대한 주관적 욕망 때문에 조급하게도 대중의 각오가 성숙되기 전에 그들을 앞서 나가며 대중을 제쳐 놓고 혼자 일을 도맡아 애써 하는 그러한 실례도 없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왕왕 우리는 부분적 일'군들이 대중의 친근한 안내자로, 복무자로부터 대중에게 명령하며 강요하는 관료주의자로 전화하여 대중의 정당한 의견이나 신소까지도 불평 분자의 언행으로 단정하거나 대중이 자기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다 하여 욕설하며 대중의 의식 수준이 자기가 원하는 수준에로 즉시 도달되지 않는다 하여 군중의 《락후성》을 개탄하는 것도 보게 된다.

또한 이러한 데로부터 다른 한 극단에 빠지는 현상도 보게 된다. 일부 일'군들은 군중의 《락후성》을 개탄하여 실망과 불신임의 기분에 빠지거나 혹은 대중에 대한 무기력한 추미주의에로 전락한다. 군중 령도에서의 추미주의는 기본 군중과 이여의 뒤떨어진 부분의 군중을 식별하지 못하며 기본 군중의 리익을 도외시하면서 락후한 개별적 사람들의 기분에 동감 융화함으로써 결국에는 불순 분자의 목소리와 기본 군중의 목소리를 판별하지 못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약화시키며 혁명 사업에 심대한 손실을 끼치게 한다.

이러한 추미주의적 사업 작풍의 가장 큰 위험성은 군중의 경각성을 무디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원칙한 《관대》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반당 암해 분자들과 탐오 랑비 분자들의 범죄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군중 령도에서의 이와 같은 좌우경적 경향과 오유는 그 본질에 있어서 《이형 동체》이며 다같이 군중을 믿지 못하는 소부르죠아적 사상의 산물이다. 경험에 의하면 이 좌우경적 경향은 한 경향으로부터 다른 한 경향에로 이행하는 합법칙적 과정의 반영으로서 그것은 특히 당 앞에 새 과업과 난관이 제기되는 때에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좌우경적 경향은 일부 지도 일'군들이 주로 인식상 편견과 부족점 때문에 당 정책을 일면적으로 단순하게 파악하고 새 환경에 대처하여 자기 자신을 옳게 통제하지 못하며 사업 중심을 걷 잡지 못하는 데서 초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 정책의 집행에서 군중의 각오 정도와 객관적 조건을 항상 선차적으로 고려하며 자기 자신의 활동을 당 정책의 요구와 조성된 주위의 환경과 조건에 적응하게 자체로 통제할 줄 아는 때에라야 만 당 및 국가적 지도의 모든 령역에서 좌우경적 오유를 최대한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도에서 일면성, 주관주의, 각종 편견들을 방지함에 있어서 지도의 집체성에 대한 당적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도의 집체적 원칙은 국가 및 경제 기관들의 유일 관리제 원칙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그 강화를 전제로 한다. 이 호상 관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부분적 일'군들에게서 왕왕 우리는 지도에서 집체적 원칙을 고수한다 하여 개인적 판단으로도 능히 해결 처리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협의》에 부쳐 문제의 기동적인 해결을 지연시키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문제를 일면적으로 처리하여 오유를 범하는 현상도 보게 된다.

특히 현 시기에 있어서 주관주의와 주관주의로부터 출발한 개인 독단주의적 견해와 오유를 극복하는 문제는 극히 중요하다. 우리 당의 정책, 결정, 지시가 그의 실천 행정에서 구체적인 환경 조건들을 충분히 타산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천편일률식 지도 방법에 의한 기계적인 집행이 아니라 창조적인 지도 방법에 의한 생동하는 집행을 요구한다 하여 부분적 지도 일'군들에게서 발로되는 개인 독단은 그것이 왕왕 사업에서 자주성과 창발성이라는 미명하에 실천에 옮겨 지고 있다.

상술한 좌우경적 편향은 지도에서의 집체적 원칙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두가 관료주의, 형식주의의 단적인 표현이다. 반관료주의 투쟁에서 개인 독단, 무책임성, 교조주의, 자유주의 이것은 전면에 나서는 심각한 투쟁 대상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요한 것은 당 및 국가 기관의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적 규률의 옳바른 배합에 있으며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적 원칙성과 자주성, 창발성의 정확한 결합에 있다.

* *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에 의하여, 그리고 당과 대중을 련결시켜 주는 기관, 기업소들과 그 지도 성원들의 생동하는 조직—정치 사업을 통하여 실현 된다.

지도 일'군들이 당의 간곡한 요구에 따라 자기 사업 작풍을 부단히 개선하며 군중 관점과 과학적 령도 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인내성 있게 투쟁한다면 우리의 전진 운동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체 관료주의적 표현들을 비교적 신속히 청산하고 대중과의 련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의 창발성, 그들의 무궁 무진한 힘을 보다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의 장엄한 투쟁에서 지도 일'군들의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는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한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의 승리를 담보하는 결정적 조건의 하나이며 동시에 이는 지도 일'군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수양 및 투쟁과 관련되는 기본 문제의 하나이다.

현 시기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김 정 환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에 관한 문제는 로농 동맹의 강화와 혁명 과업의 촉진에 있어서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농민은 로동 계급의 가장 믿음직한 동맹자이며 로동 계급과 함께 우리 혁명의 기본 동력을 이루고 있다.

농민은 아직 우리 나라 주민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농촌 경리는 역시 우리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생활에서와 경제 활동에서의 농민들의 역할 여하는 직접 우리 나라 정치, 경제 생활에, 우리 혁명 추진에 거대한 영향을 준다.

로동 계급과 농민간의 확고한 물질—경제적 동맹에 기초한 정치적 동맹의 부단한 강화는 우리 혁명 승리의 가장 위력한 담보이다.

오늘 우리 당은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의 원칙 우에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적으로 발전시키며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련계를 튼튼히 하며 그 토대 우에서 로동 계급의 지도하에 농민과의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일관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당은 이 정당한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농민 대중의 계급적 의식의 장성, 정치적 적극성의 부단한 제고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농민 대중의 계급적 의식, 정치적 각성의 부단한 장성은 당 정책의 정확한 관철과 로농 동맹 강화의 담보이다. 그러므로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은 우리 당 사상 사업에서 중심 과업의 하나로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개변하는 문제가 그러한 바와 같이 특히 농민들의 봉건적 및 소소유자적 사상 의식을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 재교양하는 문제는 극히 복잡한 문제이며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문제이다. 이는 오직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당 만이 실행할 수 있는 위대한 사업인 것이다.

우리 당은 해방 첫날부터 농민들의 사상 의식의 개변, 그들의 사회주의적 계급 교양에 대하여 신중한 주의를 돌려 왔다.

당은 농촌에서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경제, 정치적 제 개혁이 농민들의 계급 의식 장성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농민들의 계급 의식 수준의 장성 정도가 경제 정치적 개혁들의 템포에 영향을 준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농민들의 물질—경제적 처지를 개선하는 제 대책과 정치 교양 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왔다.

당 중앙 위원회의 정확한 지도하에 우리 당 단체들은 혁명 발전의 매 계단, 매 시기에 있어서 농민들의 생활 및 사상 의식 수준의 장성 정도에 부합되게 그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당의 모든 정책들의 정확한 실시를 보장하였다.

당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농민들의 경제 정치적 생활 처지가 근본적으로 변경되였으며 사상 의식상에 있어서도 거대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농민들의 사상 의식 속에서 일어난 변화, 그들의 계급적 의식 수준이 장성된 결과는 국내 정치 생활과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그들의 적극성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다. 우리 나라 농민들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로동 계급과의 동맹을 튼튼히 견지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와 북반부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확고 부동하게 고수하였는 바 이는 우리 나라에 이룩된 로농 동맹의 견고성과 그의 위력을 실천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다.

농민들의 사상 의식상에서의 변화는 특히 전후 시기에 더욱 현저하다. 그들은 전후에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우리 당 정책과 제3차 당 대회가 제시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가일층 촉진시킬 데 대한 위대한 강령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자기의 강령으로 흔연이 접수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리하여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관한 우리 당 정책은 이미 기본상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고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나라 력사 발전에서 거대한 전변으로 된다. 이것은 농민들의 사상 의식 및 생활 관습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소생산자적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그들의 자원성과 지지에 의거하여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수립하는 데서의 승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의 투쟁에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적들—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우리 농촌의 사회주의적 건설을 파괴하며 우리 농민들을 부르죠아적 및 소부르죠아적 사상으로 마비시키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며 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적 사상과 생활 양식을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지상의 《자유》인드시 묘사하면서 사회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사상에 대하여 갖은 모욕적 비방 외곡을 조작 류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은 우리 당을 믿고 사회주의 사상을 따라 사회주의 길에 확고히 들어서서 나가고 있다.

우리 당은 적들과의 이러한 투쟁 속에서 농민들을 쟁취하였으며 그들을 사회주의에로 인도하고 있다.

최근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호소를 받들고 국가 계획보다 근 50만톤이나 더 많은 알곡 증산을 결의하여 궐기한 수백만 농민 대중의 장엄한 로력 투쟁은 그것이 사회주의적 새 길에 들어선 농민들의 생활의 기쁨의 표시이며 동시에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표시로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 당 단체들이 지난 시기 농민들 속에서 진행한 사회주의적 계급 교양 사업에서 달성한 거대한 성과의 표시이며 농민들의 계급 교양 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말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농민들의 계급적 의식 수준이 충분한 정도로 제고되였다거나 또는 그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을 과소 평가하여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와 반대로 현실 생활은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년간 농촌 경리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와 현 정세 하에서 당면하게 제기된 더욱 중대한 혁명 과업들과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하에 이미 전 농호의 85.5%에 해당하는 농민들이 농업 협동조합에 망라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미 사회주의적 농민으로 개조되였다. 그러나 그 모두가 사상적으로는 완전히 사회주의적 농민으로 개조되지 못하였다.

생산 관계가 변혁되면 그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 의식도 개변되는 것이지 만 그러나 그것은 일조 일석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오래'동안 생활에서 물젖은 봉건적 및 소소유자적 사상을 사회주의적 사상으로 개변하는 문제는 혁명적 당의 정력적인 교양적 활동과 오랜 시일을 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의 꾸준한 사회주의적 계급 교양 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농민들의 사상 의식 수준은 그의 사회주의적 생활 환경 및 조건에 비하여 뒤떨어졌다. 이것은 농업 협동 조합들을 경제적, 조직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며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 저애를 주지 않을 수 없다. 농업 협동 조합들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

키는 것은 농민들의 더욱 높은 사회주의적 자각성과 적극성에 의존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농민들의 계급 의식 수준, 사회주의적 자각성을 가일층 제고하는 것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며 그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과 직접 상치하여 있고 그들과의 첨예한 계급 투쟁 속에서 방대한 제1차 5개년 계획을 완수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실현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에 당면한 현 조건하에서 농민들에 대한 계급 교양 사업 강화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급 당 단체들은 현 시기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을 가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일치성에 대한 인식의 확립

현 시기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과의 일치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깊이 설복 침투시키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모든 경제 활동과 정치 활동에서의 그들의 적극성을 부단히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일치성, 그의 호상 관계를 철저히 파악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영예로운 투사이라는 것을 더 깊이 자각하게 되며 따라서 전 국가적 사업, 혁명의 운명에 대한 문제들을 자기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그를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기간 일부 당 단체들은 일반적으로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을 미약하게 진행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일치성에 대한 문제를 깊이 해석 선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결함과 관련하여 아직 일부 농민들은 계급적 의식 수준이 미약하며 특히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호상 관계에 대한 착오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데로부터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들이 발현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조합의 리해 관계와 조합원 개인의 리해 관계에 관한 그릇된 인식과 그로부터 발현되는 부정적 현상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한 일부 조합 농민들은 협동 조합 전체 성원의 리해 관계보다 자기 개인의 리해 관계를 더 높이 내세운다. 이러한 농민들 중에는 조합 일에서 함부로 리탈하여 공동적 작업 계획에 혼란을 끼치며 작업에 참가하여서는 쉬운 일만 하려하며 또는 일을 남보다 적게 하고도 남보다 많은 로력 점수를 받으려고 당치 않은 말성을 부리며, 일에서는 건달을 부리고도 한목 보려고 시도하며 지어는 조합을 고의적으로 기만하여 조합 재산을 탐오하는 현상까지 있는 것이다. 자기의 개인 것이라면 호미 자루 하나 상할세라, 병아리 한 마리가 병들세라 극진히 하면서도 공동 재산인 조합의 농기구와 축우를 혹사하며 거칠게 건사하여 그것이 상하여도 가슴 아프게 여기지 않는 현상을 일부 조합원들 속에서 간혹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극히 일부 조합 농민들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그것이 아직 조합 발전의 초기인 만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 간과할 수 없다. 그러한 현상은 그 사상적 근원이 나쁘며 그것이 장성된다면 그의 후과는 극히 엄중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한 현상은 일반적으로 오래'동안 생활 관습에서 물려 받은 일부 농민들의 소소유자적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의 표현이며 로동에 대한 정당한 리해, 자기 개인의 리익과 조합 전체의 리익간의 호상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출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 단체들은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에 있어서 우선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 협동 조합과 조합원 개별적 성원들 간의 리해의 일치성 및 그의 호상 관계와 사회주의적 로동의 성격과 분배 원칙을 정확히 파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협동 조합이 조직되므로 농민들의 리해 관계와 작업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매개 조합원들은 조합 생활에 대하여 책임지며 조합은 매개 농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되였다.

농업 협동 조합이 조직되기 전에 농민의 영농 사업과 그의 생활은 매개 농호가 책임졌었다. 그러나 조합이 조직된 오늘에 와서는 조합의 영농 활동과 매개 농민들의 생활은 조합 전체 성원이 책임진다. 매개 조합원들은 조합 앞에서 책임지며 조합의 한 성원으로서의 조합 전체 앞에서의 의무를 실행한다.

따라서 조합 전체의 리해 관계는 매개 조합원들의 리해 관계에 일치되며 매개 조합원들의 리해 관계는 우선 조합의 리해 관계에 복종된다. 조합 전체가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면 조합원 매 개인들도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

각자 조합원들이 조합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곧 자기의 리익과 일치되며 조합을 위하여 더 많이, 더 잘 일할수록 더 많은 분배를 받게 된다. 이와 반대로 일할 때에는 그 결과도 반대로 되는 것이다. 자기의 개인 경리에서 일할 때와는 달리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농민들 속에서 나타나는 개인 리기주의 경향, 비근로적 현상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가 끼치는 영향은 더욱 큰 것이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조합 전체 성원에 미치며 때로는 더 넓은 범위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일부 조합 농민들의 소부르죠아적 개인 리기주의, 조합 사업에 대한 자유주의적 현상 및 락후한 보수주의적 경향은 조합의 경제적, 조직적 강화에 저해를 주게 된다.

개인적 리익과 사회적 리익에 대한 그릇된 사상으로부터 출발되는 부정적 현상은 전 국가적 리익과 농민 개인의 리해 관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도 표현되는 것이다.

국가와 농민 개인간의 리해 관계 문제도 농업 협동 조합과 조합원간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민은 국가 앞에 책임지며 국가는 농민들의 앞에 책임지고 있다. 당과 정부는 항상 농민들의 생활 향상에 대하여 깊은 배려를 돌리고 있다. 특히 곤난한 전쟁 시기와 전후 지난 년간에 당과 정부는 농민들의 곤난한 생활을 안정 개선하기 위하여 막대한 물질적 혜택을 베풀었으며 전후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거대한 투자를 실시하였다. 농민들은 국가의 이러한 배려에 대한 응당한 보답으로서 당과 정부 정책을 적극 실천하며 모든 국가적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우리의 많은 농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계급적 의식이 미약한 농민들은 당과 국가를 위하여 더 많이 일하려는 자각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일부 농민들은 당과 정부가 장려하는 선진 영농 방법을 도입함에 있어서 보수적이며 모든 국가적 의무 수행에서 적극성이 부족하며 당과 국가로부터 덕 입을 것 만 바라고 있다. 일부 지방의 어떤 농민들은 응당 반환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형편에서도 국가 대여곡을 반환하지 않고 면제해 줄 것을 기다리며 지어는 현물세 납부까지도 지연 미납하는 현상까지 있다. 또 일부 락후한 농민들은 여름 철에 쌀 값이 올라가면 시장에 내다 폭리를 취할 것을 생각하며 심한 경우에는 절량되였다고 우는 소리를 하며 대여곡을 받으려고 하는 옳지 않은 현상까지 있는 것이다.

전체 농민들이 당과 정부 시책을 받들고 선진 영농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여 농사를 더 잘 하며 국가적 의무를 충실히 실행하는 것은 당과 정부가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하며 그리하여 농민들이 경제 문화적으로 더욱 부유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민들은 이러한 것을 리해하지 못하고 당면한 눈 앞의 리익만 보고 근본적이고 원대하고 더 큰 문제를 보려하지 않는 것이다.

농민 속에 있는 이러한 개인 리기주의적, 근시안적 경향은 전체 우리 혁명 발전을 저애하는 것이며 그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실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농민들 속에서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의 일치성, 매 농민 및 매 농업 협동 조합과 전 국가적 리익의 일치성을 해석하며 전체 농민들을 당과 정부의 정책을 적극 옹호 실천하며 사회적 및 국가적 의무에 충실한 사회주의적 자각성으로 교양하는 사업을 백방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로농 동맹 강화와 혁명적 경각성의 제고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그들을 로동 계급과의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하는 자각성으로, 적에 대한 적개심과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여 혁명적 전취물을 견결히 고수하는 사상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위대한 혁명 사업은 안온 무사한 환경 속에서가 아니라 조국이 남북으로 량단되고 남반부를 강점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의 환경 속에서 진행하고 있다.

더우기 웽그리야에서의 작년 10월 사변이 말하여 주는 바와 같이 오늘 조선에 있어서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혁명적 전취물들을 파괴하려고 더욱 발악하고 있다. 북반부에서 이미 청산된 착취 계급들, 지주들도 자기들의 옛 지위를 회복하려는 꿈과 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우리 혁명의 모든 원쑤들은 악독하며 그들의 발악은 악랄한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직접 체험한 바와 같이 북반부에서 청산되여 남반부에 도주한 지주들이 지난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에 자기들의 옛 고향에 다시 기여 들어 과거 자기의 소유였던 토지를 분여 받은 농민들로부터 그 동안 5년간의 소작료를 리자까지 첨부하여 강요하며 농민들을 다시 노예로 부리려고 하던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을 수 없다. 그들은 오늘도 그러한 꿈을 버리지 않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북진》 나팔을 불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미 달성한 혁명적 전취물들, 농민들이 이미 달성한 정치적, 경제적 모든 전취물들을 종국적으로 공고히 하기 위하여서는 로동 계급과의 더욱 튼튼한 동맹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며 남반부 인민들을 해방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체 조선 인민의 절실한 념원인 조국 통일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남반부의 농민들이 과거 일제 하에서 보다 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당하여 암흑과 도탄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데 북반부의 인민들과 농민들이 안일 무사하게 고침 안면할 수 없다.

오늘 우리 농민들은 적에 대한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이며 로동 계급과의 동맹을 가일층 강화하여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실현하는 데 자기의 모든 리해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곧 자기의 더 크고 원대한 근본적인 리익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급 의식이 미약한 일부 농민들은 우리 당과 정부의 정확한 시책의 덕택으로 생활이 향상됨에 따라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의 지주에게서 당하던 착취와 학대의 쓰라림을 잊어 버리기 시작하였으며 오늘의 남반부 농민들의 고통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경향은 혁명 발전에 유해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사상은 《남이야 어찌 되든지 저만 편안하면 제일》이라는 자본주의가 비져 낸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이며 계급 의식이 미약한 표현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 단체들은 혁명 수행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이고 경각성 있고 견결한 선진적 로동 계급의 사상으로써 농민들을 교양하며 우리 혁명의 성격, 그의 간고성과 전망 및 종국적 승리에 대한 신심으로 교양하며 조국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의 영예로운 투사로서의 자부심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에 대하여 제일 먼저 생각하며 혁명의 원쑤들과 견결히 투쟁할 줄 아는 투사로서 교양 훈련하도록 일상적 배려와 모든 로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생활 환경 및 조건들이 변화된 데 따라 그의 사회주의적 자각성을 제고하며 농업 협동 조합 및 사회 국가 생활에서 사회주의적 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는 정신으로 농민들을 교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 협동 조합 사업에 있어서 혹은 전 국가적 혁명 사업에 있어서 일부 농민들에게서 표현되는 계급적 의식의 미약성, 소부르죠아적, 개인 리기주의적 경향, 그것은 물론 전반적 발전 과정에 있는 부분적 결함이다. 그러나 그것을 시급히 퇴치하지 않는 것은 그가 나가고 있는 사회주의 길에 있어서 그 전진의 걸음을 더디도록 하는, 자기 발목에 걸린 장애물을 제거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몇번이고 거듭 해설 설복하고 그들의 자각성을 더욱 제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적들이 우리 내부에 있는 결함이나 모순을 모조리 악용하려고 발악하고 있는 현 순간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사업을 더욱 정력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 농촌이 사회주의 길로 성과적으로 개조되여 감에 따라 더욱 발악하고 있는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은 파괴 암해 분자들을 잠입시키며 부분적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적에 대한 경각성이 미약한 틈을 타서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며 우리 혁명 사업 전체를 파탄시키려고 발악하는 것이다. 적들은 일부 농민들의 혁명적 경각성이 미약한 틈을 타서 협동 조합 내에 잠입하여 파괴 활동을 하려고 노리고 있으며 해안 연선 특히는 일부 신 해방 지구 농촌들에 음밀한 방법으로 반혁명 활동의 발판을 닦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극히 부분적이나마 일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적발된 사실에 의하면 소위 《열성 분자》로 가장하고 조합 내에 잠입한 암해 분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조합의 발전을 저해하며 조합 내에서의 당 정책을 외곡하여 우리 당과 생사를 같이하였고 앞으로도 같이 할 당의 계급적 핵심들을 음으로 양으로 학대하여 당과 정부에 대한 불만을 조성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조합 내에서 조합 규약의 민주주의적 원칙과 규정들을 악용하여 조합을 혼란시키며 지어는 조합을 와해시키려는 행동까지 시도하는 것이다.

일부 암해 분자들은 아직 비과학적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 나지 못한 일부 락후한 농민들을 미신 행위에로 유인하여 그것을 암해 공작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 《점쟁이》들을 매수하거나 혹은 그로 가장한 암해 분자들은 농민들에게 소위 《신수'점》을 쳐 준다 하여 협동 조합에 가입하지 말거나 그에서 탈퇴할 것을 음밀히 권유하며 반동 요언을 조작 류포한다.

우리 당 단체들과 농민들이 특히 주목할 것은 일부 적대 분자들이 종교의 간판을 자기들의 암해 공작에 리용하는 사실이다. 그들은 우리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는 종교 신앙의 자유를 악용하여 종교의 간판을 들고 이러저러한 교묘한 방법으로 당과 정부 정책을 비방하며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형제적 국가들을 비방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선전하며 자본주의 사상을 류포하려고 책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민들 속에서 적들에 대한 적개심과 경각성을 고도로 제고시키며 정확한 계급적 관찰력으로써 적대 분자들의 어떠한 암해 공작도 적시에 판별하여 그를 폭로 분쇄하며 당과 정부 주위에 더욱 튼튼히 단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농민들 속에서 과학 지식을 보급하는 문화 계몽 사업과 대중 정치 및 선전 사업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비과학적 미신 행위들을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호상 원조, 원호의 정신의 발양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매개 농민의 생활과 리해 관계는 전 국가적 및 전체 농민들의 리해 관계와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였으며 일상적 활동은 사회주의적 집단의 일원으로서 일층 더 조직성을 요구하게 되였다.

모든 농민들이 다 집단적 활동에서 자각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발전하며 더 부유하게 살게 되는 것은 전 국가적 리익의 요구와 매개 농민들의 리익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개 농민들은 사회주의적 집단주의 사상으로 무장하며 농민들 호상간에, 협동 조합 호상간에 서로 도웁고 도와 주는 상부 상조, 유무 상통하는 아름다운 정신을 적극 발휘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우기 우리 농업 협동 조합들은 건설된 력사가 짧은 만큼 아직 경험도 어리며 기술도 부족하며 기타 여러가지 난관들이 있다. 또한 우리 농촌에는 부분적이나마 생활이 곤난한 빈농민들이 남아 있다. 정전 직후에는 약 30% 이상에 달하던 빈농민들이 당과 정부의 극진한 배려와 또 농업 협동 조합들이 조직되여 발전함에 따라 대폭적으로 축소되였다. 그러나 아직 일부 빈농민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상부 상조, 유무 상통의 정신은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일부 농민들과 협동 조합들에서 발현되는 바와 같은 자기만 잘 되려고 생각하여 호상 원조, 유무 상통하지 않는 것은 사회주의적 도덕과 의무의 정신에서 리탈되는 것이다. 호상 원조, 유무 상통하는 것은 우리 조상 전래의 미풍의 하나이다. 이것은 서로 배우고 배워 주며 생활을 개선해 나가며 단결을 공고히 함에 크게 이바지하는 미풍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 단체들은 이 정신으로 농민들을 교양함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농민들 호상간, 조합과 농민들 간, 조합 호상간에 선진 영농 경험을 서로 교환하며 종곡, 축력, 농기구 기타 등을 호상 유무 상통하며 생활이 곤난한 농민들을 서로 원조하는 미풍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애국 렬사 유가족 및 후방 가족들을 광범히 원호하는 문제이다.

해방 전이나 혹은 해방 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다 희생된 애국 렬사들의 유가족들과 인민군 후방 가족들은 우리 인민의 자랑이며 우리 당의 튼튼한 계급적 핵심 부분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사랑하며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서로 보살펴 주는 것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농민들의 고상한 의무의 하나다.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며 그 자제들을 잘 육성하도록 하는 것은 공민적 및 계급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우리 당 단체들은 현 시기 농민들의 계급 교양 사업에 있어서 상부 상조, 유무 상통의 정신을 발양시키는 동시에 애국 렬사 유가족 및 후방 가족들에 대한 원호 사업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계급적 현상에 대한 비타협성의 배양

현 시기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또 하나는 온갖 착취적 현상에 대한 증오와 투쟁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 농민들은 지주, 고리대업자 기타 착취 분자들에게 가혹한 착취를 당하여 빈궁과 기아와 파산의 쓰라린 생활을 하였었다. 물론 오늘 우리 북반부 농민들은 지주가 청산되고 지주들의 착취가 없는 자유롭고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남반부 농민들은 아직도 미제와 지주 및 고리대업자들의 가혹한 착취하에 과거보다 더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남의 일로 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진행하는 조국 통일과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은 그러한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인 것이다. 이 투쟁에서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농민들은 과거 당하던 지주들의 악독한 착취의 쓰라림을 잠시도 망각하지 말며 오늘도 남반부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는 지주들에 대한, 기타 모든 착취자들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더욱 더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오늘 북반부 농촌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함에 있어서 비록 어떠한 사소한 착취적 요소에 대하여서도 그에 대하여 경각성 있게 대하여야 하며 강력히 투쟁하는 사상으로 농민들을 교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 개인 경리 형태가 일부 남아 있고 농민들 중에 일부 부농과 빈농이 남아 있으며 봉건적 및 소부르조아적, 개인 리기주의적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 것 만큼 사소하나마 착취적 현상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일부 농민들 속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발현되고 있다.

당과 정부의 극진한 배려에 의하여 해방 후 생활이 급속히 향상된 농민들 중에서 계급적 각성이 부족한 일부 분자들은 빈 농민들에게 쌀, 현금 등을 높은 리자로써 대여하며 역축 및 농기구들을 높은 《세》로써 대여하고 있다. 일부 분자들은 《호상원조》의 미명하에서 폭리와 착취 행위를 감행하려 한다. 그러한 농민들 중 일부 분자들은 로력에서 리탈하여 투기 분자로 전락하며 상행위를 하며 부화 방탕하여 사회 도덕적으로 타락까지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계급적 립장을 망각한 착취적 현상인 것이다. 또한 이것은 당과 정부 정책에 반대되며 우리 농민들이 농촌에서 건설하고 있는 사회주의에 적대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착취 행위가 사람으로서 가장 나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라는 것을 계속 폭로하며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여 농촌에서의 착취 행위와 온갖 비계급적 현상을 없애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농민들로 하여금 호상 원조와 착취적 현상을 잘 구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우리 당 단체들은 농촌에서의 우리 당의 계급적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여 빈농민들이 부농 및 기타 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착취 당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생활이 곤난한 빈농들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 향상시키는 것을 전후 년간의 당면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실시하였으며 부농 분자들이 그들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과 특전을 베풀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기간 정치적으로 암둔하고 계급적 안광이 무딘 일부 일'군들은 당의 이러한 정책을 정확히 집행하지 못하고 지어는 빈농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특전까지도 농민 일반에 적용함으로써 당 정책을 정확히 관철하지 못하였다.

당 단체들은 이러한 결함을 심각히 비판하고 당 정책에 립각하여 빈농민들을 시급히 퇴치하며 그들의 생활을 제고시키며 농촌에서 우리 당의 계급적 핵심을 강화하여 그들을 중심으로 전체 농민들을 당과 정부 주위에 튼튼히 결속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 청년들에 대한 계급 교양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에 있어서 특히 강조되여야 할 문제의 하나는 농촌 청년들의 교양 문제이다. 오늘 우리 농촌 청년들의 대부분은 해방 후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해방 후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초등 또는 중등 교육을 받았으며 새로운 사상으로 교양되였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는 과거 자기 부모들이 겪은 또는 오늘 남반부의 농민들이 당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지주의 가혹한 착취의 쓰라림을 체험하지 못하였으며 지어는 지주를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주가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며 그것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가를 모르며 오늘 남반부에 있는 지주들, 북반부에서 이미 청산된 지주들이 지주의 착취 제도를 복구하려고 어떻게 교활하고 악랄하게 시도하는 가에 대한 응당한 지

직과 경각성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우리 당 단체들은 청소년들 속에서 계급 교양 특히 지주의 착취적 본질을 폭로하여 그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의 사상으로 교양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오늘 일부 농촌 청년들은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그들이 응당 수행하여야 할 임무에 대한 자각성과 영예감이 부족하다.

농촌 청년들은 해방후 민주 교육을 받은 새 일'군으로서 농촌에서 당과 정부 결정을 적극 실천하며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농업 협동화 운동과 농업의 기술적 개조 사업에 솔선 참가하며 농촌의 문화 계몽 사업과 자기 향토를 아름답고 문화적으로 건설하는 사업에서 모범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국 통일과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 있어서의 농촌 청년들의 임무이며 영예로운 혁명 과업이다.

그러나 일부 농촌 청년들은 농촌에서 농사 짓는 것을 천한 일로 알며 농촌을 떠나려는 옳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초고중 졸업생들에게서 더욱 심하게 볼 수 있다. 그들은 중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짓는 것은 창피한 일로 알며 그리하여 농촌을 사랑하지 않으며 도시 만을 동경하고 있다. 이러한 일부 청년들은 농촌에서 일하는 것은 마치 장래 발전의 길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것은 일부 청년들은 발전에 대한 문제를 정당치 못하게 리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발전에 관한 문제를 리해함에 있어서 그가 자기의 계급적 각성과 사상 정치적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 어떠한 사업이든지 할은 일에 전심 전력을 기울려 그를 잘 수행하며 자기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도입하거나 새 기술적 발명이나 창안을 하여 그를 더욱 발전시키며 당과 국가에 더 많이 공헌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한 일이라는 직업의 귀천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여 하는 일은 모두 영예로운 혁명 사업이기 때문이다.

우리 농촌 청년들에게도 다른 모든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광활한 발전의 전망이 열리여 있다.

아직 우리 농촌 경리는 기술적으로 락후한 바 청년들은 이러한 우리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고도로 발전된 농촌 경리로 전진시키기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농촌 청년들, 특히 초고중을 필한 청년들 앞에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문화적인 농민의 첫 세대로서 농촌 경리에 높은 과학 기술을 도입하며 실천에서 농산, 축산, 잠업, 과수 및 기타 농업 과학을 학습하며 그를 도입 발전시킬 수 있는 광활한 발전의 길이 보장되였다. 당과 정부는 농촌 청년들이 문명하고 문화적인 농민으로서 농촌에서 일하면서 각종 농업 과학을 습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그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청년들이 농사 일을 천시하여 농촌을 리탈하려는 경향은 직업에 대하여, 발전에 대하여 옳지 못하게 리해하는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청년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자기 사업에 대한 영예감과 발전에 대한 정당한 리해와 전망을 가지고 농촌의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하도록 교양 훈련함에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 ❊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물론 이상으로써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만 당면 중요한 몇가지 문제 만을 지적하였다.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은 우리 농촌 당원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당원들이 농민들 속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당원들의 사상과 행동은 농민들의 사상과 행동에 거대한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농민들 속에서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원들 속에서 이 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농민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과 마찬가지로 농촌 당원들 속에서의 그 사업도 일시적 깜빠니야로나 혹은 추상적 형식주의적으로가 아니라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진행하며 그들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당 정책 실천의 구체적 투쟁 속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직도 일부 우리 농촌 당원들의 계급적 의식 수준은 그들이 응당 가져야 할 수준에서 뒤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당원 농민들 속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범적, 선도적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어는 일부 당성이 미약한 농촌 리'급 간부들과 협동 조합 지도 간부들 속에는 비계급적 비행이 없지 않다. 농민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고 정치적으로 지도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당원들이 일부 농민들의 비계급적 착취 현상을 묵과하며 지어는 그를 조장하며 농촌에서의 당의 계급적 정책을 외곡하며 생활에서 부화 방탕하는 현상까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당 내에서 당원들의 당성 단련과 계급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당성이 결여된 일체 비계급적 현상과의 엄격한 사상 투쟁을 진행하며 전체 당원들을 비당원 농민 대중의 신임과 위신 있는 교양자로, 정치적 지도자로 단련하여야 한다. 특히 당원들의 정치적 수준을 제고하며 군중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대중 속에 당 정책을 일상 해석 선전하며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전체 당 단체들과 당원들의 조직적 력량을 발동하여 일상적으로 농민 대중 속에서의 계급 교양 사업을 진행하며 농촌에서의 비계급적 현상과 강력히 투쟁하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농촌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며 조국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투쟁이다.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자

박 동 환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원쑤, 국제 반동 세력은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의 장성과 단결을 두려워 하면서 이 나라들 간에 불화를 조성하며 이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부질 없는 책동을 계속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전쟁 준비를 정지하거나 전쟁 선동을 포기한 적은 일찌기 없다. 이 자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멸망하여 가는 자기들의 여명을 연장하려고 하며 제국주의 자체의 내부 모순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주의 진영의 무궁 무진한 위력과 이 진영에 대한 전 세계 수억만의 선량한 인민들의 지지는 제국주의자들이 그를 무력적 방법으로 《정복》하기에는 너무나 힘에 겨운 대상으로 되였다. 만약 제국주의자들이 우둔하게도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때에는 그들에게 패배와 멸망의 위험 만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까닭에 제국주의자들은 혈안이 되여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비밀 전쟁》을 맹렬히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이 《비밀 전쟁》의 방법으로써 간첩, 파괴, 암해 활동을 전개하며 쏘련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오래 전에 전복 당한 착취자들의 잔재의 반항을 고취하며 방조하여 나서고 있다.

오늘날 이 극악한 범죄 활동의 괴수로 온갖 반혁명적 활동의 조직자로 출현하고 있는 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이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제국을 반대하는 로골적 전쟁 준비에 수백억 딸라를 지출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파괴 암해 활동에 수 많은 자금을 투하하고 있다. 그들은 《랭전》의 전성기였던 1951년 9월 9일 악명 높은 《호상 안전 보장》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과 쏘련을 반대하는 파괴 활동에 매년 1억 딸라를 공식적으로 지출하였다. 이것은 수년간 계속되였다. 1956년에 《랭전》을 다시금 적극화시킬 의도 밑에 미국 상원은 2천 5백만 딸라를 파괴 활동 기금으로 추가 지출하였다.

이 자금이 어디에 리용되였는가는 알만한 일이다.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폭동은 바로 미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서 웽그리야에서의 그들의 앞잡이 전 에쓰 에쓰 대원들과 호르찌 살라쉬 도당들에 의하여 감행되였던 것이다.

미 합중국 중앙 정보처 두목인 알렌 덜레스는 웽그리야에서 사변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자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 자신이 자금을 대고 사변을 준비하였다는 것은 오늘 비밀이 아니다.

쏘련과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첩보 암해 행위와 수탈된지 이미 오랜 썩어빠진 착취자들을 소생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략 행위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대외 정책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수년 전 미국 공화당의 이름난 활동가 듀이는 쏘련을 반대하는 《훌륭한 간첩망 체계》 창설을 호소하면서 그러기 위하여 미 합중국은

《그 사업에서 우리에게 방조가 된다면 사람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의 이 흉악한 기도는 《사회주의 나라들에서의 지하 단체들의 반항 운동에 대하여 경험 있는 지도를 포함한 정신적, 물질적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한 미국 장군 데위드 사르노브의 론문에서도 명백히 표현되고 있다.

적들의 흉계의 다른 한 측면은 사상적 방면에서의 《반쏘》, 《반공》 깜빠니야이다. 이미 폭로된 바와 같이 웽그리야에서 반혁명적 폭동을 준비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수중에 있는 서방의 방송국들인 《미국의 소리》와 《자유 구라파》로써 12년간이나 인민 민주 제도의 전복을 선동하여 왔으며 폭동이 발생하던 시기에는 서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원조를 약속하면서 폭도들을 고무하였다.

바로 알렌 덜레스가 두목으로 되여 있는 《구라파 위원회》와 같은 각종 반동적 파괴 단체들은 악의에 가득찬 중상과 허위 날조로 일관된 수천매의 삐라들을 살포하여 폭동을 선동하였다. 그 외에도 수만매의 반동 삐라를 실은 수 많은 기구들이 서부 독일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기지에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 날려 들어 왔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진출과 관련하여 그들과 장단을 맞추고 있는 자들은 로동 운동 내에 있어서의 기회주의자, 수정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이란 허울 좋은 간판 밑에 숨어서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진영간의 단결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민족 공산주의》니 《쏘련으로부터의 독립》이니 하는 허무 맹랑한 구호들을 내놓고 있다.

평화와 사회주의의 극악한 원쑤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감행하는 이 추악한 모든 행위들은 사회주의 건설의 성과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또 혁명의 원쑤들에게 가하여지는 타격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 내부를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시도가 감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 까닭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새로운 음모들에 등한하여서는 안되며 더욱 경각성 있게 그것을 주시하며 해당한 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전복된 착취자들은 첫번의 참패 이후에도 십배나 더한 에네르기와 광적 열정과 백배나 더 커진 적개심을 가지고 빼앗긴 락원을 도루 찾기 위하여, 또 유쾌하게 살아 왔으나 지금에는 <그 쌍놈들>로 인하여 령락과 빈궁 (그렇지 않으면 보통 로동…)에 빠지게 된 그들의 가족을 위하여 싸움에 투신》(레닌)하는 까닭이다. 혁명에 의하여 전복되고 수탈된 지주들과 자본가들의 반항을 분쇄하고 자본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온갖 시도들과 모든 망상들을 청산하기 위한 철저한 독재의 실시 없이는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종국적 승리를 전취할 수 없는 것이다.

전복된 착취자들은 옛 제도의 회복을 기도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바 가장 거대한 힘은 국제적 련계, 즉 자본의 련계에 있다고 레닌은 가르쳤다.

오늘 구라파와 아세아의 모든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전복된 착취자들은 미제를 비롯한 국제 반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은 웽그리야가 처하였던 위험한 순간에 로농 혁명 정부가 반혁명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반혁명의 진압을 위하여 철저한 투쟁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의 전취물은 원쑤들에 의하여 유린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은 계급 투쟁이 가렬해 질수록 프로레타리아트는 적에게는 더욱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하며 더욱 더 광범한 인민 대중에 의거하여 그들의 혁명적 적극성을 동원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더욱 충실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현실은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국내의 착취자들과 자본주의 포위의 침략 세력을

반대하는 새로운 조건과 새로운 형태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연장이며 원쑤에 대한 준엄한 제재와 진압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보다 더 중요한 다른 기능——인민을 위한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건설의 보장은 불가능하다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증하여 주고 있다.

위대한 쏘련 군대에 의하여 해방된 이후 정권을 자기 손에 틀어 잡은 조선 인민은 그 첫날부터 원쑤들의 반항을 진압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민주 건설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12년 간의 력사는 원쑤들과의 치렬한 계급 투쟁으로써 일관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 원쑤들과의 투쟁이 더욱 치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분리되여 적들과 장기간 상치되여 있기 때문이다. 국제 반동의 원흉인 미 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 둥지를 틀고 있으면서 리 승만 역도들을 사촉하여 공개적 무력 침범 음모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훈련된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파견하여 북반부에 잠재하여 있는 반동적 요소와의 련계 밑에 각종 파괴 암해 활동을 획책하며 온갖 기만과 은폐의 방법으로 썩어 빠진 자본주의 사상을 침투시키기에 광분하였으며 또 광분하고 있다.

일제의 주구들이였으며 그 이후에는 미제의 충실한 앞잡이로 주인을 바꾼 친일파, 민족 반역자, 지주, 예속 자본가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추동 또는 직접적 지시에 의하여 해방 직후 북반부에서 《대한 사회 민주당》, 《고려 청년단》, 《우리 청년회》 등 오가 잡탕의 반동 집단을 조직하고 공산당과 인민 정권을 전복하며 정권을 장악하려고 발악하였다.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은 민주 개혁 실시를 반대하여 더욱 악랄하게 진행되였다. 그들은 조선에 대한 항구한 식민 정책을 추구하려는 미제의 기도에 더욱 고무되면서 토지 개혁을 반대하여 나섰으며 첫 민주 선거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음흉한 책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원쑤들의 간교하고 무모한 활동을 분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고수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요구였으며 당의 첫째 가는 임무였다. 그런 까닭에 조선 인민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하에 《자기의 손에 정권을 잡고 정권을 수립한 이후 현 력사적 계단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권력이 미치는 곳마다 인민의 적인 친일파,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과 예속 자본가 및 지주들이 다시 자기의 주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를 물리치며 그를 제지하기 위하여 항상 투쟁하여 왔다》(《김 일성 선집》, 4권, 55페지 1953년판).

이 투쟁을 성과적으로 조직 보장한 것은 인민 정권이며 그에 대한 당의 령도이다.

인민 정권은 제국주의 세력을 부식하려는 지주, 예속 자본가와 친일, 친미파, 민족 반역자들에게 한하여서는 독재를 실시하며 인민 자체에 한하여서는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인민 민주주의 독재의 위력한 무기로서 출현하였다. 그는 혁명의 매 계단에 있어서 전복된 착취자들의 옛 제도를 복구하려는 음흉한 기도를 분쇄하였다.

그러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민주 개혁 실시 이후에도 사자본주의적, 소상품 경리적 경제 형태가 의연히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요소가 계속 잔존하였다. 조국은 통일되지 않았으며 미 제국주의자들은 의연히 남반부에 군림하여 리 승만 역도들을 동족상쟁의 내란 도발에로 적극 추동하였다.

그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자기들의 밀청, 간첩 및 파괴 암해 분자들을 계속 대량적으로 파견하였다. 민주 개혁에 의하여 자기의 착취의 수단을 박탈 당한 착취 계급들과 그들의 앞잡이들은 공화국 북반부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인민 민주 제도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모든 기회를 리용하여 우리의 적들을 도와 주며 우리를 반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출현하였다. 이들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이 파견한 간첩들과 손을 맞잡고 《서북 청년회》, 《정의 구락부》, 《애국 동지 단결사》 등 투기적인 반동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으며 38 연선에서의 무장 침범 사건과 발맞추어 8.25 최고 인민 회의 선거를 비롯한 조국 통일을 위한 중요 대책들을 파탄시키며 중요 공장, 기업소들을 파괴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이 자들의 준동은 우리의 국가 기관들과 경각성 높은 혁명 군중들의 예리한 시선에 의하여 모조리 적발 분쇄되지 않을 수 없었다.

원쑤들의 반혁명 기도가 극도로 로골화되였던 것은 전쟁 시기이며 특히 적들의 일시적 강점 시기였다. 물론 전쟁 자체가 원쑤들의 극단적인 반항의 표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원쑤들은 공화국 북반부의 일부 지역들을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기회를 리용하여 대량적인 살륙과 만행으로써 혁명적 민주 기지를 《파괴》해 버리려고 시도하였다. 그 자들은 황해남도 신천군에서 만도 35 383명의 고귀한 인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미제 식인종들은 이 잔인 무도한 살륙 행위를 직접 조직하였으며 지도하였으며 또 집행하였다.

인민을 략탈하고 살륙하기에 습관된 악마들은 저주로운 만행을 감행하면서 량심의 가책을 받기는 고사하고 《쾌락》을 느끼고 있다. 미국 제3 보병 사단 사관 에드워드 리취라는 자는 자기 일기장 아홉째 장에 《전률의 토굴》이라는 제목 밑에 부녀자들을 토굴에 몰아 넣고 휘발유로 불태우던 죄행을 서슴 없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화염에 싸인 황색 야반들의 흉곽이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는 토굴을 무너뜨릴상 싶었다. 그것들은 불에 타는 후라이판 우의 붕어처럼 곤두 벌레질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신경은 편안하였다—명령이 정확히 집행된 것이다》. 이것이 소위 《문명한》 미국인이며 칼흐니야 대학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자의 행동이며 신경인 것이다.

이 시기에 우리 내부에 이미 잠입하여 있었던 반혁명 분자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 내 놓고 적극적으로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협조하였다. 또 민족적 량심을 잃은 불건전한 분자들은 적들의 만행에 가담하여 나섰다.

원쑤들은 이와 같이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사상과 혁명에 대한 불굴의 신념을 말살하려고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당 및 인민 정권을 비방 중상하며 모독하며 인민들을 《원자의 위력》으로 위협 공갈하는 선전 선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그자들은 패주하면서도 많은 평화적 주민들을 총칼로 위협하여 몰아 내갔다.

원쑤들의 반혁명적 활동은 정전 이후에도 계속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고 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천인 공노할 이 반인민적, 반혁명적 행동에는 오직 무자비한 타격 만이 요구된다.

과도기에 있어서 원쑤들에 대한 진압—혁명적 폭력의 적용은 인민의 의사를 반대하는 그들의 반항의 정도와 정형에 달려 있다. 혁명적 폭력은 그것이 람용되여서는 안되며 또 응당한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여도 안된다.

레닌은 《혁명적 폭력과 독재는 만약 그것이 필요할 때 적용되며 또 그 누구를 반대하여 적용되는 때에라야만 훌륭한 물건으로 된다》라고 하였다. 《필요할 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혁명적 강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력사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계급적 력량 관계, 계급 투쟁의 현실적 첨예성, 사회적으로 위험한 해당 행위의 발현 정도와 그를 산생시키는 원인 등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당은 원쑤에 대한 진압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혁명적 폭력 적용에 관한 레닌의 명제에 엄격히 립각하고 있다. 당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계급적 력량 관계, 계급 투쟁의 현실적 조건을 타산하여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준엄과 관대, 징벌과 교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또 고

수하고 있다. 우리 당은 소수 악질 분자들은 고립시켜 타도하며 이에 유인된 자들은 관대히 포섭하여 교양함으로써 결국 적에게는 심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적들의 위협에 못이겨 반혁명의 길에 들어선 자들을 구원하여 우리의 혁명 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혁명의 전 행정을 통하여 일관하고 있다.

지나간 시기 특히 적들의 일시적 강점 시기에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여 악질적 행동을 감행한 자들 중에는 아직도 과거의 죄과를 뉘우치지 않고 당과 정부 정책을 중상 비방하며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대하여 은근한 기대를 걸면서 자기 죄과를 자백하여 나서지 않거나 기만적으로 죄과의 극히 일부분만을 자백하고 딴꿈을 꾸는 자들이 있다. 직접 적 첩보 기관에서 파견된 자들과 함께 이러한 분자들은 북반부에서 잔존하는 반혁명 분자들 중 골간을 이루고 있다. 이 자들의 죄악은 엄중하며 그에 대한 인민의 원한은 매우 크다.

반혁명에 가담했던 다른 일부 분자들은 그 죄악이 그리 엄중하지 않으며 반혁명 활동을 감행하였지 만 그렇게 완고하지는 않다. 이러한 자들은 반혁명 잔여 세력 중 동요하는 분자들인 바 일시적 후퇴 시기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혁명 활동에 참가하여 반인민적인 죄행을 범하였으나 우리의 정치적 공세가 가하여 지자 그자들은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 적지 않은 자들이 자기 죄과를 자백하여 나섰다.

다른 일부의 분자들은 적들의 위협에 못이겨 또는 맹목적으로 반혁명 분자들의 뒤를 따른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어떤 자들은 협박에 못이겨 반혁명 조직에 참가하였으며 어떤 자들은 우연하게 반혁명 파괴 활동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죄행이 극히 경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죄행을 솔직히 자백하고 다시는 반혁명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러한 실제적 형편에 근거하여 당은 계속 반혁명을 감행하는 악질적인 소수 두목들에 대하여는 철저히 폭로 고립시키고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며 무의식적 또는 피동적으로 범행에 유인된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자기 죄과를 반성하는 데 따라서 관대하게 포섭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과를 철저히 인식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인내성 있게 사회적 교양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이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준엄과 관대, 징벌과 교양을 적절히 결합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 목적은 바로 개조할 수 있는 일체의 사람들을 모두 다 사회에 유익한 사람으로 개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반혁명 세력을 근본적으로 숙청함에 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비록 법에 의하여 형에 처한 반혁명 분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정치적 교육과 로동을 서로 결합시키는 원칙에 기초하여 개조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반혁명에 가담하였던 분자들 즉 치안대 및 적 탐정 기관에 참가하였다가 자수한 자 및 기타 과거의 범죄 분자들 중 적지 않은 자들이 우리당 의 이 정당한 대책에 의하여 오늘은 안심하고 국가 및 사회 사업에 참가하고 있으며 자기의 죄과를 철저히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더욱 열성적으로 국가 사업에 참가하도록 포섭하며 교육함으로써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 및 조국의 사회주의 건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이 관대하게 포섭하여 교양과 방조를 주려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과를 사상적으로 접수함이 없이 반국가적 범죄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 자들도 아직 있다는 것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경계하여야 하며 이런 자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히 검토 적발하며 제재하여야 한다.

이런 자들을 묵과한다는 것은 적과의 융화를 의미하며 적에 대한 투항을 의미하며 반혁명 력량의 조장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상과 같이 혁명의 리익을 고려한 인도주의적인 당의 관대 정책의 본의를 옳게 리해하지 못하고 이를 외곡하면서 적대 분자들, 즉 엄중한 반혁명적 죄과를 범하였거나 명백하게 반혁명적 죄행을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끝만으로 이를 부인하거나 혹은 《회개》 하는척 하는 자들까지도 《관대》하게 처리하는 무경각성은 혁명에 대한 적지 않은 위험으로 된다. 이와 같은 경각성이 마비된 현상은 당의 혁명적인 관대 정책의 교조주의적 외곡을 의미하는 것이며 계급 투쟁의 몰각, 비계급성, 무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또 원쑤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반혁명과 종교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경험은 적들이 반혁명 활동에서 종교도를 리용하기 위하여 어떠서를 막론하고 그 모든 수단과 술책을 다하고 있으며 종교도는 그의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인하여 《예수의 신도》로 가장하는 적들의 모략에 기만당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일부 민족적 량심을 잃어 버린 락후한 교도들은 적들에게 리용당하였으며 또 당하고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적발되여 법적 처단을 받은 간첩 리 건호와 그 일당의 사건은 그의 특징적인 실례로 된다. 리 건호는 종교의 간판 밑에 숨어서 기독교 목사란 직업을 리용하여 오래 전부터 숭미 사상을 고취하며 당과 공화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동 선전을 감행하였다. 이자는 적들에 의한 일시적 강점 시기에 《반공 투사회》 중앙 본부 선동과장의 직에서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적들의 패주와 함께 월남하여 정탐 기관의 교육을 받은 후 흉악한 파괴적 임무를 받고 다시 공화국 북반부에 침입하였다. 그자는 간첩 행위를 감행하기 위하여 전전치 못한 기독교인들을 규합하다가 적발되였다.

그러나 종교인들의 일부가 반혁명 행동에 가담하였다 해서 종교인 일반을 반혁명과 혼동하는 것은 엄중한 오유로 된다. 종교 자체는 결코 인민을 반대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언제나 모든 비프로레타리아적 요소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인들과의 단결을 도모하며 그들을 방조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 하게끔 하는 방침을 실시하였으며 또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적들의 모략에 유인되여 종교의 간판 밑에 숨어서 반국가적, 반인민적 범죄 행위를 감행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다른 모든 범죄 분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를 철저히 제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반혁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당적 원칙성, 당 정책을 관철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가 주권 기관들에서 사업하는 일'군들 특히 내무, 검찰 기관들에서 사업하는 일'군들의 역할에 중요한 의의가 부여된다. 이 부문들에서 일하는 일'군들의 정치성, 계급적 원칙성과 경각성을 제고하며 계급 교양과 당 생활을 강화하여 간악한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무경각성, 무책임성, 무원칙성들을 발로하지 말게 하며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에 조우하여 당황 망조하여 좌우경적 오유를 범하는 일들이 없도록 그들의 정치 실무적 수준을 충분히 준비시키는 것은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또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은 국가 주권 기관들의 법적 활동에 만 국한되지 않으며 또 되여서는 안된다. 당은 이 투쟁이 전 당적,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때에라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것은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 원쑤에 대한 독재 자체가 인민의 절실한 리익을 대표하며 인민의 정의로운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민의 사업은 당과 주권 기관들 만으로써는 결코 완수할 수 없다. 때문에 광범한 군중은 당과 정부의 로선

을 지지하며 당 정책의 실현에 직접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협력하여야 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당은 반혁명을 반대하는 투쟁에 광범한 군중 특히 공장, 기업소, 농촌들에서 우리 당 대렬과 비당원 열성자 대렬을 발동시키며 모든 비프로레타리아 층까지도 발동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정치적 경각성과 계급 의식을 제고하며 반혁명 분자들을 간파 적발할 능력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 노력하고 있다.

당은 전체 조선 인민들의 머리 속에 남아 있는 일체 낡은 사상 의식의 잔재를 숙청하며 새로운 계급 의식, 사회주의적 의식으로 철저히 개조되는 것을 방조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사상 선전과 군중 교양을 광범히 조직하여 왔으며 특히 김 일성 동지의 2월 연설,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5차 전원 회의 및 1955년 4월 전원 회의 결정 실천을 위한 전 당적, 전 군중적 운동을 조직하여 왔다. 당이 취한 정확한 대책들은 인민 대중의 계급적 의식,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하였으며 원쑤와의 투쟁에서의 비타협성과 고상한 애국주의적 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리하여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형성 단련된 높은 혁명적 경각성과 인민의 조국에 적대하는 온갖 분자들에 대한 비타협성, 이것은 공화국 인민들의 영광스러운 특징으로 되고 있다. 전체 인민들의 혁명적 경각성이 제고되여 적과의 투쟁에서 군중의 눈초리가 더욱 예리하여진 까닭에 적들이 공화국 북반부에 교묘하게 잠입하였다가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여 마침내 자수한 사실들이 적지 않다.

우리는 달성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전 군중이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에 참가하게 하기 위하여 군중 속에서 계급적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혁명적 경각성을 제고하는 조직 정치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비롯한 일체 반혁명 분자들의 준동 형태, 그들의 교활한 활동 방법,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에서 군중이 획득한 경험들을 각종 집회들과 출판물, 강연 선전, 담화 등을 통하여 그리고 소설, 영화, 연극 등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군중 속에 철저히 해설 침투시키며 전체 군중을 당과 정부 주위에 굳게 단결시키기 위한 정치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임무로 되고 있다.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사업은 인민 대중 속에서 준법성을 제고하는 문제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여야 한다. 공화국에서의 인민 대중의 준법성은 인민 민주주의 제도와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려는 원쑤들의 활동을 좌절시키며 공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민 민주주의 법률 제도와 국가 및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는 기본 조건의 하나로 된다. 전체 인민들이 국가 비밀을 철저히 지키며 그 누구에게도 인민 민주주의적 법 질서에 대한 위반을 허용하지 말며 이 질서를 매개 공민들이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개 일'군들이 국가의 리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국가적 규률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당 및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에서 엄격한 질서와 제도와 규률을 확립하며 강화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간부 선발 배치 및 로력 수급 사업에서 고도의 경각성과 당적 원칙성을 고수하며 당 및 국가가 제정한 규정과 원칙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동과도 융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는 것은 파괴 분자들의 잠입을 방지하는 기본적 담보로 될 것이다.

현 시기에 있어서 원쑤와의 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당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이다. 국제 로동 운동의 력사적 경험들과 우리 당 내에서 적발 숙청된 박 헌영, 리 승엽 도당의 흉악한 죄행은 당 내의 종파들의 말로가 적과의 야합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8월 전원 회의에서 폭로 비판된 최 창익,

박 창옥 등 종파 분자들의 반당적, 반국가적 행동들도 국제적, 국내적으로 긴장된 시기에 결국 우리 인민을 반대하여 준동하는 적들에게 리익을 주었을 뿐이며 만약 그들이 기도하였던 반당적 책동이 실현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혁명 분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준동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는 당 내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종파 잔재들에 대하여 더욱 경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어떠한 책동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파에 가담하였던 자들에 대한 당적 훈련과 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종파의 온상으로 되는 자유주의, 가족주의, 개인 영웅주의, 출세주의 등 사상 잔재들을 철저히 근절하기 위한 당적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원쑤들의 준동은 웽그리야 사변과 관련하여 더욱 악랄하여지고 있다. 얼마전 공개 재판에서 리 승만 역도가 파견한 간첩 김 주익이 자백한 바와 같이 원쑤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도 웽그리야에서와 같은 피비린내 나는 류혈적 사태를 야기시키려고 망상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밀정 선발 대상으로서 토지 개혁 기타 민주 개혁들에 《불평》을 품고 남반부로 도주한 지주, 자본가, 친일파, 친민파들과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에 적극적으로 봉사한 반역자들과 숭미 사상을 가진 종교도들에게 손을 뻗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은 전쟁 시기에 그들의 악선동과 위협 공갈에 못이겨 끌려 나간 자들, 랍치해 간 자들, 포로들까지도 간첩, 파괴 공작에 리용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친일 친미 기분을 가진 분자들, 몰락 지주, 자본가들, 공화국에 죄를 지은 자들을 탐색하며 온갖 동요 분자 및 불건전한 요소들을 사촉 추동하여 반국가적 범죄에로, 반혁명에로 이끌려고 시도한다.

최근 원쑤들의 반혁명적 활동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미군의 장기 주둔을 위하여 《유엔군 사령부》까지 남조선에 끌어 들이려고 획책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미제 침략자들은 1957년 5월 7일 유도 무기로 장비된 미 공군 부대를 중국 령토인 대만에 주둔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였으며 5월 8일에는 대만에 있는 미제 침략군 군사 인원은 유도 무기 부대의 선발대가 대만에 도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미제 침략자—전쟁 방화자들은 국제 긴장 상태를 조성하고 격화시키며 전 세계에 유도 무기를 배치하여 그들의 수다한 군사 기지들을 원자 전쟁 기지로 전변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공화국 남반부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략탈적 살인적인 테로 통치하에 축적되고 가중된 산업과 농업의 황폐, 파괴의 결과로서 또 직접적인 략탈 행위의 결과로서 오늘 절량 농가가 100만에 달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비록 연명은 한다 할지라도 도시 농촌의 수백만 인민들과 실업자들의 처지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한편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3개년 인민 경제 계획의 성과적 완수로써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 수준은 현저히 회복 향상되였고 우리 당 제3차 대회 결정과 12월 전원 회의의 호소에 고무되고 있는 전체 근로자들은 당과 정부의 정책을 한결같이 지지하면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금년도 국가 계획 과제와 자기들의 증산 결의를 초과 수행하기 위하여 미증유의 정치적 로력적 앙양과 성과들을 보여 주고 있다.

점점 더 불리한 정세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반혁명들이 한편 점점 더 원자 무기의 힘에 매여 달리는 동시에 북반부에 대한 파괴 암해 공작을 강화하며 국제적 국내적으로 긴장 상태를 격화시키는 데서 출로를 찾으려고 발광

하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지난 시기에 그러하였던 바와 같이 적들이 제아무리 날뛴다 하더라도 공화국 인민 정권의 해당한 기관들의 활동과 인민 대중의 고도의 정치적 경각성에 의하여 원쑤들의 준동은 매 걸음마다 파탄되고 있다. 그러나 조성된 정세로부터, 적들의 격화되는 음모 책동으로부터 우리는 필요한 결론을 얻어야 할 것이다.

국내 및 국제적 분야에서의 현실은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제고함이 없이는, 원쑤를 반대하는 철저한 독재 없이는 인민의 자유와 민족적 독립도, 사회주의의 승리도, 혁명의 승리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 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953년 4월 전원 회의가 명백히 지적한 바와 같이 반혁명 분자들과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에 대한 성과적 진압은 국가의 경제 조직자적 역할과 문화 교양자적 역할을 더욱 성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모든 령역에 있어서 국가 관리의 성과적 수행과 일체 국가 생활의 민주화를 가일층 강화할 수 있게 한다. 반혁명 분자들과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에 대한 독재의 철저한 강화와 인민 대중을 위한 민주주의의 강화는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는 중요 조건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

김 인 성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는 전후 인민 경제 3개년 계획의 수행 과정을 총화하고 우리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심각히 분석한 기초 우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의 기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기본 건설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는 문제는 12월 전원 회의가 지적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기본 건설은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는 고정 폰드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서는 물자 및 재정 원천이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매우 긴장한 조건하에서 전년도와 대체로 동일한 규모의 기본 건설 투자가 예견되였다. 그러나 1957년에 우리는 그의 경제적 효과를 더욱 제고함으로써 주로 새기업소들의 건설과 기존 기업소들의 복구, 확장 및 개건을 보장하여 생산 설비에 대한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자재 및 재정적 원천이 긴장된 조건하에서 기본 건설 투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동일한 량의 기본 건설 투자를 가지고 1956년도보다 1957년도에는 더욱 많은 새로운 기업소들과 복구, 확장 및 개건된 기업소들이 조업을 개시하게 될 것인 바 이것은 사회주의 공업화의 템포를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의 현 조건하에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시키는 문제는 고정 폰드에 대한 급속히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의 유일한 원천으로 되는 축적의 장성과도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시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재 및 재정적 원천이 매우 긴장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보다 급속한 템포를 보장하는 수단의 하나로 되며 나아가서는 생산 수단 및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대중적 소비재 생산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의 하나로 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가 제1차 5개년 계획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경제적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원조 수입의 현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속도는 계속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과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 있다.

* *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 건설 투자액을 부문별로 분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 원칙들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1), 기본 건설 투자를 방향 별로 분배함

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정 폰드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면밀히 타산하고 그를 최대한도로 충족시키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정 폰드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에 대하여 기계적으로 기본 건설투자를 분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여기에 있어서도 반드시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경제적 효과를 타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부문별 분배에 있어서 경제적 효과의 타산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사회주의 진영내의 제 국가들과 경제적인 련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문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다는 것을 고려에 두어야 한다.

물론 기본 건설 투자를 부문별로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완전히 극복하고 자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 원칙으로 된다. 그런데 오늘 사회주의 진영내의 형제적 제 국가들 사이에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의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적 분업의 제 조건들이 조성되여 있다. 이러한 유리한 조건하에서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을 힘에 알맞게 선후차를 가려 가면서 계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분업의 유리한 조건을 옳게 리용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경제와 밀접히 련결되여 있는 형제적 국가들 특히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의 경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며 그것을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제 조건들과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 자체의 자연 조건과 기타 정치, 경제적인 조건에 비추어 극히 곤난한 부문들은 형제적 국가들의 협조 밑에 해결할 수 있도록 경제적 협조를 강화할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형제적 국가들에서 방조를 요구하는 부문이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민 경제를 발전시켜 형제적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건설 투자를 부문별로 분배함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경제발전의 자립성과 함께 우리 나라의 자연적인 조건들과 정치, 경제적인 제 조건들을 면밀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전망성이 풍부하며 우리 나라 인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유리한 부문에 집중적인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극히 일부 공업 자원 즉 콕스탄, 고무 등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연 부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중공업이나 경공업의 각이한 부문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건설 투자를 분배함에 있어서 풍부한 자연 부원을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공업 부문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매개 계획 기간의 기본 건설 투자를 분배함에 있어서 다만 한가지 경제 발전의 토대로 되는 자연 부원 만을 고려하는 것 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기본 건설 투자를 분배함에 있어서 자연 조건을 타산하는 동시에 또한 그 당시에 처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인 정세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력량을 타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록 우리 나라가 풍부한 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단시일내에 개발하여 운영할 만한 력량(기술 및 인재)이 없다면 그 부문에 기본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가 효과를 발생하기에는 장기간을 요하거나 또는 적은 효과 밖에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풍부한 자연 부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 기간에 소유하게 될 경험과 력량을 충분히 타산하여 투자의 선후차를 옳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본 건설 투자 분배의 선후차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생산물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이다. 기본 건설 투자액이 제한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모든 부문을 동시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우선 생산물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가 많은 부문에 우선적 투자를 예견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서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는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과 그 기본 과업들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기초하여 1957년도에는 인민 경제의 주도적 부문인 중공업 특

히 금속, 석탄, 전력 및 화학 공업 부문의 보다 급속한 발전을 예견하고 있다. 이 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서의 기본 건설 투자가 분배되였다. 그리하여 1957년도에는 1956년에 비하여 공업 부문 총투자액이 105%로 장성될 것인데 그중 금속 공업성은 126%, 석탄 공업성은 126%, 전기성은 113%, 화학 공업성은 112%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여 있다.

1957년도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본 건설 투자의 분배는 인민 경제의 자립성을 보장하며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연 부원 및 비교적 풍부한 경험과 현 시기에 있어서 이 부문 생산물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가 급격히 장성되고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2), 기본건설 투자를 부문별로 분배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인민 경제 부문간의 균형을 옳게 보장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기본 건설은 인민 경제의 물질적 토대로 되는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을 수행하는 것 만큼 장래의 인민 경제 부문간의 균형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기본 건설 투자의 분배에 많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계획 년도나 또는 계획 기간에 기본 건설 투자의 분배는 당의 총로선에 따르는 경제 발전의 전망을 옳게 타산한 기초 우에서 과학적으로 수립된 전망 계획에 예견되는 인민 경제적 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이한 생산물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년도의 기본 건설 투자를 분배함에 있어서 전망 계획에서 예견되는 인민 경제적 균형을 파악함이 없이는 고정 폰드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될 것이며 국가의 물자, 재정 및 로력 자원을 리용함에 있어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 부문간의 불균형을 조성함으로써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 템포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는 공업, 농업, 운수 및 기타 부문들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변화되는 생산물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정확히 타산하여 인민 경제의 균형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생산을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공업 발전의 급속한 속도에 따라 1958년 이후에 전력 발란스가 더욱 긴장될 것을 예견하고 전력 공업을 보다 급속히 발전시킬 것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전망 계획에서 예견되는 인민 경제적 균형의 변화는 기본 건설 투자의 분배를 규정하는 기본적 요인의 하나로 된다.

3), 기본 건설 투자의 부문별 분배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현존 설비의 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건설 대상을 설정하며 새로운 고정 폰드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는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도로 제고시키는 것을 토대로 하여 규정하는 데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건설 대상 설정에 있어서 선후차를 엄밀히 타산하여야 하며 현존 생산 설비의 기술적 장비를 개선하며 기존 설비들을 최대한도로 리용함에 집중한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라고 지적하였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기본 건설 투자가 극히 제한되여 있는 우리의 현 조건하에서 기존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의 빠른 템포를 보장하며 기본 건설 투자를 더욱 긴급하고 중요한 부문에 돌리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현존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생산물에 대한 장성하는 인민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며 따라서 고정 폰드의 확장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 없이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는 조건의 하나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존 설비의 리용률을 최대한도로 제고시키는 것은 기본 건설 투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리용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축적을 보다 빠른 속도로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성하여 준다.

그것은 기존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시킴으로써 한 부문 생산의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견되였던 기본 건설 투자를 보다 긴급하고 중요한 다른 부문에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되며 따라서 종국적으로는 동일한 투자로써 사회 생산물의 보다 급속한 장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제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의 물자 및 재정적 발란스가 극히 긴장된 조건하에서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인민 경제의 급속한 발전 템포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쟁취한 성과에 기초하여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급속한 속도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물자 및 재정적 자원이 요구된다. 더우기 형제적 국가들로부터 원조 수입이 현저히 감소된 것과 관련하여 그를 충당하기 위한 원천 면에서는 많은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추가적 투자 없이 또 투자를 적게 하고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바 기존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그의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된다.

설비의 리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설비의 가동률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둘째로 생산 조직의 개선 및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제고시키며 생산물의 원료로 되는 제품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설비의 가동 시간당 효률을 백방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설비의 리용률은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극히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다. 그것은 원료, 연료 및 전력 등의 보장이 원만하지 못하며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이 낮은 데로부터 설비의 사고가 많고 또한 정상적이고 적시적인 보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설비의 정지 시간이 많은 데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새로운 설비들을 원만히 리용할 만한 경험 있는 기술자, 기능자들이 매우 부족하고 원료 제품들의 질이 낮음으로써 설비의 가동 시간당 효률도 매우 낮은 형편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정은 현 시기에 있어서 기존 설비의 리용률을 급격히 제고함으로써 생산의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며 기존 설비 리용률의 제고는 원료, 연료 및 전력 등에 대한 생산적 수요의 적시적인 보장과 생산 조직의 개선, 생산자들의 기능 수준의 제고 등으로써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4), 기본 건설 투자를 분배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기본 건설의 형태별 구성을 충분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즉 고정 폰드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의 장성에 상응하여 기본 건설 투자를 분배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신설, 복구, 확장 및 개건을 엄격히 구분하여 타산하며 복구, 확장 및 개건의 가능성을 선차적으로 규정하고 다음에 신설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규정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신설에 비하여 복구, 확장 및 개건은 일반적으로 적은 투자로써 고정 폰드의 장성을 더욱 많이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일을 현저히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구, 확장 및 개건에로 분배된 기본 건설 투자가 신설에로 분배된 기본 건설 투자보다 인민 경제적으로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구, 확장 및 개건의 가능성을 충분히 타산하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를 규정한 다음에 신설에 대한 투자를 규정함으로써 설정된 기본 건설 투자액을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게 될 것이며 적은 투자로써 많은 고정 폰드들의 조업 개시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후 복구 건설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조건하에서 건설의 형태별, 즉 신설, 복구, 확장 및 개건별로 기본 건설 투자액을 계획화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적인 기업소들이 복구되였으나 아직도 많은 부문의 기업소들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지난 기간에 복구된 기업소들도 그를 더욱 확장함으로써 생산 능력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이와 같은 전후 특수한 제 조건들은 기본 건설 투자의 많은 부분을 복구, 확장 및 개건에 돌림으로써 동일한 투자액에 대해서 보다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계획에서 기본 건설 투자의 지표를 신설, 복구, 확장 및 개건별로 설정하는 것은 국가 계획 위원회가 기본 건설 투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지도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후 복구 건설 3개년 계획 기간에 국가 계획 위원회 기본 건설 계획부가 작성한 기본 건설 계획에는 이러한 지표들이 포함되여 있지 않다. 국가 계획 위원회가 작성한 1956년 및 1957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계획 작성에 관한 양식에는 1). 새 기업소 및 기관의 건설, 2). 기업소의 복구, 확장 및 개건, 3). 가행 중에 있는 기업소에 있어서의 대보수별로 지표들이 지적되여 있으나 신설, 복구, 확장 및 개건들을 구분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실제 계획에서 그 지표에 따르는 구분이 결여되여 있다. 이것은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가 제시한 기본 건설 투자의 효과를 제고시킬 데 대한 과업과 결부시켜 볼 때 시급히 시정되여야 할 것이다.

신설, 복구, 확장 및 개건의 구분에서 생기는 복잡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기본 건설의 계획화에 있어서 고정 폰드의 신 건설에는 새로운 건물 및 기업소들의 창설을 위하여 투하되는 기본 건설 투자가 속하게 되며 기능하고 있는 고정 폰드의 확장 및 개건에는 그의 기능범위의 확장 또는 기능의 성격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투하되는 기본 건설 투자가 속하게 된다.

고정 폰드의 복구 건설은 일반적으로 전후 복구 시기의 특징적인 기본 건설의 형태로써 파괴된 기업소들의 조업 개시를 위하여 투하되는 기본 건설 투자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복구를 위한 기본 투자는 기능하고 있는 기업소들의 구성 중에서 부분적으로 파괴된 건물 및 기업소들에 대하여 진행될 수도 있고 또는 그의 혹심한 파괴로 인하여 완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기업소에 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다.

우리 나라의 전후 시기에 있어서 신설, 복구, 확장 및 개건을 위한 기본 건설 투자의 구분에서 제기되는 복잡성은 우리 인민 경제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정도가 매우 혹심하며 또 파괴된 기업소들의 복구 건설이 원상대로가 아니라 현재 선진적인 과학과 기술이 도달한 성과에 기초하여 전쟁 전보다 높은 기술적 토대 우에서 개건의 성격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되여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기본 건설 투자 구분에서의 복잡성이라는 것은 신설과 복구를 구분하기가 힘들고 또 복구와 확장 및 개건을 구분하기가 곤난하다는 데 있다. 우리가 기본 건설 투자 계획을 신설, 복구, 확장 및 개건의 지표에 의하여 작성함에 있어서 기본 건설 투자의 효과성의 측면에서 구분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즉 종전에는 기업소 또는 건물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존 설비 및 건물의 흔적이 전혀 없어졌음으로 완전히 신설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신설로써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 전에 기업소 또는 건물이 있었고 전쟁에 의하여 대부분, 혹은 일부가 파괴되였음으로 완전히움직이지 못하거나 또는 일부분 만이 움직이고 있는 조건하에서 기존 설비를 일부나마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복구 건설로 구분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기능하고 있는 고정 폰드의 확장 및 개건은 전쟁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았거나 또는 전후에 새로 건설 및 복구된 기업소들로써 그 기능의 범위를 확장하든가, 기능의 방향을 변경시킬 목적으로 투하한 기본 건설 투자를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써 기본 건설 투자 계획을 건설 형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면 기본 건설 투자액의 분배와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국가 계획 위원회 측으로부터의 통제와 지도에 있어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국가 계획 위원회는 기본 건설 투자를 인민 경제 부문별로 또는 성(국)별로 분배함에 있어서 복구, 확장 및 개건의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리용할 수 있도록 자극함으로써 우리 당 8월 전원 회의와 12월 전원 회의가 지적한 바

와 같이 기본 건설 투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 국들이 제기하는 신설 대상들의 착공을 엄밀히 검토하고 현 시기에 있어서 극히 긴절한 대상의 조업 개시를 촉진하도록 투자를 집중시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

다음으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건설의 속도를 높임으로써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문제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는 투하된 물자 및 재정적 자원들이 건설 과정에서 사장된 기간이 단축되면 될수록 제고된다. 투하된 물자 및 재정적 자원의 건설 과정에서의 사장 기간을 최대한도로 축소하기 위하여서는 기본 건설에 의하여 조성되는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가능한 한도로 단축시켜야 하는 바 이것은 사회주의적 축적의 새로운 원천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기본 건설의 속도를 제고시켜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제 과업들을 반드시 해결하여야 한다.

1), 그것은 첫째로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기본 건설에 있어서 투자의 분산성을 방지하고 중점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보장하는 동시에 건설 대상에 따라 그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엄밀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투자의 선후차를 정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기본 건설 투자의 분산성은 건설 력량의 분산을 초래케 함으로써 건설의 속도를 현저히 지연시키게 되며 따라서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연장시키게 된다.

우리는 지난 기간에 기본 건설 투자의 분산성으로 인하여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현저히 연장시킴으로써 생산적 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막대한 지장을 준 사실들을 알고 있는 바 그의 대표적인 실례를 교통성 산하 철도 공장의 건설을 위한 기본 건설 투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통성 산하 원산 철도 공장과 서평양 철도 공장은 각각 동일한 설계 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설 대상인 바 세심한 경제적 타산과 건설 력량을 고려함이 없이 두개의 공장 건설을 동시에 착공하여 기본 건설 투자를 분산시켰다. 그 결과 1957년 1월 1일 현재로 서평양 철도 공장 건설에는 설계 견적 가치의 57%가 투하되였고 원산 철도 공장 건설에는 50%가 투자되였다. 그리하여 이 두 공장 중에서 어느 한 공장도 조업을 개시하지 못하였는 바, 만일 기본 건설 투자를 그중 어느 한 공장 건설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면 195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한 공장은 조업을 개시하였을 것이며 그 공장에서 예견되는 생산물은 이미 생산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금속 공업성 산하 황해 제철소 용광로 복구 사업의 지연은 인민 경제적 수요의 긴급성에 따라 기본 건설 투자의 선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지 못한 실례로 된다. 즉 계획에 의하면 1956년도에 황해 제철소에는 용광로 한 개를 조업 개시하도록 예견되여 있었다. 그러나 해당 부문 일'군들이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성을 충분히 료해함이 없이 투자의 제한성에 만 구애되여 공사의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건설 력량을 집중시키지 않은 결과 용광로 조업 개시에 적지 않은 지연을 가져 오게 하였다.

이와 같은 실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 건설 투자의 분산성과 인민 경제적 긴급성에 따르는 선차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의 결여는 조업 개시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투자의 생산적 효과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는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 대상에 대한 집중적이고 선차적인 투자를 보장함으로써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단축시킬 것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1957년도의 기본 건설 투자가 극히 제한되여 있는 조건하에서 중요하고 긴급한 건설 대상에 대한 중점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는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히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므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지도 일'군들은 분배 받은 기본 건설 투자액을 리용함에 있어서 고정 폰드 장성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엄밀히 타산하고 극히 긴급하고 중요

한 건설 대상들에 집중적이고 선차적인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투자의 생산적 효과를 될수록 빠르게 발현할 수 있도록 백방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중요한 건설 대상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건설 자재, 로력 및 건설 기계들을 집중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줌으로써 건설 기간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로력 및 건설 기계의 리용률을 현저히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2),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적시적인 설계의 보장과 설계에서 불필요한 예비를 근절하는 문제이다.

건설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건설의 엄격한 질서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설에 앞서 우선 그에 대한 설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설계 없이 건설 사업을 진행한다면 건설의 조직에서 많은 불합리적인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 자재 및 로력의 적시적인 보장에 곤난을 가져 오게 함으로써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저해하며 따라서 건설의 속도를 불가피적으로 지연시키게 될 것이다.

지난 기간에 있어서 일부 기본 건설 투자 계획이 수행되지 못하였고 조업 개시 기일을 지연시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설계 문건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한 데 있었는 바 황해 제철소에서는 1956년 건설 대상에 대한 설계를 1956년 12월에 와서야 비준하였으며 홍산 토관 공장 건설 공사에서는 1956년도 2.4분기까지 공사 계획량의 60%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문건은 한건도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조업 개시를 예정한 기일내에 실시하지 못하게 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석탄 공업성 산하 적지 않은 건설장들에서는 전반적인 설계는 고사하고 기술 과제들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 바 고원 탄광, 안주 탄광, 덕천 지구 개발 등 중요한 갱들이 1955년도부터 건설에 착수하였으나 1956년도 말 현재까지도 기술 과제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설계 보장면에서의 이러한 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당과 정부는 지난 기간에 깊은 주의를 돌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실시하였다. 결과에 설계 기관들이 현저히 확장 강화되고 그의 작업량은 1956년도에 와서 1954년에 비하여 3배 이상으로 제고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건설 대상에 대한 설계 문건의 보장은 현저히 뒤떨어져 있다. 1957년도 계획에서 예견된 건설 대상중 계획 작성 당시에 극히 적은 부분 만이 설계 문건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타 적지 않은 부분의 건설 대상이 설계 문건 없이 계획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1957년도에 있어서 많은 건설 대상들의 설계 문건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조업 개시 기일을 지연시킬 수 있는 우려성을 시사하는 바 건설 설계의 적시적인 보장을 위한 투쟁은 오늘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1957년도 인민 경제 계획에서 설계 문건의 적시적인 보장은 건설의 속도를 현저히 빠르게 할 것이며 기본 건설 투자의 생산적 효과를 제고시키는 데 거대한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 부문 일'군들은 이를 적시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건설 대상의 조업 개시 기일을 단축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설계에서 불필요한 예비를 근절하는 것인 바 이는 또한 기본 건설 투자의 절약을 위하여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지난 기간에 있어서 설계에서 불필요한 예비와 장식을 허용함으로써 조업 개시 기간을 상대적으로 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자원의 막대한 랑비를 초래한 사실들이 있다. 례를 들면 1955년 평양 국제 호텔을 건설함에 있어서 장식비는 총 건설 조립 작업비의 7%에 달하였으며 평양 역사 건설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예비와 장식비가 건설 조립 작업비의 14.4%를 차지하였는 바 다만 시계탑을 위하여 3 780$м^3$의 용적(연 630$м^2$)의 예비를 조성하였다.

그러므로 1957년도 기본 건설에 있어서는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의 정신에 립각하여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투쟁의 하나로서 설계에서 예비를 철저히 근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설계에서 예비의 근절은 건설 대상의 조업 개시 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건설에서의 랑비를 현저히 축소시킴으로써 고정 폰드의 보다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게 된다.

3) 고정 폰드 조업 개시 기간의 단축은 건설 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긴밀히 련결되여 있다. 우리 나라에서 고정 폰드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의 장성에 상응하여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김 일성 동지는 우리 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정은 우리 건설 사업을 반드시 선진적이며 새로운 방법, 즉 공업적 방법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교시하였다.

강력하고 선진적인 기술로써 장비된 건설 공업이 없이는 우리 나라에서 기본 건설의 급속한 장성 템포를 원만히 보장할 수 없다. 건설 공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건설 조직의 완성과 그의 고정 폰드의 확장을 의미하며 건설에서 공업적 방법의 광범한 적용, 건설 작업의 종합적 기계화의 도입, 건설에서의 설비 리용률의 제고 및 기능 수준이 높은 정상적인 건설 일'군들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들이 건설 공업의 발전을 계획화함에 있어서 반드시 류의해야 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공업 부문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즉 건설 공업이 다른 부문들과 구별되는 특성의 하나는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정상적인 변경이다. 다른 공업 부문들이 비교적 동일한 생산적 조건에서 동일한 생산 과정을 반복하는 데 비해서 매개 새로운 대상의 건설은 새로운 생산적 조건과 새로운 장소에서 진행되게 된다.

또 하나의 다른 특징은 건설 공업의 생산물은 상당한 정도까지 개별적 성질을 띠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건설 공업의 생산물들은 비교적 장기간을 통하여 완성되는 개별적인 건물 및 설비들이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건설 공업을 계획화함에 있어서도 특수한 곤난성들에 봉착하게 된다. 이와 같이 건설 공업은 생산 과정의 조건과 생산물의 성격에 의해서 만 다른 공업 부문들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산 조직과 기술적 장비의 일반적 수준이 낮은 것으로도 구별된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우리 나라에 있어서 건설 공업이 방금 발전 초기 단계에 놓여 있다는 데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건설 공업은 특히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그의 력사가 극히 짧은 까닭에 생산 과정의 조직에 있어서 경험이 적고 기술 수준은 극히 낮은 형편에 처하고 있다.

우리 당 제3차 대회에서 제시한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건설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중점적인 주의를 돌려야 할 것이다.

건설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위탁 건설 기관을 광범히 조직하고 강화 발전시키는 동시에 구체적인 조건을 타산하여 가능한한 그를 작업 형태에 따라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되는 위탁 건설 기관은 건설 트레스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 방법에 의한 건설을 확장하기 위하여서는 건설 트레스트를 더욱 확장하여야 하며 건설 트레스트의 고정 폰드를 확장하여야 한다.

건설의 속도를 빠르게 하며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건설 트레스트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건설 작업의 형태에 따라 그들을 전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적인 건설 트레스트의 강화 발전은 건설 일'군들의 기능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킴으로써 건설의 속도를 빠르게 하며 질을 현저히 제고시키는 데 봉사할 것이다.

다음으로 건설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건설 과정의 기계화이다. 건설 과정의 기계화는 우리 나라에서 많은 손로동을 기계로써 대체함으로써 로동력을 절약하며 동시에 건설의 질과 속도의 제고를 보장

한다. 특히 건설 과정을 기계화함에 있어서 품이 많이 들고 힘든 로동의 기계화가 제1차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기본 건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수 많은 로동력이 이 부문에 투하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건설 작업의 약간한 부문이라도 기계화한다는 것은 거대한 량의 로동력을 절약하는 것으로 될 것이며 따라서 이 로동력을 다른 부문에 돌림으로써 물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현 계단에서 기계 공업이 발전되지 못하고 건설의 경험이 비교적 적은 조건하에서 건설 작업의 기계화는 힘에 알맞게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기계화는 하루 아침에 다 될 수 없는 일이며 일정한 시일이 요구된다. 때문에 기계화는 당장에라도 실행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 소규모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본 작업으로부터 보조 작업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적이며 선진적인 기계화로 이행하여야 한다》(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진술한 중앙 위원회 사업 총결 보고).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 건설 공업 발전에서의 기계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써 건설의 현대적인 대기계화 만을 운운하고 우리들의 힘에 알맞게 점차적으로 소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 실질적으로 건설 로동자들을 힘든 로동으로부터 해방시키며 로동력을 절약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려 하지 않는 경향들과 강력히 투쟁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들의 건설 작업 과정에는 손 쉽게 당장에라도 기계화함으로써 로동력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동력을 대규모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현대적인 대기계화 만을 꿈꿀 것이 아니라 소기계화로부터 점차적으로 대기계화에로 이행하도록 모든 로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기의 건설 과정의 기계화에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선차적인 문제는 소기계화이며 이는 우리 나라 건설 과정의 기계화 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건설 공업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건설에서 조립식 방법의 광범한 적용이다. 건설의 공업적 방법에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조립식 방법은 건설에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을 현저히 제고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즉 공장에서 준비된 건설 자재들의 리용을 토대로 하는 조립식 방법의 적용은 모든 건설 과정을 준비된 자재들의 조립의 과정으로 이행시킴으로써 건설 생산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건설에서 조립식 방법의 적용은 우선 건설장에서의 건재의 준비 과정을 제거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르는 작업 과정의 복잡성이 현저히 축감되게 될 것이다. 작업 과정에서의 복잡성의 제거는 건설 작업량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로 인해서 기본 건설에서 로동 생산 능률의 현저한 제고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건설에서 조립식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설계의 표준화, 건설 부재의 규격화 및 그의 생산의 공업화가 전제 조건으로 된다.

설계를 표준화하여 그를 동일한 종류의 건설 대상에 적용함이 없이는 공업적 방법에 의한 건설 부재들의 대량 생산이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조립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적인 설계의 작성과 그를 건설에서 적용함으로써 건설 부재들을 규격화할 수 있으며 규격화된 건설 부재들을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표준적인 설계의 작성은 조립식 방법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건설 대상들에 대한 설계의 보장을 더욱 용이하게 하고 설계 사업에서 막대한 로력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우리 나라에서 지난 3개년 계획 기간내에 주택, 공공 건물들을 비롯하여 16건에 달하는 표준 설계들이 건설에 적용되였으며 1956년도에는 중요 성(국)들에서 표준 설계 및 반복 설계를 적용한 건설 대상이 3 822건에 달하였

는 바 이로 인하여 설계 사업에서 근 4 783만 원에 달하는 국가 자금과 연 95 915명의 설계 로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건설 대상에 대한 설계들이 작성되지 못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표준 설계의 작성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금후에 있어서는 다만 주택, 보건 및 문화 시설들과 공공 건물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능한한 공장 건설에서도 표준 설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조립식 방법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 사업에서 표준 설계의 광범한 적용은 건설 부재를 규격화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되며 규격화된 건설 부재의 대량적인 생산이 없이는 조립식 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건재 공업의 전문적인 공장들과 건설 기관들에 속하는 공장들에서의 건설 부재들의 대량적인 생산은 건설에서 품이 많이 드는 로동 과정을 용이하게 하며 건설의 실질적인 공업화를 위하여 제1차적인 역할을 놀게 된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표준적인 설계들이 광범히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설 부재를 생산하는 전문적인 공장들을 가일층 발전시키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4), 건설의 속도를 빠르게 하며 고정 폰드의 조업 개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건설 부재들을 종합적으로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집중적인 투자와 투자의 선후차가 보장되며 설계가 보장되고 또 건설 공업이 발전되여 건설 과정의 기계화 수준이 제고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 부재들의 종합적이고 적시적인 공급이 없이는 건설의 급속한 속도를 보장할 수 없다. 만일 건설 부재들을 종합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거나 적시에 공급하지 못한다면 건설 과정은 정지되거나 또는 지연될 것이며 따라서 건설 기계의 리용률이 저하되고 로동력을 놀리게 됨으로써 막대한 물자 및 재정적 손실을 초래케 할 것이다. 특히 건설의 경험이 부족하고 대규모적인 건설 작업이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건설 부재들의 종합적이고 적시적인 보장을 위한 투쟁은 건설 일'군들의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 *

다음으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건설의 질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대규모적 건설이 광범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기본 건설의 질이 락후한 점들을 볼 수 있다.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의 제고는 건설의 빠른 속도에 의해서 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된 고정 폰드의 리용 기간과도 관련되여 있다. 고정 폰드의 리용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기본 건설의 질을 제고시키는 문제는 건설 조립 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과 건설 부재들의 품질에 많이 의존된다. 그러므로 건설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 제고와 건설 부재들의 품질 제고는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마지막으로 현 시기에 있어서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현저히 제고하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지방 자재를 광범히 리용함으로써 건설 자재의 수송 거리를 단축시키는 것이다. 지금 기본 건설이 대규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건설 자재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량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건설에서의 자재의 대량적인 요구는 건설장으로 그것들을 운반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건설 자재의 수송비는 막대한 액에 달하는 바 지방 자재의 광범한 리용은 수송비를 축감시키고 건설 가치를 저하시킴으로써 인민 경제에 막대한 리익을 줄 것이다. 지방 자재를 광범히 리용하고 건설 자재의 수송비를 축감시키기 위하여서는 건재 공업의 지리적 배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는 바 공업 발전의 전망과 기본 건설의 지리적 배치에 기초하여 건재 생산 공장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들은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우리 나라 경제 발전에서 화학 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의 발전 전망

리 천 호

우리 당은 인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배려를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은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은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지도함에 있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농촌 경리와 경공업을 동시에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으로써 전쟁으로 인하여 령락된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 정책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와 경제적 형편을 옳게 타산한 기초 우에서 우리 인민의 현실적 요구와 인민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가장 정당하게 반영한 것이다.

전쟁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산업 시설들이 혹심히 파괴되고 도시와 농촌이 폐허로 된 조건하에서 복구 건설에 들어 선 우리 당은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자체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그의 기초로 되는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력량을 집중하면서 인민 생활 향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농촌 경리와 경공업의 발전을 동시에 촉진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향리품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하여야 하는 바 그것은 소비재의 생산을 위한 생산 수단 생산의 장성이 없이는 기대할 수 없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식량을 증산하기 위하여서는 농기계, 농약, 비료가 대량적으로 요구되며 비료와 농기계의 대량적 생산을 위하여서는 화학 공업, 전기 공업, 기계 공업, 금속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켜야 한다.

집을 많이 짓기 위하여서는 세멘트, 벽돌, 목재, 철근이 대량적으로 요구되는 바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역시 화학 공업, 건재 공업, 림업, 제철 공업이 급속히 발전되여야 한다.

옷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직 공업도 기계 공업의 발전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특히 자연 섬유가 부족한 우리 나라에서 화학 섬유의 대량적 생산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하여서는 화학 공업, 전기 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는 기본 방향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지향하는 자기 활동의 최고 원칙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리론적으로나 또는 지나간 기간의 실천을 통하여 그의 정당성이 명약 관화하게 증명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창익, 윤 공흠을 비롯한 일부 종파 분자들이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원칙에 립각한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을 비방한 것은 오직 그들의 타기할 종파적 목적을 엄폐하기 위한 고의적 외곡이며 중상적 독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들의 이러한 음흉한 시도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몸소 체득한 우리 근로 대중의 한결같은 증오와 규탄을 받았으며 제때에 폭로 분쇄된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인민의 복리를 급속히 증진시키며 그들의 의식주 문제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에 기본 방향을 둔 우리 당 경제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 화학 공업

이 차지한 위치와 그가 담당한 임무는 비상히 크고 무거우며 따라서 그가 놀아야 할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화학 공업의 발전에 커다란 관심을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미제의 야수적 침공과 만행에 의하여 재'더미로 화하였던 우리 나라 화학 공업 시설들이 급속한 시일내에 복구되였을 뿐만 아니라 전쟁전 규모보다 더 확장 또는 신설되여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을 위한 방대한 수요에 지체 없이 수응하고 있는 화학 공업 부문들의 달성한 오늘의 빛나는 성과는 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이 정확하였다는 것을 실증해 주는 것이다.

*　　*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우리 인민들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킴으로써 식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그것이였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당과 정부는 전후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 대책을 제시하면서 농촌 경리 발전 특히 알곡 증산의 기본 조건의 하나로 되는 화학 비료와 농약 생산을 위한 화학 공업의 복구 발전에 심대한 주의를 돌리였다.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은 당의 정책을 받들고 자기들의 애국적 열성과 창조적 적극성을 발양하여 혹심한 전쟁 상처를 입은 흥남 비료 공장을 비롯하여 기타 화학 공업 기업소들을 복구 건설하는 투쟁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순천 석회 질소 비료 공장 및 본궁 화학 공장들에서는 3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4년부터 석회 질소 비료를 생산하여 농촌에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1955년 8월에 흥남 비료 공장 류안 직장의 제1기 복구 공사를 완수함으로써 1956년에 와서는 19만 3천 여 톤의 화학 비료를 농촌에 공급하였다.

또한 농촌 경리 발전에 필요한 농약 생산도 3개년 계획 기간에 실시되였는 바 본궁 화학 공장에서는 매년 3 000톤의 헥사클로란을 생산하게 되였다.

화학 공업의 생산 발전은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촌에 화학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알곡 증산을 보장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물론 우리 당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적인 관개 하천 공사의 추진, 선진 농기계의 공급 등 농업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였으며 농업 협동 조합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였다. 더구나 화학 비료와 농약을 생산 공급하기 위한 화학 공업 부문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알곡 증산을 보장하며 농촌 경리 발전의 물질적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화학 공업 부문의 생산 발전을 촉진하는 데서 뿐만 아니라 화학 공업이 인민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옳게 타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되는 부문들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정당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주는 것이다.

화학 공업의 발전은 우리 나라의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들을 복구 건설하는 데 더 많은 쎄멘트를 공급함으로써 건설 공사를 촉진시키고 있다.

전쟁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고무산, 천내리, 승호리, 해주, 마동 등 5개의 쎄멘트 공장들이 복구됨으로써 1956년에 와서는 1949년에 비하여 111%에 해당하는 59만 7천 여 톤의 쎄멘트을 생산 공급하였다. 쎄멘트 생산의 증대와 아울러 스레트와 소석회 생산도 급속히 복구되였다.

그리하여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이 복구 건설한 수 많은 공장과 기업소, 도로와 교량, 대 소 규모의 관개 공사, 학교, 병원, 극장을 비롯한 문화 교육 보건 시설들과 새로운 주택들의 복구 건설은 화학 공업 부문에서 쎄멘트, 스레트, 소석회 등 건재 제품들의 생산이 복구 증가되는 데서 더욱 촉진되였다.

화학 공업의 발전은 염산, 탄산 소다, 표백분, 가성 소다 등 산 및 알카리 공업 제품들의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화학 공업 자체의 발전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견직 및 방직 공업, 식료품 공업, 유리 공업 부문들의 발전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작용을 놀고 있다. 특히 가성 소다, 표백분은 대외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외화 획득의 원천으로 되였다.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화학 공업 부문에서 카바이드 생산을 확대한 사실은 커다란 인민 경제적 의의를 가진다. 카바이드는 석회 질소 비료, 아세찌렌부랙 등 중요 화학 공업 제품의 원료로써 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창설될 유기 합성 공업을 위하여서도 커다란 역할을 놀게 될 것이다.

또한 화학 공업은 프라스트마스 공업 제품인 각종 공업 설비 부속품, 전기 부속품, 유색 금속 대용품, 자동차 부속품 등과 각종 페인트, 비누, 도료 및 유지 공업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전기, 선박 건조, 기계 제작 공업, 교통 운수 기타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화학 공업은 이상과 같이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한편 우리 인민의 보건 향상을 위한 제약 공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직접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해방 전에는 거의 그 토대가 없었던 우리 나라의 제약 공업은 당의 옳바른 령도하에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였는 바 그것은 현재 각종 주사약, 생약 제제류, 고약류, 무기 및 유기 합성 제제 등 각종 약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그리하여 얼마 전까지도 대외 수입에 의존하던 가정약과 수 많은 치료 제제들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인민 보건 사업에 기여하는 한편 적지 않은 외화를 절약케 하고 있다.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우리 당은 화학 공업 부문 기업소들을 복구하며 그의 생산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힘을 돌리였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나라 전체 공업 부문에 399억원의 투자를 하였는 바 그중 52 여 억원이 화학 공업 부문에 투하되였다.

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당의 이와 같은 배려와 로동자, 기술자들의 창조적 적극성에 의하여 3개년 계획에 예견되였던 기본 건설 계획은 110.5%로, 공업 생산 계획은 122.4%로 초과 실행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학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은 인민 경제 타부문의 복구 발전을 위하여 직접적, 간접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실로 거대한 작용을 놀았다. 이것은 화학 공업이 인민 경제 발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의 중요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우리 당이 화학 공업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력량을 경주하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화학 공업은 아직도 일부 품종들에서 전쟁전 수준에 도달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 품종에 있어서도 극히 국한된 상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나라 발전의 인민 경제적 요구와 인민 생활 향상을 위한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의 주되는 원인은 전쟁의 피해가 화학 공업 부문에 특히 혹심하였으며 아직도 일제가 남겨 놓은 식민지적 편파성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은 우리 당 3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수행하는 길에서 화학 공업 발전을 위한 풍부한 자원들과 유리한 조건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화학 공업 부문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술적 락후성을 퇴치하는 한편 생산 예비를 적극 동원 리용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화학 공업 부문에서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 화학 공업은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른 경제 부문들에 더 많은 방조를 줄 수 있으며 인민 생활 개선 향상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하는 데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 *

우리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량곡, 직물, 주택, 기타 생활 필수품 등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중공업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 중에서도 화학 공업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것》 (김 일성)을 타산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은 화학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 화학 공업 부문에서 화학 비료와 농약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것을 농촌에 대량적으로 공급하여야 만 알곡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김 일성 동지는 《5개년 계획 기간에 흥남 지구에서 적어도 1년에 류안 비료 25만톤, 질안 비료 13만 6천톤, 과린산 석회 약 15만톤, 석회 질소 3—4만톤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교시하면서 《전체 힘을 비료 공장 복구 또는 질안 직장 건설에 돌려야 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금년 중으로 비료 공장 복구와 질안 직장 건설을 완성하자는 것이 당 중앙의 방침이다. <모든 것을 비료 공장의 복구 건설에 복종시키라>우리의 구호는 이렇다》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우리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이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반드시 실천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다.

비료생산에서 류안 비료 생산을 년 25만톤으로 규정하고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현재 건설중에 있는 질안 비료의 생산을 예견한 것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아주 유리한 것이다. 질안 비료는 순전히 물과 공기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데 그것의 효능은 류안 비료에 비하여 1.7배나 된다.

과린산 석회의 생산을 예견한 것도 절실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과거에 린비료를 생산한 경험에 기초하여 흥남 비료 공장에 남아 있는 기존 시설들을 복구 확장하는 한편 남포 및 문평 제련소 굴뚝에서 나가는 아류산 가스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과린산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질소 비료와 린비료의 생산과 아울러 가리 비료의 생산을 준비하는 문제도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비료 문제와 아울러 농약 생산 문제도 우리 나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헥사클로란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는 바 본궁 화학 공장에서 해당 시설을 계속 확대하여 1959년에 가서는 그의 생산 능력을 약 배로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염화 바륨, 호로마링 등 농약들의 생산을 증대하며 디디띠의 생산 준비도 완전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화학 공업은 우리 나라에서 섬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도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한다. 화학 섬유는 일반적으로 자연 섬유에 비하여 계절적 제약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생산비도 적으며 그의 질도 우월하다. 그러므로 선진 국가들에서는 자연 섬유가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나라들에서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자연 섬유가 부족한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화학 섬유 공업을 창설 발전시키는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김 일성 동지는 《정부는 명년부터라도 초산 비닐 공장 건설에 투자를 실시할 것이며 앞으로 염화 비닐 공장 건설도 예견하고 있다.…초산 비닐을 생산하여야 섬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교시하였다.

우리는 이 교시 실천을 위한 조직 기술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는 동시에 카바이드 공업, 화학 섬유 공업에 필요한 유기 합성 공업의 기초와 경험, 이를 위한 기술 인재 등 화학 섬유 공업을 창설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을 강력히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전쟁 시기에 합성 섬유를 공업화할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실천하는 길에서 일산 20키로 그람의 능력을 가진 시험적인 장치를 통하여 연구를 거듭하여 왔는 바 현재는 일산 200키로 그람의 중간 시험 공장을 건설하여 래년초부터 조업을 개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 섬유 생산을 공업화하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 생산 공정을 합리적으로 하여 제품의 질과 원가를 저하시킬 데 대한 문제, 원료 보장 문제, 건설용 자재 및 설비 보장에 관한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들은 모두 기술 문제와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는 만큼 그의 성과적 해결을 위하여 우리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은 선진 기술을 창조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꾸준한 연구를 계속하여야 한다.

화학 섬유 공업의 창설 발전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고무를 비롯한 각종 유기 합성 공업 발전을 위하여서도 큰 의의를 가지는 만큼 더욱 그러하다.

화학 공업은 5개년 계획 기간 특히 1957년과 58년 량년간에 건재를 대대적으로 생산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쏘련의 원조에 의한 신마동 쎄멘트 공장을 건설하며 승호리와 해주 쎄멘트 공장을 복구 확장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오늘 쎄멘트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는 실로 크다. 우리 나라 공업의 급속한 발전, 사회주의적 농촌 경리의 장성, 인민 생활의 계속 부단한 향상 등 이 모든 사실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공업과 농업에서 더 많은 건설을 요하게 되였다.

기본 건설 규모의 확대와 속도의 장성은 더 많은 건재품들을 요구한다. 목재가 부족한 우리의 조건하에서 쎄멘트를 더 많이 생산 공급함으로써 대규모의 공장, 관개 시설, 항만 시설, 도로, 교량 등과 교육, 문화, 보건 시설들은 물론 도시와 농촌에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건재들을 보장하며 갱목, 전주, 침목 등과 농민들의 생산 시설을 축조하는 데 소요되는 쎄멘트도 공급하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 해주 쎄멘트 공장의 3호 소성로를 완전히 복구하며 천내리 쎄멘트 공장의 반습식 소성로를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쏘련의 원조에 의하여 건설중에 있는 마동 쎄멘트 공장 건설 공사도 1959년말까지 완공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조업중에 있는 쎄멘트 공장들에서는 생산 예비를 적극 동원하고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쎄멘트 생산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쎄멘트 공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그의 질을 제고하며 품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단일 품종의 쎄멘트 생산 만으로써는 앞으로 확대될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다종 다양한 건설 공사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례하면 많은 화학 공업 기업소들과 제호 건설장들에는 산 및 알카리에 견딜수 있는 쎄멘트가 요구되며 수중에서 공사하여야 할 수력 발전소, 관개 시설, 항만 건설장들에는 수경성이 보다 속한 쎄멘트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우리 인민의 보건상 필요한 제약 공업을 발전시키고 있는 바 5개년 계획 기간에 제약 공장들의 기술적 장비를 개선 강화하는 한편 루마니야의 원조에 의하여 현재 건설중에 있는 순천 제약 공장을 완공하여 국내 생약 원료 원천에 의한 깔레 누스제를 더 많이 생산하며 화학 공장들과 기타 기업소들에서 산출되는 완제품과 중간 제품들 각종 부산물과 폐설물들을 주원료로 하는 각종 무기 및 유기 합성 제제를 대량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가성 소다, 각종 프라스트마스제품, 도료 및 유지 공업 제품, 각종 시약품들이 더 많이 생산될 것이며 염료 공장이 창설되게 될 것이다.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화학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 과업

을 성과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 화학 제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으며 농촌에 매년 60 여만 톤의 화학 비료를 생산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논과 밭에서 알곡 생산을 증대시킴으로써 식량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민 생활 개선 향상을 최고 원칙으로 하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의하여 부단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화학 공업의 발전 전망은 광활하며 그것은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더욱 크게 복무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 침략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화학 공업이 여지 없이 파탄되고 일제 때부터 빈약하던 조그만한 산업 시설조차도 전력, 원료, 자금의 부족 등으로 폐쇄 령락되여 가고 있다.

남조선 산업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략탈의 강화는 남조선 산업 경제를 계속 쇠퇴 몰락시키고 있으며 그의 예속성을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 산업을 자기들의 손아귀에 틀어 쥐기 위하여 민족 산업을 계속 령락시키면서 잉여 물자 강매와 전략 물자 략탈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역도는 농민들의 량곡을 수탈하며 미국의 변질한 잉여 비료의 고'가 방매를 보장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의 화학 비료 생산을 고의적으로 저애하고 있는 바 정전 직후부터 요란스럽게 허풍치던 충주 비료 공장 건설 공사는 아직도 지지한 상태에서 답보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의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비료 공업 뿐만 아니라 전체 화학 공업이 미제의 식민지화 정책에 의하여 파산의 길을 걷고 있는 바 충주 비료 공장과 함께 소위 《3대 공장》이라고 떠들고 있는 문경 쎄멘트 공장, 인천 판유리 공장의 건설 공사도 말 뿐이고 진척되지 않고 있다.

남조선 경제에 대한 미제의 이와 같은 예속화 정책과 군사, 경제 체계의 강화는 민수 산업을 극도로 위축케 함으로써 남조선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 조성된 극심한 식량의 위기도 바로 이러한 원인에서부터 초래된 것이다.

남조선 신문들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절량 농가 호수는 벌써 100만 호를 헤아리게 되였다. 이름난 남조선의 곡창 전라북도에서 만 하여도 절량 농가는 이미 3월까지에 15만호를 훨씬 돌파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수 많은 절량 농민들은 초근 목피를 찾아 다니고 있으며 아사자와 생활난으로 자살하는 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이러한 참상과 농민들의 통절한 호소에 대하여 속수 무책으로 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남조선 농민들의 처지와 절량 농민들의 위기를 주시하고 있는 공화국 정부는 금번 동포를 사랑하는 북반부 인민들의 절실한 념원을 반영하여 남조선 농민들에게 10만석의 구호미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절량 농민들을 구제하려는 숭고한 민족적 의무감과 동포애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남조선의 절량 농민들을 구원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은 알곡 증산을 위한 비료와 농약 등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 *

화학 공업은 생산 설비가 고'가의 특수 재료들로 된 각종 장치들과 동력 설비, 대용량 콤푸렛샤, 계기 기타 전문화된 기계 장치들로 구성되여 있는 만큼 극히 많은 기본 건설 투자를 요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할 때 추가적 기본 건설 투자를 함이 없이 현존 설비 리용률을 제고함으로써 최대한의 증산을 보장할 데 대한 당의 호소는 화학 공업 부문에 있어서 더욱 절실한 실천적 과제로 된다.

우리는 화학 공업의 경제적 특수성과 기술적 제 문제를 깊이 연구함으로써 화학 섬유 공장을 비롯한 신설 공장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가장 선진적이며 경제적인 기술적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학 공업의 정상적인 발전과 그의 순조로운 기본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화학 공업 자체에서와 금속 기계 부문들에서 소요되는 내산, 내알카리, 내열성 부속품들과 특수강들을 생산 및 구득할 데 대한 대책들을 예견성 있게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공업에서 식민지적 편파성이 완전히 극복되지 못한 현 조건하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화학 공업 생산에는 다종 다양한 원료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량의 원료를 소모한다. 그러므로 원료의 선별을 세밀히 하며 원료 원천을 각 방면으로 탐구하여 해당한 생산 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기술 발전과 제품의 량적, 질적 장성 및 원가 저하를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화학 공업은 원료의 종합적 리용의 가능성이 풍부하다. 그러므로 중간 제품들과 부산물 및 폐설물들을 리용하기 위한 조직 기술적 대책을 강구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그의 제품이 화학적 반응에 의하여 조성되는 만큼 그의 질과 규격을 보장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례하면 팽창성이 있는 쎄멘트의 출하는 건설 공사의 질을 결정적으로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주며 유효 성분이 낮은 카바이트 생산은 상대적으로 막대한 수송비의 지출을 초래케 한다. 때문에 매개 제품들에 대한 검사 제도를 엄격히 하며 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야 한다.

화학 공업은 막대한 량의 전력과 석탄을 소비하고 있다. 우리 나라 전력 총 소비량의 43.2%나 소비하고 있는 화학 공업은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더 많은 전력을 요하게 될 것인 바 이것은 우리 나라 전력 사정의 긴장성을 초래케 하는 조건의 하나이다.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은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을 관철하기 위하여 생산 예비를 동원하는 한편 전력과 석탄 절약을 위한 구체적 방도들을 더 많이 찾아 내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 공업은 높은 기술과 많은 기술 인재를 요구한다. 그리고 우리 화학 공업 부문에는 기술적으로 개선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며 새로운 화학 공업 기업소들과 제효들을 창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학 공업 부문 지도 일'군들과 당 단체들은 기술적 개조를 진행하며 신제품 생산을 위한 연구 사업을 실정에 알맞게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기술 인재 양성 사업과 근로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지도와 방조를 주어야 할 것이다.

기술 일'군들은 화학 공업 부문에서의 당 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과제를 실정에 알맞게 설정하며 현장과의 밀접한 련계하에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연구의 성과가 경제 리론적, 기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직접 생산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화학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이 모든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매개 일'군들이 사상적으로 동원되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고 당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하여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호소한 당의 구호하에 근로 대중의 창조적 적극성을 더욱 발양시키며 그들이 제기한 증산 결의를 실천하도록 지도 일'군들의 구체적인 산 지도와 방조를 배합시켜야 한다.

매개 지도 일'군들로부터 로동자에 이르기까지 당이 부르는 길을 따라 한결같이 동원된다면 우리는 이 과업을 영예롭게 완수할 수 있다.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은 우리 당 12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에 기초하여 1957년도 증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며 예정된 기본 건설을 기간 단축하여 완수하도록 더욱 견결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화학 공업 부문 일'군들의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 제3차 대회의 결정 실행을 위한 투쟁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 원조》 정책의 침략적 본질

정 성 언

조선 인민은 자기 조국의 민족적 독립과 자유와 영예를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으며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키 위하여 그 투쟁의 기세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은 아직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남반부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군사화의 길에서 벗어 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해방된 조선 인민의 념원을 유린하고 남조선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에 기인되는 것이며, 리 승만 도당이 조선 인민을 더 한층 분렬시키며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 팔아 먹는 매국 배족적 흉책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지배가 초래한 죄악적 결과는 오늘 남조선 인민들의 모든 생활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미국 군대의 장기 주둔과 미제의 침략 전쟁의 대포밥인 괴뢰 군대의 발광적 증강으로 남조선 인민 생활은 극도로 곤궁에 빠지고 있으며 남조선 경제에 대한 미국 독점 자본의 전면적인 지배와 통제로 말미암아 남조선 산업 경제는 파탄 피폐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의 일체 중요 경제 명맥과 국가 경제 생활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지배 하에 완전히 예속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자들의 이러한 침략 예속화 정책은 그들이 소위 《자선》으로 떠드는 《경제 원조》에 많이 의거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미제의 《경제 원조》가 그 나라에 대한 군사, 정치적 예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러면 남조선을 식민지—군사화하기 위한 미제의 《경제 원조》 정책의 본질은 어떤 것인가?

미국의 《원조》는 본질상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있어서의 국가 자본의 수출이다.

이러한 국가 자본의 수출이 왜 《원조》의 형태로 행하여 지고 있는가?

그것이 어떤 위장을 가능하게 하며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질을 음페하여 주기 때문인가? 물론 이것도 한 리유로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소극적인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더 본질적으로는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제2 단계에 있어 미국 독점들이 자본주의 세계 시장을 재편성하고 다른 나라에 침입하여 독점적 지배권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보다 략탈적이며 보다 침략적인 방법과 수단이 필요한 때문이다.

《원조》는 같은 국가 독점 자본의 수출 형태인 《차관》에 비하여 보더라도 한층 략탈적이고 침략적이다.

《차관》에 있어서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1대 1의 계약 관계가 성립되였으며 독점 자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도 주로는 개별적 대상별로 진행되였다.

그러나 《원조》에 있어서는 형식상으로도 1대 1의 관계가 없어졌으며 《은혜》와 《감사》의 가면하에 처음부터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로골적으로 성립된다. 독점들에 의한 경제적 지배도 개별적 대상별이라기보다 오히려 종합적 전체적이다.

뿐만 아니라 《원조》에 있어서는 종전의 《차관》에 있어서 보다 정치적 측면이 훨씬 농후하며 보다 더 군사적이다. 그것은 피《원조》국의 정치적 예속과 군사 기지화를 고유한 목적으로 하고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의 《원조》는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이 실시하는 원조와는 전혀 본질이 다른 것이다. 사회주의 및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원조는 원조 받는 나라의 발전을 진심으로부터 방조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호상 평등의 기초우에서 그 나라의 민족적 리익을 위하여 자원을 개발하고 공업화의 조건을 창설하고 통화와 물가의 안정을 가져 오며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도읍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구체적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전후 3개년 계획 수행에서의 찬란한 력사적 성과는 쏘련을 위시하여 중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국가들의 사심 없는 원조와 그것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주요한 원인의 하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그것 자체의 본질로부터 출발하여 남반부의 사회, 경제적 모든 형편을 이와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몰아 넣고 있다.

1, 《원조》의 목적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 원조》는 그 내용상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ㄱ) 미 군정 시기

(ㄴ) 괴뢰 정부 수립 후 침략 전쟁 개시까지

(ㄷ) 침략 전쟁 시기

(ㄹ) 정전 후 시기

첫째 시기에 미 제국주의자들은 주로 《가리오아(점령지 행정 및 복구) 원조》에 의하여, 일제 패망 후 인민들의 강력한 해방 운동의 발전으로 위기에 처하였던 식민지 제도를 유지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그들의 지배의 기초적 조건들을 조성하는 데 광분하였다.

둘째 시기에 미제의 《원조》는 주로 《이. 씨. 에이(경제 협력국) 원조》로서 행하여 졌으며 그들은 이에 의하여 리 승만 괴뢰 정부를 육성하여 식민지 지배의 토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동시에 남조선을 대륙 침략의 전초 기지로 화하고 침략 전쟁을 준비하였다.

세째 시기에 미제의 《원조》는 주로 《크리크(유엔군 한국 민사처) 원조》로서 행하여 졌으며 그들은 이것을 공간으로 침략군의 군사 활동의 보장과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하여 남반부의 인적, 물적 총자원을 동원 략탈하였다.

네째 시기에 미제의 《원조》는 주로 《아이. 씨. 에이(국제 협조처) 원조》와 《운크라 (유엔 한국 재건단) 원조》로서 행하여 지고 있으며 그들은 남반부를 전쟁 재도발을 준비하는 군사 기지로서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 자본의 항구적 지배와 착취를 보장할 체제를 정비하는 데 이 《원조》를 리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제의 《원조》는 매 시기마다 그 추구하는 중점과 특색이 다르다.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대내외의 정세가 다르며 이에 대처하는 미제의 침략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원조》는 모든 시기의 모든 종류의 것을 일관하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남조선을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착취하며 미제의 영원한 식민지로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제의 《원조》는 남조선 경제에 대한 미국 독점 자본의 지배를 공고히 하며 그를 위한 착취와 예속의 경제 체제를 유지 확대할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하고 있다.

미제는 괴뢰 정부 조작 후 그와 체결한 《한미 경제 원조 협정》에 의하여 이미 재정 금융을 비롯하여 무역 및 식량 배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제적 문제에 관한 통제권을 장악하였으며 또 침략 전쟁중 체결한 《마이어 협정》에 의하여 미제의 현지 기관인 《합동 경제 위원회》가 괴뢰 정부의 《경제와 계획의 모든 사항》을 장악할 것을 공공연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조》에 의한 경제적 지배는 단순히 경제적 목적 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미제가 남반부에서 추궁하고 있는 군사적 목적의 일부분으로서의 의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실례로 미제의 《원조》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목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점이 특히 강한 것은 남반부에 대한 그들의 《경제 원조》의 주요한 특색의 하나로 되어 있다.

《경제 원조》는 미제로 하여 남반부를 두 가지 면에서 군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로는 괴뢰 군대를 그들의 앞잡이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면이며,

둘째로는 남반부 경제를 그들의 군사적 목적에 복종시키는 면이다.

미제의 《원조》실시의 기초적 법규인 미국의 《엠. 에스. 에이 법》(상호 안전 보장 법)은 이 점에 관하여 피《원조》국의 의무로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미국이 참가하는 다면적 또는 쌍무적 협정이나 조약에 의거하여 인수한 군사적 의무를 리행할 것,

2.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자국의 방위력과 자유 세계의 방위력의 증진과 유지를 위하여 자국의 인력, 자원, 편의 및 일반적 경제 사정이 허용하는 한의 충분한 공헌을 할 것,

3. 자국의 방위력을 증강하는 데 필요한 적당한 모

든 방법을 취할 것》(동법 52조).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미제의 《원조》를 받는 나라는 미국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전제로 되여 있으며 이러한 군사 협정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대와 군사 경제를 강화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경제 원조》도 항상 군사 협정과 《군사 원조》와의 일정한 련관하에서 일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의 한 부분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일례로 《이. 씨. 에이 원조》는 《군사 고문단 협정》 및 《호상 방위 원조 협정》과 련결되여 있으며 정전 후 실시되고 있는 각종 《원조》는 《한 미 호상 방위 협정》과 결부되여 그것을 경제적으로 안받침하는 것으로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 원조》를 기초로 하는 각종 경제 계획들은 남조선 경제의 예속적 군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 《원조》 물자의 판매 대금도 대부분이 군사비로서 소비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 및 군사적 지배는 종국적으로 정치적 지배를 가져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원조》는 처음부터 이것을 자기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엠. 에스. 에이 법》이 그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보더라도 명백하다. 즉

《미국 의회는 이 법률이 우호국에 대한 군사, 경제 및 기술의 원조를 승인함으로써 미국의 안전 보장을 유지하며 또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선언한다》(제2조).

《미국의 안전 보장의 유지》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촉진》한다는 것이 남조선에 적용되는 경우에 이는 파쑈적 식민지 통치 체제의 강요 이외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미제의 《원조》는 《가리오아》의 첫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목적을 추궁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제는 항상 《원조》를 토대로 그들의 식민지 지배와 리 승만 도당의 정치적 지위를 보장하여 왔으며 또 그것을 민주주의의 발전을 억압 말살하고 인민들의 민족 해방 투쟁을 거세하는 데 리용하였다.

《원조》의 이러한 정치적 목적에 대하여는 미국 관리들 자체가 공언하고 있다. 《이. 씨. 에이 원조》에 관하여 1949년 당시의 미 국무 장관 대리 《웹》은 남반부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목적이 괴뢰 정부의 육성에 있다는 것을 표명하면서 그들의 《원조》가 이러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계획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경제 년감》 1949년도판 11페지).

그러나 남반부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비단 이것에 만 정치적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미제의 책동의 일환으로서 보다 더 본질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 전 미국 대통령 트루맨은 남반부에 대한 《이. 씨. 에이 원조》가 《남아세아 및 동아세아 그리고 태평양 제도와 인민들로 하여금 공산주의 선전을 배격하고 이에 대항하도록 고무할 것이다》(《한국 은행 조사 월보》 1954년 9월호)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2, 《원조》에 의한 경제적 지배 체계

상기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원조》는 미국 독점들의 가장 략탈적이고 침략적인 자본 수출 형태이다. 이러한 침략과 략탈의 구체적 정형을 보기 위하여는 그 전에 먼저 《원조》를 공간으로 하는 경제적 지배 체계를 간단히 볼 필요가 있다.

미제는 《원조》 물자의 품종과 부문별 배정을 결정하는 단계로부터 그 수입 판매 및 대금의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최종적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원조》에 의한 지배는 《원조》 물자의 수입과 판매 대금의 투자에 그 중심 고리가 있다.

미제는 독점들의 잉여 상품을 남반부에 반입하여 판매하며 이것을 통하여 소비 시장과 원자재 및 시설의 공급을 독점하게 된다. 그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미국 독점들이 긴급히 처리해야 할 잉여 물자의 정형과 또 그들이 남반부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군사, 정치, 경제적 면의 고려로부터 출발하여 《원조》 물자의 액과 품종을 결정하며 또 이것에 남반부 경제의 전 생산 계획과 물동 계획을 예속시킨다.

다음에 미제는 이러한 《원조》물자의 판매 대금——이하 《대충자금》이라고 부른다——의 사용에 대하여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남반부 경제를 더 철저히 지배할 수 있다.

그들은 이 《대충자금》을 《전입》 또는 《융자》의 형태로서 괴뢰 정부의 재정 적자를 보충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괴뢰 정부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괴뢰 정부의 재정 지출을 그들의 군사 기지 강화와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방향에서 결정하고 그를 위한 부담을

남반부 인민들에게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은 또 《대충자금》을 소위 《민간 융자》라 하여 《산업 은행》을 통하여 공업, 광업, 농업, 수산업, 공공 사업 등 각 부면에 대부하여 이것을 통하여 기업체들을 통제하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원조》 물자의 품종 결정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부를 통하여서도 남반부 경제를 그들이 필요한 방향으로 편성 예속시킬 수 있게 된다.

남반부 경제에 대한 미제의 이러한 지배 체계에서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는 결정적 역할을 놀고 있다. 《마이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측 대표——《유엔군 경제 조정관》——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되는 《시설, 물자 및 기타 원조의 구매 및 적송 조치를 강구하며 이 원조의 배분 및 리용을 감독하며 여사한 원조를 관리》하고 있으며 또 《원조》에 관하여 이러한 일방적이고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미국측 대표는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를 통하여 《대한 민국의 경제와 계획의 모든 사항을 검토》(1조 4항)하며 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유엔군 경제 조정관》의 지휘하에 있는 미국 고문들은 남반부 경제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다.

괴뢰 정부의 각 부서 또는 각종 위원회(례를 들면 전력, 수송, 석탄, 광산 등에 관한 위원회)에 파견된 미국인 《고문관》들과 주요 기업체들에 파견된 기술 고문들은 괴뢰 정부 각 부서의 행정에 만 그치지 않고 개별적 주요 기업체에 이르기까지 간섭하고 있으며 그들의 침략적인 《원조》 계획을 집행하도록 괴뢰 정부 각 기관들을 감독하며 독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배 기구는 미국의 《원조》를 받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대동 소이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지배 기구를 통하여 형성되는 지배와 착취 관계의 구체적 면모가 어떠한가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사실대로 규명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본적 혁명 과업인 반제 투쟁 과업 실천의 구체적 면모를 규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로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관계는 미국과 남조선간의 현실적인 정치, 경제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원조》는 다른 어떤 나라에 대한 그것 보다도 가장 략탈적이며 침략적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김 일성 동지가 조선 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총결 보고 중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타국에 대한 미국의 소위 〈경제 원조〉는 그 나라에 대한 군사, 정치적 예속을 목적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 잘 알려져 있거니와 남조선에 있어서 이것은 가장 로골적이고 철면피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실제로 미제의 략탈 행위는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며 비경제적 경로를 통하여 문'자 그대로 강탈 또는 사기적 방법이 사용됨으로써 자본주의적 경제 법칙 조차도 무시하고서 행하여지고 있다. 남반부에 대한 미국 《원조》의 또 하나의 주요한 특색이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에 기인하고 있는가? 《원조》에 의한 착취상을 옳게 리해하기 위하여서 만도 우선 남반부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라는 것. 남반부가 미제의 군사 기지라는 것. 남반부의 토착 자본의 축적이 극히 미약하다는 것 등 사실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경제적 략탈 정형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조》는 우선 상품 수출의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다.

항상 과잉 생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미국 독점들은 《원조》의 형태로서 남반부에 대하여도 과잉 상품들을 덮어 씌웠으며 이에 의하여 공황의 위험과 부담을 남반부 경제에 전가하고 또 남반부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리윤을 착취하였다.

이러한 《원조》 물자의 수출에 있어 미국 독점들은 그들이 《원조》 집행자로서의 미국 정부에 대하여 잉여 물자들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취하였을 때에 미국 내에서 일단 그들의 리윤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러한 물자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지만 그 대'가를 미국으로 반출하지는 않고 독점들의 리익을 위한 식민지 지배에 남반부에서 사용한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개입으로 인하여 독점들의 상품 수출에 의한 리윤 착취의 면은 은폐되고 《원조》라는 위장과 환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미국 정부는 그들이 미국 독점들로부터 구매한 상품들을 남조선 인민들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끌어 내고 있으며 따라서 이 면에 있어서는 그들은 결국 미국 독점들의 상품 수출을 중개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에 있어 상품 판매에서 얻은 독점들의 리윤은 그것이 남반부 인민들에게 전매됨으로써 종국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따라서 또 실질적으로는 이 전매 과정에서의 남반부 인민들로부터의 착취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

미국 독점들은 이러한 《원조》 물자의 수출을 남반부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는 기본 수단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1945년 9월부터 1955년 말까지의 기간에 이러한 《원조》 물자 판매액은 남반부의 총 수입액의 30.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무역에 의한 수입액의 약 1. 5배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점들은 이러한 《원조》 물자의 품종 결정을 통하여 남조선 경제의 식민지적 예속화 편파성을 더 심하게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강매하는 상품의 대부분이 소비품과 원재료들이라는 사실에서 표현되고 있는 데 실제로 1955년말까지에 수입된 《원조》 물자의 96%에 관하여 보면 그중의 74. 5%에 달하는 압도적 대부분이 소비품과 원재료인 바 그중에서도 식량, 연료, 섬유품과 면화 및 비료는 58. 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 남반부의 농업과 민족 산업은 그 정상적 발전이 극도로 억제되고 있다.

일례로 공업품의 대외 의존도는 1951년에는 35. 3%였던 것이 1952년에는 59. 3%, 1953년에는 77. 1%, 1954년에는 72. 8%로 증대되고 있으며 농산물에 있어서는 남반부는 과거 일제시에 조선의 량곡 수출의 주요 원천지였던 것이 1951년에는 전 소비량 중 17. 7%, 1952년에는 19.1%, 1953년에는 24. 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예속 정형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1955년에 있어 공작 기계는 물론 석유, 고무, 원당 및 당밀, 소다류, 비료는 각각 100%, 면화 95%, 쎄멘트 80% 이상, 석탄 46%(운수용탄 100%)에 달하고 있다.

이리하여 남반부는 미국 독점들의 잉여 소비품의 판매 시장으로 독점되여 있을 뿐만 아니라 공업의 주요 원자재들을 거의 전적으로 미국 독점들에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미국 독점들의 하청가 공업으로 예속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반부의 공장들은 《원조》로 들어 오는 미국 원재료의 공급 없이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미제는 이러한 예속 상태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시 원료 공급을 중단하고 생산 시설들을 파괴하였으며 생산을 억제하였다. 그리하여 8. 15 직후 생산이 급격히 쇠퇴하여 1948년에는 일제하 1940년에 비하여 공업 생산이 5분의 1로 감소되였는 데 미제는 이러한 예속 상태를 리용하여 더 한층 가혹한 착취 조건을 강요하였으며 또 강요하고 있다.

일례로 그들은 《원조》 물자를 자본주의 시장 가격보다도 비싸게 강매하고 있다. 즉 1955년에는 톤당 15딸라의 석탄을 36딸라로 강매하였으며 1956년에는 톤당 105딸라의 원당을 170딸라로 강매하였다. 1954년 10월에는 석유류 공급을 중지하고 남반부의 운수 기관, 공장, 광산들을 거의 총 정지 상태에 몰아 넣음으로써 《원조》 물자의 판매 환률을 180대 1로부터 최하 350대 1로 인상하였다.

미제는 또 《원조》 물자에 관하여 관세 부과를 제한하고 있다. 그들은 1950년 10월까지는 모든 품종에 대하여 관세 부과를 금지하였으며 《원조》 물자 중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량곡에 대하여서는 현재도 면세의 특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들은 또 세계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조》 물자 및 그와 동종류의 수입품, 지어는 국내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또 《원조》 물자를 원재료로 한 가공품의 수출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혹한 조건들을 강요함과 동시에 미제는 남반부 시장의 독점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즉 그들은 《한 미 경제 원조 협정》과 《마이어 협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남반부 무역을 엄격히 통제하고 수출입 계획 뿐만 아니라 외화 사용도 일일이 미국 경제 조정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무역을 《원조》에 복종시키고 있다. 미제는 《이. 씨. 에이 원조》 실시 이래 대상 지역별 및 품종별로 엄격한 수입 《할당제》를 실시하여 《원조》 물자에 의한 미국의 시장 독점과 저촉되지 않는 지역 및 품종에 대하여서 만 수입을 허가하였으며 1955년말에 《할당제》가 폐지되고 《허가제》로 전환된 후에 있어서도 수입 품목 결정과 외화 통제를 통하여 엄격한 무역 통제를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 통제에 있어서 미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 대하여 민주주의 진영과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의 《빠트르법》을 적용하여 남반부에 대하여도 이러한 무역은 물론 남북 경제 교류까지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원조》의 침략적이며 반동적 성격을 로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미제는 또 침략적인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을 체결하여 미국 상인들의 무제한한 자유 활동과 그들의 상품 판매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라는 특권적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시장 독점을 더 강화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미제의 《원조》 물자 강매로 인하여 남반부의 무역 구조는 8. 15전의 조선과 비하여도 전혀 달라졌으며 남반부 경제의 식민지적 예속성이 더 심하여졌다.

첫째로 무역 발란스에 있어 식민지로서 보더라도 류례 없는 수입 초과를 나타내고 있는 바 1945년 9월 이후 1955년 말까지의 기간에 있어 년 평균으로 수입은 수출의 10.5배에 달하고 있다. 그중에서 이러한 수입 초과는 정전 후 기간에 있어 해마다 더 심하여 지고 있는 바 1953년에는 7.9배였던 것이 1954년에는 8.7배, 1955년에는 20.3배로 증대되였다.

둘째로 수입 대상국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입중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955년도에 있어 약 80%를 점하고 있다.

미제의 이러한 시장 독점에 있어서 그들이 《원조》를 리용하여 딸라 지역에 속하는 예속국들을 인입한 다각 무역을 통하여 남조선을 희생으로 그들의 종합적인 지배 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원조》 물자 조달에 인입된 일본은 1955년에 1 555만 딸라, 1956년에 3 090만 딸라의 《원조》 물자를 남조선에 보냈다. 이는 《동양의 공장》으로서 일본의 군수 산업을 재생시키고 일본 독점 자본과 군국주의의 재생을 돕는 일면 남조선 경제를 자기들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 독점 자본에게도 예속시키여 《한 딸라로써 두 딸라의 효과》를 노리며 남조선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 독점들은 《원조》 상품의 판매 대금을 그들의 정치, 군사 및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투자하며 이것에 의하여 남반부를 완전히 채무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군사 식민지적 통치를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군정 실시 기간에 판매한 《원조》 상품의 대금을 거의 전적으로 미군의 점령비와 군사 기지 구축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도 《이. 씨. 에이》가 실시되기 시작한 1949년 1월부터 1956년 4월까지의 기간에 투자된 대충 자금은 그중 41.2%가 괴뢰 정부의 군사비에, 또 38.8%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간접적 군사비인 《경제 부흥 특별 회계》에, 4.4%가 괴뢰 정부의 차입금·상환에 돌려졌으며 나머지 15.6%는 소위 《민간 융자》라 하여 각 기업체들에 대부되였다.

이러한 투, 융자를 통하여 미제는 남조선의 군대를 완전히 그들의 식민지 토민군으로서 지배하고 있으며 괴뢰 정부를 앞장으로 완전한 식민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점들을 위한 경제적 예속화와 착취를 더 강화하고 있다.

미제는 이 《대충 자금》에 의하여 괴뢰 정부의 재정 금융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남반부 경제의 모든 명맥을 지배하고 있다.

괴뢰 정부의 재정 지출(《경제 부흥 특별 회계》 포함)에 있어 이러한 대충 자금으로부터 지출된 금액은 1954년도에 총지출의 9.3%, 1955년도에 25.7%, 1956년도(예산)에 50.3%에 달하고 있다. (주)

(주) 《군사원조》를 포함하면 괴뢰 정부의 재정 지출에서 미국 《원조》가 차지하는 비률은 1954년도에 65.7%, 1955년도에 69.3%, 1956년도 (예산)에 73.3%에 달한다.

미제는 왜 이러한 재정 지출을 부담하는가? 그것은 괴뢰 정부의 재정이 완전히 미국 재정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 그것은 일제 시대에 있어서의 총독부 재정과 본질상 하등의 차이가 없는 것이며 대충 자금으로부터의 이러한 재정 지출은 총독부 재정에 대한 《보조금》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미제는 괴뢰 정부에게 그들의 침략 목적에 복종되는 《종합적이며 적절한 예산 재정 정책을 실시》(《마이어 협정》 제3조 4항)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기획의 조정》(상동, 제3조 12항)이라는 명목하에 사실상 괴뢰 정부의 재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괴뢰 정부 예산은 미국의 군사 예산의 일부로서 그 지출은 미제의 군대인 괴뢰군의 군사비 지출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다. 괴뢰 정부 예산에 있어서 군사비의 비중은 괴뢰 정부 수립 이래 1956년도까지의 총지출액(1956년도 분은 예산액 계산) 중에서 직접적 군사비 만 4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접적 군사비를 합하면 66.6%에 달하고 있다. 그중 정전 이후의 것에 관하여 보면 직접적 군사비는 1954년에 61.8%, 1955년도에 50.5%, 1956년도에 34.5%였으며 간접적 군사비를 합치면 1954년도에 77.1%, 1955년도에 67.4%, 1956년도에 65.2%에 달하고 있다. (주)

(주) 이 비률들은 《경제 부흥 특별 회계》를 합한 총지출에 대한 비률이므로 본 예산의 지출에 대한 군사비 비중은 이보다 높다. 《군사 원조》분에 의한 군사비 지출을 합치면 괴뢰 정부 총지출 중에서 직접 및 간접적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4년도 88.6%, 1955년도 89.6%, 1956년도 88.6%

로 추산된다.

《대충자금》에 의한 재정 지출중에서 《경제 부흥 특별 회계》는 주목되는 항목의 하나이다. 미제는 이 특별 회계를 정전후 파괴된 남반부 경제를 복구한다는 미명하에 설정하였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것은 미군의 군사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실례로 1956년도의 동 《회계》 세출을 보면 그중 67.2%가 철도, 항만, 도로 및 도시 시설과 통신 부문에 지출되고 있으며 이는 그것이 사실상 군사 예산의 일부임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군사비는 대충 자금에 의한 지출만으로써는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미제는 그들이 장악한 재정권을 통하여 일부를 남반부 인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을 획득하기 위하여 세금과 각종 《관영 료금》의 인상 등 략탈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제는 또 《원조》를 배경으로 실질적으로 남반부의 융자 계획과 모든 금융 정책에 대한 최후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통화 발행 통제 및 공사 신용의 통제》를 실시하고(《한미 경제 원조 협정》제2조 나)그들의 침략과 점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을 리용하고 있다.

남반부의 금융에 있어 《대충 자금》의 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6년 4월말 현재 당시의 남반부의 시설 융자 총액의 약 30%에 해당하고 있다. 그것은 《산업 은행》을 통하여 광범한 부문에 걸쳐 주로는 《원조》 물자의 현물 형태로서의 투자와 결부되여 대부되고 있으며 전력, 운수, 공공 사업, 광업 및 소위 《기간 산업》 등 주로 군사적 성격을 가진 부문에 전체의 89%가 돌려지고 있다.

미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남반부의 금융 조직의 중추를 지배하고 있으며 남조선의 핵심적 기업체들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미제의 이러한 통제를 받는 기업체에는 《조선 전업》, 《대한 석탄 공사》, 《대한 중석 공사》, 《삼성 광업》, 《대한 조선 공사》 또 현재 건설중에 있는 《문경 쎄멘트》, 《충주 비료》, 《인천 판유리》 등이 들어 있다.

미제는 이러한 통제를 통하여 남반부의 전 산업을 그들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 활동에 복종하도록 편성할 수 있다.

소위 《유엔군 대상금》 제도는 미제의 금융 지배의 횡폭성을 여실히 말하여 주고 있다. 미제는 이 《대상금》제에 의하여 침략 전쟁중 군사비를 조달하였으나 그 결과는 인플레를 비상히 촉진하고 남반부 경제를 혼란 상태에 빠트리였다. 이러한 대부금은 1954년 6월말까지 234억 여 환에 달하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조》물자의 판매와 그 대금의 투자로부터 미제는 얼마나 한 리득을 남반부로부터 끌어 내고 있는가?

앞에서 간단히 말한 바와 같은 정치적 또는 군사적 면에서 추궁되는 것은 그만두고 경제적인 리득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제는 《원조》의 가면에 숨어서 막대한 군사비를 남반부 인민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그들은 예산 편성을 통하여 괴뢰 정부 수립후 1956년도까지에 약 8억 5천만 딸라로 추산되는 군사비를 부담케 하였으며 또 이외에 앞에서 말한 《유엔군 대상금》제를 통하여서도 약 1억 5 500 여만 딸라를 략취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일방적 《협정》을 통하여 《대상금》의 10%를 남반부에 부담시키는 외에 《대상금》을 지출받는 때와 상환을 하는 때의 환률차를 리용하여 막대한 차액으로 리득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또 침략 전쟁 도발후 토지, 건물, 차량, 물자들의 징발과 전기, 수도, 철도 및 부동산들의 무료 사용 등에 의하여 막대한 수탈을 하였다. 1956년까지에 전자는 12억 5 000만 딸라 그중 소위 유엔군 분은 70%에 달하였으며 후자는 7억1 500만 딸라로 추산된다.

이상과 같이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여 괴뢰 정부 수립후의 군사적 부담만 보더라도 29억 6천 여 만딸라의 거액에 달하고 있다. 이는 괴뢰 정부 수립 후 1956년 6월까지 미제가 《경제 원조》로서 투자한 것에 비하여 이미 수 배에 달하는 것이며 미제의 《원조》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는 이것 만으로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제의 략탈은 이러한 것에 만 그치지 않았으며 전략 물자를 비롯한 제 물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가져 감으로써도 적지 않은 리득을 보고 있다.

또 미제는 그들이 직접 남조선에서 반출하는 물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배하에 있는 일본의 독점 자본들이 반출하는 물자들에 대하여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케 함으로써 그들의 아세아 침략의 지주로서의 일본 독점들을 재생시키는 부담까지도 남반부에 전가하고 있다. 일례로 남반부의 망강, 아연광, 형석, 고령토, 마구네광 등의 대 일본 수출 가격은 그것들의 일본내 가격에 비하여 평균 37%나 낮은 형편에 있다.

다음으로 미제는 《원조》에 의하여 남조선 경제를 그들의 군사, 경제의 일부로 편입 예속시킴으로써 막대한 리득을 보고 있다.

남반부 경제에 대한 미제의 예속적 군사화 정책은 《이. 씨. 에이》계획 때부터 이미 표현되였으나 침략 전쟁 중에는 주로 군사적 폭압에 의하여 강제적 군사 동원으로 실시되였다. 정전 후에는 그들의 소위 《재건 부흥 5개년 계획》에 의하여 군사 체제를 재 정비하고 있다.

이 계획은 그 기초로 된 《네이산보고서》의 권고안에 의하면 1953—57년간의 기본 건설 투자중 64.4%를 운수, 통신, 공공 사업, 전력 및 광업에 돌리며 14%에 해당하는 제조 공업에 있어서도 군사적으로 필요한 식료품, 쎄멘트 공업 등에 중점이 돌려져 있다.

이 계획은 물론 그대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 방향은 이와 동일하며 실제로 1954년 7월—1955년 10월간의 기본 건설 투자중 71.7%는 운수, 체신, 전기, 광업 등에 돌려졌다. 이러한 결과 민수적 부문을 희생으로 군수적 부문의 건설과 생산들이 증대되였으며 1953년 상반기에 비하여 1956년 상반년에 있어 전력 137%, 석탄 226%, 동광 141%, 철광 286%, 토상 흑연 309%, 식료품 146%, 운수 시설(화차수) 123%로 각각 증대되였다.

오늘 남반부의 총생산물 중에서 직접, 간접 군사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부분은 약 3분의 1에 달하고 있으나 미제는 이러한 예속적 군사화의 토대 우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와 용역을 헐값으로 략취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제가 미국 군대 2개 사단의 유지비 정도의 지출로써 괴뢰군 20개 사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 주요 원인은 남반부 경제의 예속적인 군사화에 있는 것이다.

끝으로 중요한 것으로서 미제는 《원조》에 의하여 미국 사자본 침입을 용이하게 하며 또 그 확대를 위하여 경제적 조건들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사자본들은 이미 《원조》 물자의 판매와 관련하여 무역 자본으로서 침입하고 있으며 또 《기술 제공》의 형태로서도 침입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제공》의 형태로서 침입하고 있는 것으로서 주요한 몇개를 보면 《조선 전업》에 대한 《벡텔》, 《충주 비료》에 대한 《맥그로우 하이드로카본》, 《인천 판유리》에 대한 《프레자》및 《심프렉쓰》, 체신 부문에 있어서의 《인터내쇼날 스탠다드 엘렉트릭》등을 들 수 있다.

미제는 《원조》를 미끼로 이러한 사자본들의 활동에 대하여 각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의 《원조》가 《외국의 자원 재발에 참가하는 자유로운 민간 기업이…… 증가되는 자극으로 되도록 운영되는 것》은 최초부터 미국 《의회의 방침》이였다 (엠. 에쓰. 에이법 516조).

그러나 이점에 있어 보다 주목되는 것은 《원조》가 미국 사자본 침입 확대를 위한 경제적 조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트루맨》의 소위 《제4항 계획》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기술 원조》의 역할이 고려되여야 할 것이다.

남반부에 대한 《기술 원조》는 그 총액으로 보아서는 아직 크지 않으며 정전 후 1955년 9월까지의 3년 여의 기간에 897만 딸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농업, 수산업, 공업, 광업, 운수, 교육, 보건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이러한 각 분야들에서 첫째로는 미국식 규격의 기술을 이식함으로써 남반부 경제를 기술적으로 완전히 미국 독점들에게 예속시키며, 둘째로는 미국 사자본을 인입하여 그들에게 침입의 기회와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성하여 주며, 세째로는 미국식 착취 방식의 이식 또 미국식 기계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고용인들의 양성, 심지어는 보건 시설의 준비 등을 통하여 사자본 투하의 전제 조건들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더 주목되는 것은 소위 《안정화 정책》이다. 이것은 일방으로는 예속적인 재정 금융 체제를 확립하고 식민지적 물가 체계를 수립하여 딸라의 지배력을 확대하며 타방으로는 전쟁중 혼란된 《자유 경쟁》적 시장 기구를 확립하고 적산을 불하하여 미국 독점 자본의 침입과 지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였다.

미제의 이러한 정책은 1953년 12월 《한 미 합동 경제 위원회 협약》에서 명시되여 소위 《재건 부흥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으로서 실시되여 왔던 것이나 이 《5개년 계획》의 마감해에 들어 가면서 체결된 《한 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은 사자본 투자의 확대에 있어 획기적인 계기로 되는 것인 바 이는 미제의 이러한 《원조》 정책과 직접 련결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이였다.

4, 《원조》가 남조선 경제와 인민 생활에 준 영향

미제의 이러한 투자와 략취가 남반부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남반부 경제의 식민지적 락후성이 일제 통치 시기에 비하여서도 더 심하여졌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남조선의 총 생산액은 1954년도에 있어 일제 말기에 비하여 약 3분의 2로 저하되였으며 전반적 구성으로 볼 때도 농업과 제조 공업간의 비률은 일제 말기에 대략 3대 2였던 것이 1955년에는 4대 1로 되였다.

1955년 현재 제조 공업 생산은 일제 말기인 1940년에 비하여 대략 2분의 1이하로 감소되였으며 공업 부문내 구성은 금속, 기계, 화학 등 부문들의 비중이 1940년의 26%로부터 1955년에는 20%로 저하되였다. 반면에 방직 공업은 33%로부터 36%로 증대되였는 바 이는 미제의 잉여 면화 판매 정책과 또 식민지 착취와 경제의 군사화의 기초로 되는 저임금의 토대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식료품 공업이 31%로부터 35%로 증대된 것도 군수적 소비를 위한 것이였으며 제조 공업의 편파성이 더 심하여 진 것을 표시하고 있다.

미제는 남반부 경제를 군사화하는 데 있어서도 일부 말단적인 소비품 생산만 용허하고 기초적 산업의 건설은 백방으로 방해하였다. 그들은 금속 기계 및 화학 공업의 건설을 억제하고 남조선 경제의 자립적 기초를 박탈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파괴적 기도는 그들의 사환'군들의 입을 통하여 명백히 되고 있다. 일례로《유엔군 경제 조정관실》의《경제 계획관》로우슨은《원조》에 언급하여《문제는 일본 또는 한국 기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공장에서 미국 기자재를 지장 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유피 통신 1955. 1. 25.)고 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반부 경제의 락후성은 미제의 군사화 정책으로 인하여 더 심하여졌다. 군사화 정책으로 인한 인민 생활의 궁핍의 증대와 자재, 자금의 일방적, 편파적 배정 등은 미국의 잉여 소비품의 류입의 압력과 더불어 특히 소비품 생산 부문에서 조업 단축 또는 폐업들을 많이 발생시키였으며 남반부의 전체 산업 시설의 가동률은 60% 내외에 지나지 않은 정형에 있다. 이러한 결과 남반부의 제조 공업의 자급률은 현저히 저하되였으며 1940년에는 약 2분의 1 이였던 것이 1955년에는 1940년의 소비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6분의 1도 충분치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원조》는 농업을 또 매우 쇠퇴케 하였다.

미제는《농지 개혁》에 의하여 류통면을 통한 그들의 수탈을 증대시키고 남반부의 농업 제도를《원조》를 비롯한 미국 잉여 물자의 판매에 유리하도록 개편하였다.

그들은《농지는 개간된지 오랜 관계로 화학적 보급이 필요하다》는 명목하에 금비를 강매하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지질을 파괴하고 오히려 리재률의 증대와 수확의 감소를 초래케 하였다.

미제는 또 보다 직접적으로 잉여 농산물의 강매에 의하여 농업을 파괴하였다. 군사 기지로의 토지 략탈, 역축들의 도살, 군대로의 농촌 로동력의 징발 및 각종 형태로의 량곡 략탈 등은 쇠퇴를 더 촉진하였다.

남반부의 경지 면적은 1944년의 221만 8천 정보로부터 1955년에는 201만 1,400정보로 감소되였으며 1954년도에 각종 작물의 경작 면적은 1940—44년 간의 년 평균보다도 59만 900정보나 감소되였다.

농산물의 생산 정형은 1936—40년 간의 년 평균에 비하여 1956년도에 있어 미곡은 25%, 맥류는 39%가 감소되였고 면화는 1940년—44년 간의 년 평균에 비하여 1955년도에 45%나 감소되였다.

농업의 이러한 전반적인 쇠퇴중에서도 맥류와 또 면화를 비롯한 공예 작물의 감산이 현저하다.

미제가 괴뢰 정부로 하여 현재 추진시키고 있는《신농업 증산 계획》은 종전의 군량미를 위한 미곡 생산의 증대 계획조차도 포기하고 그들의 잉여 량곡에 대하여 시장을 더 개방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의 감소가 인민들의 생활을 더 궁핍케 할 것은 론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남반부의 총 생산액이 일제 말기에 비하여 대략 3분의 2의 수준에 있다 하지만 인구 증가를 고려하면 1인당 생산량은 약 2분의 1로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또 총 생산물중 약 3분의 1이 직접, 간접 군사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인민들의 소비 수준은 이 보다도 더 저하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테두리 안에서도 그 계층별로 되는 영향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와《원조》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천양지차가 있다.

미제의《원조》정책은 그들의 식민지 통치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예속 자본가와 지주들을 앞잡이로 하고 있다.

그들은《원조》를 주요 수단으로 하여 예속 자본가들을 육성하여 왔으며 이에 의하여 반동적 지배 계급으로서의 그들의 정치, 경제적 지위를 보강하였다.

그들은《원조》물자를 예속 자본가들에게 불하하고 그들을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중간 리득을 착취케 하고 있다. 또 시설과 원자재는 특혜적 조건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배정함으로써 그들의 리득을 보장하였다. 시설재와 일부 원자재의 판매에 있어서는 소비재 판매보다 저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대금 지불에 있어서도 시설재의 경우에는 장기간의 년부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충 자금》의 대부도 이들에게 만 집중되였으며 인플레 억제를 위한 금융 긴축도 일방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편성 강화와 더불어 자금을 예속 자본가들에게 더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되였다. 일례로 남반부 전 금융 기관의 대부 총액중 1인당 1 000만환 이상의 대부액의 비중은 1953년 3월의 30%로부터 1955년 3월에는 52%로 증대되였다.

《원조》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소위《자유 경쟁 정책》은《자유 경쟁》의 조장에 의하여서 뿐만 아니라 또 특히는《적산불하》에 의하여 예속 자본가들의 리권 획득과 자본 집중을 방조하고 있다.

미제는 또 지주 제도의 뿌리를 잔존시키여 이것을 식민지 지배의 수단으로 리용함으로써 그들의《원조》에 의한 착취의 앞잡이로서도 리용하고 있으며 타방 그러기 위하여《원조》를 통하여 이들을 또 옹호하고 있다.

그들은 수리 관개 사업 또는 토지 개량 사업 등의 명목으로《원조》자금을 투자함으로써 농촌에서의 지주들의 정치, 경제적 세력의 유지 확대를 방조하여 주었다. 또 미제의 요구에 의하여 조직될《농업 협동 조합》은 비료 등의《원조》물자 판매와 농산물 략취의 도구로 리용될 것으로 미제의 착취를 강화할 목적을 가진 동시에 그것은 또 이러한 착취의 앞잡이로 되는 지주들의 경제적 지위를 보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생활은 미제의 착취에 의하여 뿐만 아니라 미제가 예속 자본가와 지주들의 착취를 옹호하는 만큼 더 악화되고 있다.

남반부의 제조 공업 로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1955년 10월 현재 일제 시대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으며 미국의 제조 공업 로동자들의 그것에 비하면 12분의 1, 즉 그들의 2일분의 임금에 지나지 않는다.

정전 후에는 특히《원조》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경영 합리화》가 강화된 결과 대량 해고가 증대되고 로동 강도가 강화되였다.

그리하여 1953—55년 동안에 제조 공업에서는 약간의 생산 증대가 있었다 하면서도 로동자 수는 오히려 7%나 감소되였다. 그중 방직 부문같은 것은 1955년 도에 로동자 수가 20%나 감소되였으며 일부 공장들에서는 1인당 담당 직기수가 25—30%나 증대되였다.

로동자들의 생활 정형의 악화는 선전용으로 작성된 공식 자료조차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로동자들의 본업 수입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러한 공식 자료에 의하더라도 1953년의 65.4%로부터 1955년에는 53.1%로 저하되였다.

《원조》는 농민들의 생활도 처참한 정형에 빠트리고 있다.

미제는 철저한 저미'가 정책을《원조》실시의 기본 조건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토지 수득세의 현물 강탈 외에 공출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그들은 1955년 10월--56년 2월간 만 하여도 100 여 만석의 미곡을 저렴한 공출 가격으로 빼앗아 갔는 데 당시의 시'가와 공출 가격과의 차에 의하여 계산하면 이때 농민들은 52억 4천 여 만환을 략취 당한 것으로 된다.

뿐만 아니라 미제는 그들의 대맥, 소맥 등의 잉여 농산물을 강매함으로써 량곡 가격의 등귀를 억제하고 저미'가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미제는 농민들에게 파는 상품에 대하여는 비싼 가격을 매기고 있다.

그들은 1955년도에 만 하여도 비료 가격을 3.5—4.5배로 인상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년간에 208억환을 농민들로부터 더 략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리하여《원조》는 농민들의 령락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농촌에서는 해마다 많은 리농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1955년도 만 하여도 10만 여 호에 달하였으며 농촌으로의 역류자를 감산하여 농가 호수의 절대적 감소는 16 783호에 달하였다. 미제는 농민들의 이러한 령락에서 대포밥과 저렴한 로동력의 원천을 배양하고 있다.

이리하여 미제의《원조》는 도시와 농촌에서 실업군의 증대를 촉진하고 있으며《한 미 실업 대책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56년도에 남반부의 완전 실업자 수는 113만 5천명, 그외에 있는 허다한 반실업자 수는 그들의 상실 로동 시간을 합하면 일년간 250만명의 완전 실업에 해당할 정도로 있다고 한다.

《원조》는 중 소 상공업자들의 생활에 대하여도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다.

《원조》 소비 물자들은 이들의 시장을 박탈하였으며 소위 《안정화 정책》은 이들로부터 자금과 자재 및 구매력을 박탈하였다.

미제는 《원조》 물자인 원자료 가격을 인상하는 일면 일반 물가는 억제함으로써 다이야, 약품, 식료품 또는 섬유품 등 일부 군수품들을 헐값으로 략취하고 이들의 경영난을 더 심하게 하고 있다. 또 《원조》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는 세금과 《관영 료금》등의 인상은 이들에게 무겁게 전가되고 있다.

최근 미제는 그들의 《원조》가 마치 중 소 기업들의 발전을 도옵는 데 사용될 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소위 《중 소 기업 육성 정책》은 사실은 오히려 중 소 기업을 더 궁지에 몰아 넣는 정책인 것이다. 그것은 이 정책의 종국적 목표가 《원조》 물자의 하청 공장으로서의 착취 원천을 배양하는 일면 예속적이고 략탈적인 물가 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생산비가 높은 령세 기업들을 정리하고 전반적으로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 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물가 안정책》을 기반으로 《중 소 기업 육성》이라는 괴뢰 정부의 구호 자체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나타나 있다.

《원조》가 비저낸 경제적 쇠퇴와 인민 생활의 악화는 《원조》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된 1955년 8월의 500대 1환률 설정과 동년 9월의 긴급 조치를 계기로 소위 《긴축 정책》이 강화된 결과 더 심하여졌다.

그리하여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피해가 채 복구되기도 전에 소비재들의 생산 부문에서는 생산 감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956년에 들어 서서 더 심하여졌다.

즉 1956년 상반기 생산을 1955년 하반기와 비교하면 고무신은 76%, 포화는 71%, 도자기는 71%로 각각 생산이 감소되였으며 면포 생산도 증대 속도가 저하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부문들에서는 일제시의 소비 수준에 비하여 보더라도 혹심한 물자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조업 단축과 파산들이 증대되게 되였다. 일례로 남반부 공업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면방직 공업에서는 1955년도에 로동자의 20%를 해고하였으며 1956년도에는 25%의 조업 단축을 계획하였는 바 방직 시설의 유휴률은 1955년 1—5월간 월 평균으로 1953년의 월 평균에 비하여 1.5배로 증대되였다. 그리하여 수 많은 중 소 공장들 뿐만 아니라 5개의 비교적 큰 공장들까지도 파산 병합되였다.

고무신, 비누, 도자기, 알미늄기물 등의 생산 부문에서도 동일한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이리하여 전체 기업체 수는 1955년도의 8 810개로부터 1956년도에는 7 634개(86.7%)로 감소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제대로 조업하고 있는 공장들은 1957년 2월 현재로 21개업종, 6 529개 공장중 52%에 지나지 않는 정형에 있다.

이러한 경제적 혼란을 조성하고 있는 미제의 《원조》 정책에 대하여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대가 이러저러한 계기에서 자주 표현되였다.

우선 《원조》가 남조선을 식민지 상품 시장으로 만들고 있는 데 대하여 로골적인 불만들이 표시되고 있다. 그중 한 례를 들면 1956년 축산 조합 련합회는 미국의 《잉여 농산물 원조》로서 돈육 통조림이 수입되는 것을 강경히 반대하여 나섰으며 또 동년 3월에 개최된 《전국 산업인 대회》는 수입 물자에 대한 보호 관세 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는 데 여기에는 미국의 《원조》 물자도 포함되였던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미제의 《원조》 정책의 기본점으로 되여 있는 500대 1 환률과 《긴축 정책》에 대하여는 그것이 비저낸 경제적 모순이 심각한 만큼 원성도 높으며 이러한 압력하에 지배층 내부에서 조차 이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자들도 있는 형편에 있다.

미제의 《원조》 정책에 대한 불만은 각 계층에 걸친 일치한 반대 운동으로까지도 발전하고 있다. 1954년 가을의 유류 공급 중단시와 같은 것은 그 일례였다. 이때 미군 군수 물자의 하역 로동자들은 딸라로써 지불되는 임금을 거절하였다. 이때의 광범한 대중적 반대의 압력하에 《경향 신문》까지도 《원조에 마취되여 허송하다가는 마지막 길은 노예의 길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게 된다》고 말하였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조》는 미국 독점들의 리익을 위하여 수출되는 국가 독점 자본이며 그들의 리익을 확대하기 위한 침략의 수단이다.

첫째로 그것은 남조선을 경제적으로 또 군사, 정치적으로 예속시키고 완전히 미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주요 도구이다. 미제는 《원조》를 공간으로 괴뢰 정부의 재정 금융을 비롯하여 생산 분배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경제 계획에 대한 최종적 결정권을 장악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며 기업체들의 운영에 까지 간섭함으로써 남반부 경제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동시에 미제는 《원조》로써 괴뢰 군대를 육성하고

지배하고 있으며 남반부 경제를 그들의 침략군의 군사 활동과 괴뢰군의 확대 유지의 목적에 복종시키였다. 또 그들은 《원조》에 의하여 괴뢰 도당들의 정치적 및 경제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파쑈적인 식민지 통치 제도를 유지 강화하였다.

둘째로 그것은 남반부 경제의 자주적인 발전을 억제하고 전반적인 쇠퇴와 파탄을 촉진하고 있다. 미제는 《원조》 물자의 강매로서 남반부의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산업과 농업간의 유기적 련계를 파괴하였으며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더 심하게 하였다.

그들은 《원조》 자금을 기초로 하는 각종《건설》계획을 통하여 예속적인 군사 경제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전 경제를 침략군과 괴뢰군의 《현지 조달》경제로 전락시키였다.

이러한 《원조》는 물자, 자금 및 각종 리권들을 부여함으로써 예속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한편 중 소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금, 자재 및 판로를 박탈함으로써 민족 자본가들의 령락을 촉진시키고 있다.

세째로 그것은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고 그들의 빈궁과 령락을 증대시키였으며 경제적 모순을 첨예하게 하였다.

미제는 인민들에게 방대한 군사비를 부담시키였으며 그들로부터 토지, 가옥, 물자들을 략취하였다. 그들은 《원조》자본의 리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저임금, 저미'가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착취 체제를 혹심하게 강화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저락시키고 그들의 질병과 기아를 증대시키였다.

예속과 착취의 강화, 산업과 농업의 쇠퇴, 빈궁과 령락의 증대——이것이 바로 남반부에 대한 미제의 《원조》였다.

우리 조국에서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은 바로 이와 같은 미제의 식민지 정책에 있으며 미제의 침략 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데 있다.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 정책이 근절되고 미제 침략 군대가 물러 가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의 완전 자주 독립도 통일도 있을 수 없으며 남조선 동포 형제들이 당하고 있는 가혹한 고통도 제거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 인민은 《미제 침략군은 물러가라!》고 웨치고 있으며 미제 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킬 결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있다.

꼰쑬따찌야

비약의 제 형태에 대하여

김 후 선

비약에 관한 문제는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 형식에 관한 문제이며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법칙 중의 중요한 법칙의 하나이다.

운동과 발전에 있어서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은 비약적 성격을 띤다. 비약은 발전 과정의 필수적 계기이며 발전 과정의 합법칙적 모멘트이다.

발전에 있어서 질적 비약을 거부하는 데로부터 속류 진화론적 견해와 사회 개량주의적 견해가 흘러 나왔으며 량적 변화의 진화적 과정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또는 비약의 합법칙적 련관성을 리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큐비에식 천변 지이설과 무정부주의적, 모험주의적 견해들이 생겨났다.

그러므로 비약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이는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이행 문제를 정확히 규정할 수 없다. 비약에 관한 문제는 실로 거대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발전 과정은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으로서의 전진 운동 과정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질적 변화는 반드시 비약적 성격을 띤다. 비약 없는 발전은 전진 운동 없는 발전과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발전 과정은 한개 전일적인 과정이기는 하나 단순한 량적 변화의 련속적인 과정이 아니라 량적 변화의 과정과 질적 변화의 통일, 진화적인 과정과 혁명적 이행의 통일로 이루워져 있다. 우리가 발전에 대하여 말할때 무엇보다 먼저 비약과 비약의 합법칙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발전은 량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그러한 단순한 성장 과정이 아니라 미세하고 은연한 량적 변화로부터 공공연한 변화에로, 근본적 변화에로, 질적 변화에로 넘어가는 전일적인 과정이며 여기에 있어서 질적 변화는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비약적 이행의 형태에서 일어나며 이러한 비약은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합법칙적으로 일어 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 발전은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의 진화적인 형태와 혁명적인 형태의 통일인가, 왜 발전 과정에서 비약은 합법칙적인가?

사물의 발전은 우선 량적 변화와 진화적 형태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발전에 있어서 진화적, 량적 변화의 단계는 내재적 모순들이 점차적으로 격화되며 첨예화되여 가는 과정이다. 량적 변화의 단계에 있어서의 모순의 이러한 격화와 첨예화로 인하여 사물의 한 질적 상태와 그 형식이 계속 유지될 수 없게 되였을 때에는 다른 질적 상태와 형식에로의 질적 변화——혁명적 전환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질적 변화와 혁명적 전환의 형식이 바로 비약이다. 발전 과정에 있어서 모순의 격화와 첨예화의 결과 낡은 형식은 사물의 발전에 대하여 질곡으로 되는 바 이러한 질곡은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의 사물의 비약적 이행에 의하여서 만 해결될 수 있다. 례컨대 자본주의 사회는 그 내부 모순의 격화로 인하여 자본주의적 형식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 과정에서 내재적 모순의 격화와 첨예화로 말미암아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비약은 불가피적이며 필연적이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자연에 있어서나 사회에 있어서 량적 변화, 진화 및 개량 만을 인정하고 질적 변화, 혁명 및 비약을 인정하지 않는 속류 진화론과 사회 개량주의를 배격하였으며 또한 질적 변화를 량적 변화의 과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며 천지 만물은 불의에 원인 없이 일어난다고 하는 큐비예의 천변 지이설을 배격하였으며 진화 없이 혁명을 시도하며 비약을 모험하는 무정부주의적, 모험주의적 편향들을 견결히 배격하였다.

량적 변화와 질적 변화, 진화와 혁명——이것은 동일한 발전 과정의 두개의 필연적인 계기이다. 량적

변화와 진화는 질적 변화와 혁명을 준비하며 그 토대를 닦아 주며 비약을 불가피하게 만들며 합법칙적인 것으로 만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운동은 사물의 근본 속성이며 존재 방식이며 발전은 전진 운동이다. 매개 사물은 운동하며 발생 발전한다. 운동과 발전 자체가 사물의 내재적 모순의 결과이며 그 해결 방식이다. 질적 변화와 비약은 사물의 운동과 발전의 한개 형식이다. 이러한 비약은 사물의 운동과 발전 과정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매개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 질적 단계로부터 다른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무한한 전진 운동을 하기 위한 매개 단계에 있어서의 필연적이며 합법칙적인 발전 형식이다.

례컨대 무기 자연으로부터 유기 자연에로의 전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매개 단계의 비약, 생물로부터 인간에로의 전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매개 단계의 비약, 원시 공동체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전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매개 단계의 비약 등이 바로 그러한 합법칙적인 발전 형식들인 것이다.

비약의 다양성과 그 기본 형태

운동과 발전 과정에 비약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가 합법칙적인 발전 형식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만으로서는 아직 비약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은 얻어지지 않는다. 비약에 관한 구체적 인식을 위하여서는 자연과 사회에 존재하는 비약의 구체적인 형태들을 세밀히 관찰하면서 그 공통성과 차이점들을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우선 자연에서의 비약 형태들을 보기로 하자.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하나의 례——물의 응집 상태의 변화에 관한 례로써 비약을 설명하였다 《물을 끓이거나 또는 랭각시키는 경우에는, 비등점 및 빙점이 새로운 응집 상태로의 비약——정상적인 압력하에서——이 일어나는 결절점으로 된다. 따라서 량이 질로 변화하는 것이다》 (《반듀링론》, 1955년,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57페지). 이에 관하여 엥겔스는 《반듀링론》의 《변증법, 량과 질》에서 다시 론하면서 《물은 상압하에서는 섭씨 령도 때에 액체적 상태에서 고체적 상태로 이행하고, 섭씨 100도 때에는 액체적 상태에서 기체적 상태로 이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전환점에서는 온도의 단순한 량적 변화가 물의 상태의 질적 변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상동서, 165페지)라고 하였다.

물은 가열의 결과에 그의 분자들의 응취력(凝聚力)이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물리학적 제 속성이 변화된다. 즉 점차적으로 포화 증기의 압력이 증가되고 비용(比容) 류동성이 증대하며 이에 따라서 물의 비중과 점성(粘性) 등이 감소된다. 이 모든 변화는 점차적인 량적 변화이다. 이러한 량적 변화가 일정한 계선에 이르기까지에는(온도상으로 상압하에서는 섭씨 99도까지) 물은 아직 액체 상태로 남아 있게 된다. 그러나 물의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섭씨 100도에 달하였을 때에는 물의 포화 증기의 압력이 대기압에 상등하게 되여 외부의 압력의 저항을 극복하게 되므로 물의 개개의 분자는 돌연히 급속히 증기의 분자로 분리된다. 물은 액체 상태로부터 기체 상태로 질적 비약을 한다. 이와 반대의 과정이 증기의 물로의, 물의 얼음에로의 전환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질적 비약을 분석하면서 엥겔스는 《자연 변증법》의 《과학으로서의 변증법의 보편적 성격》이라는 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물의 온도는 최초에는 물의 적(滴)——액체적 상태에 대하여 아무런 의의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액체인 물의 온도가 상승 혹은 하강하는 때 이 응집 상태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정점이 닥쳐 오는 바 물은 한 경우에 있어서는 증기로, 다른 경우에는 얼음으로 전화된다. 이것은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비약인 바 이 비약은 점차적인 량적 변화의 중단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다.

그러나 비약의 계선은 그것이 진행되는 조건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존한다. 어떤 경우에는 례컨대 수은주 760미리의 상압하에서는 물은 섭씨 100도에서 비등하여 기체로 전화하지만 압력이 퍽 적은 높은 산 우에서는 물은 보다 낮은 온도하에서도 비등하여 기체로 전화하며 압력을 극히 적게 하고 가열하는 경우에는 얼음은 일반적으로 물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증기로 전화하는 것이다.

복잡한 자연 현상은 비약의 다양한 실례들을 우리들에게 보여 준다. 자연 현상들을 우리가 세밀히 관찰하면 점차성이 일거에 중단되면서 질적 비약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또한 한 질적 상태로부터 다른 질적 상태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형태로 질적 비약을 하는 것도 볼 수 있다. 례컨대 지구의 발전 과정, 무생 자연으로부터 유생 자연에로의 이행, 동식물의 한 종으로부터 다른 종에로의 이행, 류인원으로부터 인간에로의 이행 등은 점차적으로 질적 변화를 하는 비약 형태들이다.

이러한 비약 형태들은 보통 그 계선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견하건대 아무런 비약도 없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을 운동의 진화적 형태——단순한 량적 변화와 혼동하며 아무러한 결절점도 없는 일률적인 축자성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비단 일거에 점차성의 중단에 의하여 일어나는 비약뿐만 아니라 낡은 질로부터 새로운 질로의 점차적 이행의 방법으로 일어나는 비약도 또한 근본적인 변화이며 결정적인 변혁이다. 따라서 그것을 단순한 량적 변화와 동일시해서는 안된다.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모든 점차성에도 불구하고 한 운동 형태로부터 다른 운동 형태로의 이행은 의연히 언제나 하나의 비약이며 결정적인 전변이다》(《반듀링론》, 1955년, 조선 로동당 출판사판 85페지).

자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비약의 형태들은 다양하다. 한 사회 구성으로부터 다른 사회 구성에로의 이행은 비약인 데 이 경우에 있어서 각 사회 경제 구성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비약하는 것이 아니다. 원시 공동 체제로부터 노예 소유제로의 비약에 있어서는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점차적 이행의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노예 소유제의 봉건 제도에로의 이행 및 봉건 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제도에로의 비약은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봉건 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제도에로의 비약과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비약은 다같은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형태의 비약을 거치지만 전자와 후자는 서로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다. 전자에게는 과도기가 필요 없는 데 후자에게는 과도기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봉건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는 같은 형의 사회 경제 구성인 바 이로부터 봉건 제도로부터 자본주의 제도에로의 이행은 다만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 형태의 변경, 착취 형태의 변경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므로 부르죠아 혁명은 보통 정권 탈취로써 완수되므로 과도기가 필요없다. 그러나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비약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창설로써 시작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낡은 부르죠아 독재 정권의 혁명적 전복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의 수립으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착취 형태와 착취 계급의 페절 및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일정한 기간의 투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과도기가 필요하게 된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 비약은 실로 복잡한 비약 형태이다. 이 비약은 단지 일회적인 타격에 의하여, 불의의 폭발 형태에 의하여 하루 동안 혹은 수주일 동안의 혁명적 폭풍우에 의하여 완수되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 비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점차적인 비폭발적 비약들의 련결에 의하여 완수되는 한개 력사적인 과정을 이룬다. 례컨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일정한 준비기를 거쳐서 위대한 10월 혁명에 의하여 부르죠아 독재 정권의 전복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주권의 수립과 부르죠아지의 생산 수단들을 수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는 바 이러한 변혁은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비약의 방식으로 진행되였고 그 후의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비약은 일반적으로 폭발의 방법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점차적인 비폭발적 방법으로 수행되였다.

자연 현상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일정한 단계를 뛰여 넘는 비약이 있는 것과 같이 사회 현상에서도 그러한 비약이 있을 수 있다. 얼음이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즉시에 수증기로 전화하는 경우가 있는 것과 같이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과 방조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발전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로 과도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몽고가 바로 그와 같은 실례로 된다.

비약의 다양성은 이상과 같이 자연, 사회 현상들에서 수다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 중에도 일정한 공통성이 있다. 다양한 비약 형태들을 그 공통성에 따라서 분류하면 기본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형태에 귀착시킬 수 있다. 즉 첫째로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비약 형태와 둘째로는 점차적 비폭발적 비약 형태이다.

첫째 비약 형태는 량적 변화의 점차적 축적 과정이 돌연히 일거에 중단되면서 질적 변화가 수행되는 비약 형태인 바 이 비약의 일반적 특징은 량적 변화가 낡은 질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축적되여 가다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 돌연히 동시에 혹은 거의 동시에 새로운 질적 상태에로 이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비약의 규정적 징표는 첫째로 돌연성, 둘째로 신 구 질의 동시적 교체에 있다. 이 비약 형태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류의할 필요가 있다.

1), 같은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비약에 있어서도 폭발 혹은 폭력이 수반되는 것과 수반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폭발이 수반되지 않는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비약에는 자연에 있어서의 일련의 물리 화학적인 비약들, 례컨대 물이 얼음으로 전화하는 비약과 같은 것이 속한다. 폭발 혹은 폭력이 수반되는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비약에는 자연에 있어서의 일련의 비약들과 사회에 있어서의 일련의 비약들, 례컨대 일련의 화학적 반응에서의 변화,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의 부르죠아 정권의 폭력적 전복과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주권의 창설, 이 주권의 폭력에 의한 부르죠아지의 수탈과 사회주의적 토대의 창설과 같은 것 등이 속한다. 자연 현상에는 폭발을 수반하는 것과 수반하지 않는 것의 두 가지 방식이 다 존재하는 데 사회 현상에는 폭발 혹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사회 현상에 있어서의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비약의 징표를 단지 현존 정권의 폭력적 전복과 새로운 정권의 수립에 만 두는 것은 협소하다. 현존 정권의 전복과 새 정권의 수립도 포함하여 폭력에 의한 점차성의 중단에 이 폭발적 비약의 징표를 두어야 한다. 왜냐 하면 례컨대 낡은 부르죠아 독재 주권의 전복과 새로운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주권의 수립은 물론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비약이지 만 프로레타리아트의 독재 주권의 권력(폭력)에 의하여 부르죠아지의 생산 수단들을 수탈하여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의 골간을 창설하는 비약도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비약이기 때문이다.

둘째 비약 형태는 점차적인 혹은 비폭발적인 비약인 바 이는 새로운 질의 요소들의 점차적인 오랜 동안에 걸치는 축적과 낡은 질의 요소들의 점차적인 사멸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비약이다. 이러한 비약 형태에 속하는 것은 우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류인원의 인간에로의 전화 등을 비롯하여 자연, 사회 현상들에서 수다히 볼 수 있는 바 례하면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이행도 바로 이러한 비폭발적 점차적인 이행 형태에 의하여 진행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비폭발적 비약의 특징적 징표는 첫째로 장기성, 둘째로 신 구 질의 요소들의 점차적인 교체에 있다.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과 모순의 성격에의 비약 형태들의 의존성

비약의 다양성은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과 모순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된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자연에 있어서는 례컨대 기압 등등의 제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비약 방식이 달라지며 사회에 있어서는 례컨대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 및 방조가 있는 조건하에서는 몽고와 같이 심지어 자본주의적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에로 비약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례를 들면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제 조건과 오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제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혁명들에서의 비약 방식들이 서로 다르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전과 그 이후의 제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로의 비약 방식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비약 방식은 제 조건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가 해결하여야 할 모순의 성격에도 일반적으로 적응하게 된다. 비약은 제기된 모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기인 만큼 모순의 성격에 적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하여 우선 순서상 조건과 모순의 성격의 관계를 보기로 하자.

일체 현실적인 모순은 구체적 력사적으로 규정되여 있다. 그러므로 모순은 구체적, 력사적 조건들의 변화에 따라서 변이하게 된다. 모순이 어느 정도 변이하는가 하는 것은 조건에 의존한다. 례컨대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모순들에 관하여 말하면 여기에서는 착취 계급과 착취 형태가 남아 있는 만큼 계급적 관계에 있어서 모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기의 일체 모순들이 적대적 성격을 띤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더우기 첨예한 적대적 모순이 과도기의 전 과정을 일관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더욱 정확하지 않다. 왜냐 하면 과도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제 토대의 공고 발전과 계급적 력량 관계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력량의 장성 등에 따라 과도기의 모순들의 성격이 점차적으로 변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바 이리하여 모순의 적대적 요소들은 점차적으로 소멸되고 모순의 비적대적 요소들은 점차적으로 증대하기 때문이다.

과도기의 모순들의 이러한 변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 모순의 기본 성격이 시종 일관 적대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견해이며 더우기 사회주의 건설이 완성된 시기에도 모순이 더욱 격화되며 계급 투쟁이 더욱 첨예화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견해이다. 조건의 변화는 모순의 해결 방법에 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순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순의 성격은 이상과 같이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변이하는 바 이러한 모순의 성격상 변이에 따라서 비약 방식도 달라진다.

그러면 사회 발전에 있어서 폭발적 비약과 비폭발

적 비약은 어떠한 구체적, 력사적 조건들과 어떠한 성격의 모순의 경우에 야기하게 되는가?

보통 발전, 비약은 새 것과 낡은 것과의 첨예한 대립이 있으며 이 대립 량극의 충돌이 불가피하여 폭발적 방법에 의해서 만이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 것의 발전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에 만 합법칙적이다. 그런데 낡은 것이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항상 일회적인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만 제거될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을 조성하거나 또는 조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회적인 폭력적 타격에 의해서와 새 것의 장성 강화에 따라 낡은 것은 점차 소멸되어 가는 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약은 기본적으로 낡은 질의 새로운 질에로의 점차적 이행의 형태로, 비폭발적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례컨대 쏘련에서는 우선 폭력적 방법에 의하여 부르죠아 국가 기구를 타도하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였으며 폭력에 의하여 지주, 자본가들의 생산 수단을 수탈하고 그를 국유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정치적 상부 구조와 사회주의적 토대의 골간을 축성하였다.

그런데 사회주의 혁명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변혁들의 총체적인 과정인 바 이 과정은 일격에 의하여 완수될 수 없다. 그것은 파괴와 건설의 과정인 바 일면에 있어서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타면에 있어서는 새 것을 건설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폭발적 비약이 끝난 다음에는 낡은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마저 분쇄하여야 하며 그 뿌리들을 뽑아 버려야 하며 나아가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과도기의 임무이다.

과도기에 있어서의 비약은 과도기에 제기된 제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 쏘련에 있어서 과도기의 기본 모순들은 새로 탄생한, 장성 발전하고 있는 사회주의적 경제 성분과 쇠퇴하면서 있는 자본주의적 경제 성분간의 모순, 락후한 농업—공업 국가의 현실과 앞으로의 선진적 공업—농업 국가를 건설하여야 할 필요성 간의 모순, 자본주의적 개인농 경리의 현실과 사회주의적 집단 경리를 건설하여야 할 필요성 간의 모순 등이였다. 이러한 모순들을 단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은 이러한 모순들을 점차적인 비약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해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련에서는 국가의 사회주의적 공업화 정책과 제1차 5개년 계획을 수행함으로써 1930년대 초에는 《누가 누구를》 하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였다. 이것은 과도기의 적대적 모순이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모순의 기본 성격이 비적대적인 것으로 전환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모순의 기본 성격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요, 적대적 모순이 근절되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순의 이러한 기본 성격에 적응하는 비약 방식이 바로 비폭발적 비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에서 1920년대 말부터 30년대에 걸쳐서 진행된 농업 집단화에 의한 개인농 경리의 사회주의적 꼴호즈 제도에로의 이행은 비폭발적 비약이였다. 그것은 현존 쏘베트 정권의 우로부터의 발의와 농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지지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점차적으로 수행되였다.

제2차 대전 후 구라파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전체 과정은 일반적으로 폭발적 비약과 점차적인 비폭발적 비약들의 련속으로서 이루워져 있다.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혁명의 첫 단계에 있어서의 인민 정권의 수립과 그에 의하여 수행된 제반 민주 개혁은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비약의 방식으로 수행되였다. 제반 민주 개혁이 완수된 후 점차적으로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섰는 바 이때로부터 인민 민주주의 제도는 자기 발전의 둘째 단계에 들어 섰는 바 둘째 단계에로의 이행은 점차적인 비약의 형태로 수행되였으며 결코 현존 정권의 전복에 의한 폭발의 방식으로 비약한 것이 아니였다. 뿐만 아니라 둘째 단계에 있어서의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자본주의적 제 요소의 제한, 리용 및 사회주의적 개조도 점차성의 중단이 없이 수행되는 비폭발적 비약이다.

인민 민주주의 혁명 발전에서의 이와 같은 평화적 점차적 비약의 가능성은 혁명의 첫 단계에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인민 독재 정권이 수립되였다는 것과 이 정권이 제반 민주 개혁을 철저히 성과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약 방식은 모순의 기본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모순의 기본 성격이 적대적인 경우에는 폭발적 비약 형식을 띠며 비적대적인 경우에는 비폭발적 비약 형식을 띤다.

그러나 모순의 기본 성격과 비약의 성격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결하여야 할 모순이 기본적으로 적대적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비약 형식은 점차적, 비폭발적 비약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가 그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현 시기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의회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방도가 바로 그러한 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는 조건이 변화된 현 정세하에서는 정권을 쟁취하는 데 의회를 리용할 수 있으며 의회를 리용하는 방법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면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반드시 폭력적 형태, 폭발적 방식을 수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방식, 모순의 해결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적이다.

과거에 레닌이 활동하던 시기와 오늘 날의 자본주의 나라들의 대내외 정세는 현저히 변화되였다. 자본주의가 아직 강력하며 또 자본의 수중에 강력하고 거대한 군사—경찰 기구가 있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폭력적 혁명은 불가피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레닌은 당시에 《프로레타리아 혁명은 부르죠아 국가의 기계를 폭력으로써 파괴하고 그것을 새 것으로써 바꾸어 놓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전집 제23권 342페지)라고 강조하면서 제2 국제당 기회주의자들의 《의회주의》를 배격하고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폭력 혁명의 로선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무장 폭동의 형태를 띤 폭력 혁명의 방도는 맑스주의자들 속에서 공인되여 왔다.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경험과 두 세계 대전 사이에 아세아와 구라파의 일련의 나라들에서 진행된 혁명 운동과 해방 투쟁의 경험은 이러한 로선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만일 그 당시에도 오늘과 같은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여 있었더라면 맑스주의자들은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의 로선을 택하였었을 것이며 그 방향에서 행동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은 맑스주의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폭력적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국제 국내적 제 조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즉 세계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과 그의 위력의 장성, 각국 로동 계급의 전투적 력량의 제고와 공산당들의 공고화, 식민지 체계의 붕괴,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계급적 제 모순의 급격한 심화, 주민의 대다수를 로동 계급의 편에 전취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모든 것은 혁명 투쟁의 력사적 조건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고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사회주의 사상의 강력한 견인력이 현존하는 조건하에서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 로동 계급은 자기 주위에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반독점적 력량을 결속하고 기회주의 분자들에 대하여 결정적인 반격을 가함으로써 반동적, 반인민적 세력들을 격파하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에 전통적인 의회에서 다수를 전취하고 이 의회를 부르죠아 민주주의 기관으로부터 근로 인민들의 진정한 민주주의 기관으로 전환시키며 기본 생산 수단들을 인민들의 수중으로 넘기며 근로자들을 위한 일련의 사회적 개혁들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이것은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의 구체적 행정은 복잡한 파란 곡절을 겪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즉 독점 자본가들이 아무 반항이 없이 자기의 정권을 내놓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독점 자본가들이 로동 계급의 의회 투쟁에 의하여 정권으로부터 제거될 위험성이 있게 될 때에는 그는 그의 수중에 있는 국가 기관에 의거하여 의회를 해산시키고 파씨즘과 같은 독재를 확립하여 로골적으로 인민을 탄압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은 원칙상으로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무력하게 할 수 있고 무력하게 하여야 한다. 문제는 로동 계급이 자기 주위에 주민의 대다수를 집결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렇게 된다면 독점 자본가들의 있을 수 있는 반항은 파탄되고 말 것이다.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의회적 형태는 현존 국가 기구의 폭력적 전복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의회에서 로동 계급이 다수를 차지하며 낡은 국가 기구의 질을 점차적으로 새로운 국가 기구의 질로 비약케 하는 방법일 것이며 생산 수단을 근로자들의 수중에로 넘기는 방법과 사회적 제 변혁의 방법도 소유 제도의 한 질적 상태와 사회 제도의 한 질적 상태를 점차성의 중단에 의한 폭발적 방법에 의하여 다른 질적 상태에로 비약하는 방법일 것이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도 부르죠아지의 반항이 클 때에는 평화적 방법은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폭력의 적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회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이라고 해서 이것을 온갖 투쟁, 온갖 폭력의 거부로 리해해서는 안되며 또 순전한 진화적 발전으로, 계급들의 충돌이 없는 것으로 리해해서도 안된다. 계급 사회에서는 온갖 정권이, 심지어 가장 민주주의적 형태의 정권조차 폭력으로써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방도라고 해서 로동 계급이 온갖 폭력, 온갖 투쟁을 포기할 수는 도저히 없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그 형태로 보아 각양한 폭력 형태들

중에서 로동 계급이 어느 것을 취하는가가 문제로 될 뿐이다.

의회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에 있어서 념두에 두는 것은 계급들의 충돌과 폭력의 부인이 아니라 류혈적인 무장 폭동과 국내 전쟁 없이, 부르죠아지에 대한 섬멸적인 탄압이 없이 보통의 민주주의적 방법에 의하여 그들을 제한 및 구축하는 방법으로 사회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것을 념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의회적 방법에 관한 명제는 사회 개량주의자들의 《의회주의》——의회 투쟁을 선거 운동과 의회 내에서의 연설에 만 귀착시키고 온갖 폭력과 투쟁, 혁명을 거부하는 것과는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다.

온갖 종류의 사회 개량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의 리론적 기초는 량적 변화의 질적 변화에로의 이행의 비약적 성격을 거부하는 속류 진화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의 비약 즉 혁명을 불합리한 현상이라고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폭력 및 계급적 충돌이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계획적》,《조화적》 발전만을 운운한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철저히 혁명의 립장에 서 있다. 단지 혁명 수행의 방도에 대하여 신축성 있게 대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주의에로의 의회적 방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사실이 결코 개량주의적 립장에로의 전락이거나 《의회주의》리론의 부활이 아니며 또한 의회 투쟁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종래의 방침이 잘못된 것이였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늘날 력사적 제 조건은 근본적으로 변경되였다. 혁명—해방 운동은 지금 전연 다른 토대 우에서 발전하고 있으며 따라서 의회 투쟁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리용할 수 있는 실제적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객관적 추세를 거부하고 《초혁명적》 립장을 취한다면 그것은 객관적 정세에 전혀 의거하지 않는 모험적 행동일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배반으로 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일정한 정세하에서는 타협도 만일 그것이 로동 계급과 그의 선두에 선 맑스—레닌주의 당에 의하여 실시되고 인민 대중의 광범한 운동에 의거하고 있기 만 한다면 사회주의 혁명 발전의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 온갖 타협을 다 반대하지는 안는다. 문제는 타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타협을 어떻게 리용하는가에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에로의 로정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은 로동 계급 당의 정치적 령도이다. 이것이 없이는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불가능하다.

* *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비약의 합법칙성과 그의 다양성과 또 그 기본 형태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우리의 실천적 및 리론적 활동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으로서의 비약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우리 혁명의 각 계단에서 제기되는 혁명 과업들과 현 국제 사태 발전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질 수 없으며 또 각종 편향들을 범할 수 있다.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혁명의 매개 단계에서의 비약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러므로써 만 우리 당의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당 투쟁사 연구 대상과 그의 심오한 연구를 위한 몇 가지 문제

허 갑

편집국으로부터: 본 편집국은 새 학습 년도부터 당 학습망에서 당 투쟁사를 학습하게 됨과 관련하여 앞으로 매호에 당 투쟁사 연구 자료를 게재한다.

당 투쟁사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당 문헌들과 김 일성 동지의 연설 및 저작들에 충실히 의거할 것이며 본 지에 게재되는 자료는 어디까지나 당 투쟁사 연구를 위한 참고적 자료로서 리용하여 주기를 바란다.

당 사상 사업은 혁명 수행을 위한 전체 당 활동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당 사상 사업에 있어서 위력 있는 수단의 하나인 당 투쟁사에 대한 학습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최근에 채택된 《당 정치 교양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조직 위원회 결정에는 닥쳐 오는 새 학습 년도에 많은 당원들을 당 투쟁사 연구에 망라시킬 것이 예견되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 투쟁사 연구의 제 일보로서 당 력사 연구에 대한 제 원칙들을 심각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 로동당 투쟁사는 조선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인 로동당 투쟁 력사를 연구하는 과목이다.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의 장구한 혁명 투쟁 전통을 계승하여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이룩된 사상 조직적 토대 우에서 8.15 해방 후 창건되였으며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한 당 중앙 위원회 령도 하에 강철의 대오로 육성 단련되였다. 당은 혁명 발전의 매 시기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 근로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의 리익의 수호자로, 그 승리의 조직자로 되였다.

당은 국내외 반혁명 세력 및 당내 각종의 반당적 종파 분자들과 좌우경 기회주의와의 비타협적 투쟁에서 단련 강화되였으며 나라의 통일과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한 실천적 투쟁에서 세련 공고화되였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 그리고 매 단계를 통하여 당이 거둔 성과와 축적한 경험은 지대한 바 이는 맑스—레닌주의의 보편적 진리를 조선 혁명의 구체적 실천에 빛나게 결합시킨 결과이며 혁명 투쟁을 령도함에 있어서 현명한 지도와 광범한 조직자적 활동을 보장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조선 로동당 투쟁사는 조선 인민의 장구한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을 위한 혁명 투쟁 전통의 기록인 것이요, 당의 령도하에 조선 인민이 이룩한 사회의 혁명적 개조와 반침략 투쟁에서 승리한 기록이며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모범의 생생한 기록이다. 당 투쟁사 연구는 매개 당원들과 당 간부들의 리론적 및 실무적 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과목이다.

당 투쟁 력사의 과학적 해명과 심오한 연구는 우선 그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매개 과학이 자기의 특수한 연구 대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당 투쟁 력사는 자기 발전의 내적 특성에 의하여 규정된 우리

당 건설의 력사적 합법칙성을 밝혀 주는 당적 과학이다.

당 투쟁 력사는 민족 및 사회 발전의 력사적 과정을 보여 주는 사회사와의 련관 속에서 당 자체의 고유한 투쟁과 발전의 합법칙성을 천명한다. 그러므로 당 투쟁사 과정의 대상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 혁명 운동의 발전 법칙, 이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구현인 당의 전략과 전술을 연구하며 당 건설의 제 문제, 특히 당의 정치적 지도의 제 경험을 일반화하며 자기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당내 투쟁의 합법칙성을 연구한다.

당 투쟁사는 당 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에서 사회 발전 행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당 로선, 당 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을 통하여 맑스주의 당 건설의 일반적 원칙이 여하이 우리 나라의 력사적 조건과 민족적 특성에 부합되게 적용되였는가 하는 당 건설의, 당의 정치적 지도의 원칙과 경험들을 연구하는 바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그 구체성에서 탐구케 함으로써 우리 당의 영광스럽고도 영웅적인 투쟁 행로를 체득케 한다.

실로 당 투쟁사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거대하다.

당 투쟁사 연구는 우리들로 하여금 당의 공고화와 조국의 통일 및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정치적 및 계급적 경각성을 제고하며 높은 의식성과 혁명적 적극성을 더욱 발양케 한다. 당 중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투쟁 경험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조선의 현실에서 체득시켜 주며 우리 나라의 혁명 운동과 사회 발전 법칙에 대한 옳바른 과학적 인식을 주며 우리의 정치적 각성과 민족적 자부심을 제고시켜 주며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여 주는 우리 당 정치 교양 사업의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1954년 7월 27일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주 건설을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과목에 대한 교수 사업을 조직할 데 대하여).

당적 과학인 당 투쟁사 연구의 방법론적 기초는 맑스—레닌주의다. 이 리론과 방법을 지침으로 하지 않고는 당 발전의 력사적 과정의 본질에 파고 들어 갈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력사적 유물론에 의거하여서 만 사건의 표면에서 단편적으로가 아니라 사건들의 본질적인 합법칙적 련관을 파악할 수 있다. 당의 창건과 발전 행정, 당 로선, 당 정책의 수립과 그 실현 행정, 당내 모순의 발현과 그 극복을 위한 투쟁 행정 등 이 모든 것은 개개로 분리된 사건들과 현상들의 단순한 집적이 아니다. 이 모든 당적인 사건, 현상들은 그것들의 내부를 관통 련결하고 있는 한 가지의 법칙에 귀착되는 바 이 법칙성의 인식은 력사적 유물론 만이 해답을 준다.

우리 당 투쟁 력사의 연구의 중요한 기초는 전체 우리 당 투쟁사를 포괄하는 당 력사의 명확한 시기 구분 및 그 단계들의 확정에 있다. 당 투쟁 력사의 시기는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8.15 해방 전 투쟁 시기와 해방 후 평화적 건설 시기, 조국 해방 전쟁 시기, 전후 시기 등 네개 시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활동과 발전의 시기로 구분된다. 당 발전의 매개 시기에 있어서 당의 투쟁 조직 형태와 그 구호들에 의하여 당 투쟁사 과정은 수개의 단계들로 획분된다.

당 투쟁사 과정의 단계들을 매 장에서 다음과 같이 확정할 수 있다.

1). 조선에 있어서 초기의 로동 운동과 맑스—레닌주의 보급. 조선 공산당 창건과 해산 (1910년대—1928년).

2). 반일 민족 해방 운동의 새로운 단계에로의 발전.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항일 무장 투쟁과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투쟁 (1929년—1945년 8월).

3). 쏘련 군대에 의한 조선 해방. 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 당——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 회의 창건 (1945년 8월—1945년 12월).

4).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 창설을 위한 투쟁 시기에 있어서의 공산당. 조선 로동당의 창건 (1945년 12월—1947년 2월).

5). 민주 기지의 강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로동당의 투쟁.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의 창건 (1947년 2월—1950년 6월).

6). 로동당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의 승리의 고무자이며 조직자이다 (1950년 6월—1953년 7월).

7). 전후 시기에 있어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인민 경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로동당의 투쟁 (1953년 8월).

당 투쟁사가 자기 연구 대상의 년대적 범위를 8.15 해방 전 1910년대로부터 잡고 있는 바 그것은 당 규약에 명기되여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및 기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이며 조선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에 기초하여 조선의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당을 위하여 투쟁해 온 력사와 직접적으로 련계되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30년대에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전개된 항일 무장 투쟁은 다름 아닌 우리 나라에서의 민주 주권 전취를 위한 투쟁과 당 창건 과업이 밀접히 결부된 혁명적 실천이였기 때문이다.

당 투쟁사 연구의 대상 가운데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조선에서 로동 운동의 발전, 프로레타리아 계급 투쟁의 발전 형태들을 관찰하면서 견실한 조선 공산주의 력량에 의하여 이룩된 맑스—레닌주의 당 창건을 위한 사상 조직적 및 전술적 준비의 완성 과정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는 중요한 리론적 및 실천적 의의를 가진다.

해방후 금일까지 당이 활동해 온 12년간에 걸친 당 투쟁사의 심오한 연구는 맑스—레닌주의 당들에게 고유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당에 의하여 구현된 조선 현실에서의 맑스—레닌주의의 탐구에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 당 투쟁사의 연구가 반드시 어떠한 기본 관점들에 립각하여야 할 것이며 그 연구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당은 당 력사 연구의 중요성 만 강조해 온 것이 아니라 당 투쟁사 연구의 기본 방향과 관점들도 명시하였는 바 이는 당의 력사적 문헌들,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에서 강조되여 있으며 특히 당내 계급 교양 강화에 대한, 주체를 확립하며 교조주의를 퇴치할 데 대한 지시들에 뚜렷이 명시되여 있다. 이에 립각하여 몇 가지 기본적 관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당 투쟁사의 연구는 첫째로 무엇보다는 먼저 맑스—레닌주의 학설과 제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진행할 것이며 우리 나라의 생동적인 현실 생활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데 있다. 이것은 맑스—레닌주의 당적 과학인 당 력사 연구에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창조적으로 행동의 지침으로서 학습하며 일체 주관주의, 교조주의 및 형식주의적 연구 태도와 경향을 엄격히 배격해야 함을 의미한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 전후 시기에 앙양된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 운동을 탐구함에 있어서 농업 협동 조합 조직에 관한 우리 당의 정책을 형제적 국가들에서 진행된 농업 협동화 운동에 대비하여 특성과 차이점들을 파악하지 않고 다만 농업 집단화에 대한 일반적 원리만을 강조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으로서는 우리 당의 정책과 투쟁을 옳게 파악한 것으로는 될 수 없다.

둘째로 강조해야 할 관점은 당 투쟁사 연구가 그를 통하여 사회 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힘과 그 의의를 정당히 파악하는 데 있다. 요컨대 당 력사 연구를 통해서 당원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세계관을 확립하도록 또 혁명의 최종 승리에 대한 사상 의식 수준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당 투쟁사는 우리 당 건설에 있어서의 정치적 지도의 제 문제를 구명하느니 만큼 혁명 투쟁에서 계급적 력량의 상호 관계에 대한 판단, 혁명의 기본 동력과 동맹자에 대한 문제들, 적들과의 투쟁에 있어서 적을 고립 타격하는 정책들, 승리를 위해서의 온갖 가능성의 리용과 투쟁 형태의 조직 등을 과학적으로 리해함으로써 불굴의 혁명 투사로, 열렬한 정치 활

동가로 되도록 학습해야 할 것이다.

세째로 당 투쟁사의 연구는 력사주의적 원칙과 당성을 결합하며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일체의 비속화 경향과의 투쟁 속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가 만일에 력사주의적 원칙에 서지 못하고는 례컨대 당의 력사가 마치도 난관이 없이 지나간 력사로 당 투쟁사의 진실을 외곡하거나 또 만일에 맑스—레닌주의의 비속화에 빠진다면 그것은 맑스—레닌주의 로선과 정책인 우리 당 정책에 대한 주관적 외곡 혹은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리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당 투쟁사 연구 과정에 대한 상술한 기본 관점과 방법들은 당 중앙 위원회가 제시하는 유일 제강을 준수하며 당 대회와 중앙 위원회의 문헌들과 김 일성 동지의 과학적 로작들에 충실히 의거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문헌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에 대한 어떤 사소한 자의적인 태도도 엄격히 배격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 문헌들은 과학적 리론과 혁명적 실천을 통일시킨 우리의 현실에서의 맑스—레닌주의 문헌이니 만큼 문헌에 전개된 원칙과 사상으로부터의 일탈은 결국 맑스—레닌주의로부터의 일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들로부터 출발하면서 연구자들은 당 투쟁의 매 단계에 있어서 투쟁의 기본 방향과 내용, 당 정책의 기본 사상을 파악하는 데 노력을 돌려야 하며 사실(史實)을 외우는 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당의 투쟁 사실(史實)을 사상적으로 깊이 리해하고 당 정책을 실천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당 투쟁사 연구가 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 나라 혁명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을 갖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다.

당 투쟁사 연구를 통하여 요컨대 우리들은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립각해서 우리 나라 혁명 문제와 당의 정책을 사상적으로 깊이 체득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정치적 각오 정도를 더욱 높이며 당성과 계급 의식을 더욱 제고하며 혁명적 군중 관점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

당 학습망들에서 새로이 당 투쟁사 과정을 학습하게 됨과 관련하여 당 투쟁사 연구의 현 수준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 올려 세워야 할 긴절한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다.

당 투쟁사는 당적 과학으로서 독립적인 과학적 체계를 가지며 따라서 특정한 연구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당 투쟁사의 심오한 연구의 전제 조건은 당 력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것을 당의 정책사로 관통시켜야 할 것이며 사회사와의 혼동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대상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전제로 아니 하고는 당의 혁명적 활동을 보다 완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사회의 력사적 발전 행정에 미친 지도적 참모부의 역할을 해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 력사와 사회사와의 계선과 그 상호 관계를 명백히 하며 그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당 투쟁사는 사회 력사와 불가분리적이다. 당 투쟁사는 사회 력사의 일구성 부분이며 따라서 인민—사회사 발전 로정을 토대로 아니하고는 당 발전의 객관적 행정을 리해할 수 없다. 때문에 사회사의 원칙들인 사회 경제적 구성의 변화,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상부 구조의 호상 관계, 계급적 제 관계와 그 투쟁의 형태 등은 당 투쟁의 공통한 력사 연구의 기초로 된다. 그러나 인민—사회사가 주지 않으며 또 줄 수 없는 당 력사 연구에서의 특성은 당 자체 내부의 합법칙성에 의하여 발전하는 당 건설과 당 생활 그 자체의 력사를 해명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사회사는 사회 력사 발전의 객관적 행정을 보여 주나 당 투쟁사는 바로 그 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킨 사회 개조적 력량은 어떻게 준비되며 조직 동원되며 사회 발전 법칙에 의거한 당 정책은 여하히 작성되며 당 활동의 내용과 형태는 어떻게 규정되며 또 당이 자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중에 어떻게 의거하는가

등등의 순전히 당의 정치적, 정책적 지도의 력사를 보여 준다. 이렇게 하자면 사회사와 당 력사와의 상호 관계, 그 공통성과 차이점을 분간하여 혁명에 있어서 당의 전략과 전술, 당 정책의 과학적 기초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인민—사회사의 되풀이를 피하면서 일방으로는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당 력사의 문헌적 기초인 당 대회, 중앙 위원 회의 문헌들 및 김 일성 선집을 창조적으로 학습하며 타방으로는 당 활동의 일체 문헌 사료들의 계통적인 수집과 분류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야 할 것이 요구된다.

우리 당 투쟁 력사에 대한 현존 연구 수준이 미약한 데로부터 우리들 앞에는 많은 문제에서 일층 심오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례컨대 당 투쟁사는 해방전 조선 로동 계급의 혁명적 투쟁, 로동 운동과 농민 운동의 발전을 통하여 조선에서의 로동 운동과 과학적 사회주의와의 결합의 로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며 로동 계급의 조직성과 의식성의 장성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로동 운동의 발전 단계들을 더욱 과학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해방전 운동사의 객관적 발전 행정은 일제 식민지 통치사로 물론 대체될 수 없는 것이요, 또 민족 해방 운동사에 만 국한시킬 수 없다. 외래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투쟁과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근로 대중의 해방 운동이 이에 일치되면서도 당 투쟁사의 연구 범위는 반드시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당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의 합법칙성을, 그리고 그 특성들을 찾는 데 돌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0년대 운동의 합법칙성을 천명함에 있어서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전개한 당 창건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또한 근본적 과제로 남아 있다. 조선에서의 무장 투쟁은 단순한 무장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투쟁과 경제적 투쟁과를 결합시킨 운동의 최고 형태이니 만큼 이 분야에서 리론적 체계화가 정연화되여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무장 투쟁을 단순화하려는 그릇된 견해들을 배격하면서 김 일성 동지에 의하여 조선 혁명 운동에 창조적으로 적용된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의 구체적 실현들——강령의 작성과 혁명 운동의 조직적인 대중적 기반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통일 전선의 결성, 로동 운동 내의 각종 기회주의 조류와 소부르죠아 민족주의와의 투쟁, 무장 부대와 국내 공산주의적 력량과의 당적인 조직적 련결과 통일 등 각 전선에서의 투쟁을 분석 종합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김 일성 동지에 의한 혁명적 로동자당 창설을 위한 투쟁을 반종파 투쟁과 련결시키지 아니하고는 해명할 수 없다.

해방전 조선 사회 내부에서 배태 발생한 인민 민주주의 혁명의 객관적 조건들의 조성을 구명하지 않고는 해방 후 당 창건과 그 활동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리론 정연하게 해명할 수 없다. 왜냐 하면 혁명 운동의 발전은 항상 력사적 계기성을 떠나서는 고찰할 수 없는 만큼 해방 후 당 창건과 당에 의한 정치 로선의 확립을 심오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방 후 당의 활동과 당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민—사회사와의 중복은 심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을 퇴치하기 위하여 사회사 과정이 취급하는 민주 개혁이나 혹은 인민 경제의 부흥 발전 력사의 사실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당에 의하여 실시된 사회의 혁명적 개조의 강령과 정책의 작성 심의, 따라서 당 정책의 과학적 기초, 당 정책에 구현된 맑스—레닌주의 원리의 구체적 표징들, 또한 당 정책의 정당성 등을 운동의 객관적 행정을 통하여 력사주의적으로 파악하는 데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당 투쟁 력사 연구자들 앞에 제기된 필수적인 요구의 하나는 당 력사를 생동하는 현실과의 련계 속에서 과거 및 현행 당 결정들을 깊이 연구하며 그 기본 사상을 체득하는 그것이다. 당 력사는 사료들의 단순

한 퇴적이나 종합이 아니다. 따라서 한 시기의 당의 정책을 그 본질적 면에서 구명하자면 다른 시기의 당의 정책 문제의 기본 정신을 파악할 것이 요구된다.

례컨대 당의 조국 통일 방책은 당 창건 첫날부터 확립된 당 활동의 기본 로선이다. 그러나 당이 그를 실현하기 위한 매 단계의 구체적 방책들은 특정한 력사적 조건에 의하여 내용을 같이 할 수 없었다. 평화적 건설 시기의 조국 통일 방책 실현의 주장, 전시에 무장적 방법에 의하여 조국을 통일시키려는 당의 정책들을 전후인 오늘날의 통일 방책과 혼동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오늘 날 당이 제기한 통일 방책 실현의 국내외적 환경, 혁명과 반혁명 력량간의 세력 대비의 변경, 북반부에 있어서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에 따르는 정세와 계급 관계의 근본적 변화들, 이 모든 조건들을 고려할 때 평화적 통일을 위한 당의 투쟁을 일률적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당의 정책에 대한 형식주의적 리해를 가져 올 것이다.

당적 과학으로서의 당 투쟁사 연구는 엄격한 당성 원칙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한다. 이것은 당의 투쟁 력사가 사회사적 립장에 비할 수 없는 고소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 투쟁사의 심오한 연구에 있어서 매 시기와 단계에서 당 로선과 정책들에 구현되여 있는 당성을 깊이 파악해야 할 것이다. 당 투쟁사의 연구가 만일 한갖 지식의 습득에 만 국한되고 실천적 활동에 있어서 사상 개조와 병합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의 력사를 자기의 피와 살로 하지 못함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당 투쟁사의 심오한 연구에 있어서 당의 력사를 당 정책 수립과 실현의 력사로 일관하게 관통되도록 하는 것이 중심 문제의 하나이다.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 취해진 당의 정책들은 대중의 성숙된 요구와 근본적 리익을 집중적으로 표현한 우리 현실에 있어서의 맑스—레닌주의이다. 당 투쟁사에 있어서 당 정책의 수립과 당의 정책 관철을 위한 정치적 지도의 력사를 해명한다는 것은 정책을 결정한 회의나 그 결정 조문을 암송하며 한 시기에는 어떤 정책이 채택되게 되였고 다른 시기에는 또 다른 어떤 정책으로 바뀌였는가 하는 년대기의 종합으로는 대체될 수 없다. 당 발전의 합법칙성은 바로 당 중앙 위원회에 의해서 채택되는 매 시기와 매 단계의 정책들의 력사적 필연성과 그 합목적성의 해명이 없이는 또 그를 리론적으로 해명함이 없이는 파악할 수 없다.

중앙 위원회가 채택하는 당의 매 결정이 당 정책의 기본 사상과 리론적 및 현실적 기초에 토대한 것 만큼 정책 문제를 결정하기에까지 이르는 당 실지 투쟁의 력사적 환경과 조건들을 구명하며 결정의 매 조목에 이르기까지의 당의 구체적 대책들을 파악하여야 당 정책을 본질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례컨대 당 투쟁사 과정에서 전후의 경제 분야에서의 총 로선을 해명할 때 중공업의 우위적 발전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이란 원칙이 어떻게 수립되게 되였는가 하는 력사적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해명해야 될 것이며 그를 우리 나라 발전의 력사적 필연성으로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당이 강구한 경제 분야에서 총 로선은 우리 나라의 현실 조건에 가장 부합된 객관적 경제 법칙의 반영이니 만큼 총로선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경제적 요인들을 다방면적으로 론구하며 매개의 경제적 측면들이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당의 총 강령을 해명하는 데로 돌려져야 하며 거기에 적용된 사회주의 건설의 레닌적 원칙의 창조적 적용이 천명되여야 한다.

당 투쟁사 연구는 당의 실지 투쟁을 비속화하며 당 정책 실현의 지나 온 길을 외곡 또는 수정하려는 일체의 기도와 비타협적으로 진행되여야 할 것이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의 과도기의 특성을 론의함에 있어서 당에 의하여 확정되고 과학적으로 규정지어진 문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은 그 주관적 의도 여하를 불구하고 당 력사에 대한 수정을 의미할 뿐이다. 한동안

혹자들이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 수립을 과도기의 시초로 운운하며 민주주의 기'발 밑에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이라고 하는 등의 민주개혁 과정에 대한 일련의 론의는 력사적 과정에 대한 옳지 못한 견해였다. 정책의 리론적 심화를 위한 론쟁은 《론쟁의 자유》라는 기'발 밑에 당 문헌에 대한 비속화를 용허해도 좋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당 정책적 제 문제의 탐구는 오직 당성 원칙의 높은 발양과 당 정책적 원칙을 고수 관철하는 전투적 정신을 전제하는 만큼 당 투쟁사 과학은 그 원칙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과학으로서의 당 투쟁사의 심오한 연구에서 주체 확립에 대한 당의 방향적 지시를 구현해야 될 것이다. 김 일성 동지가 제시한 주체성에 대한 명제는 사상 사업에서의 혁명적 사상 관점에 대한 문제인 동시에 우리 당의 투쟁 형태와 투쟁 조직에 관련되는 심오한 리론적, 실천적 명제이다. 주체에 대한 종파 분자들의 우경적 민족 배타주의적 해석의 기도를 물리치면서 우리 당은 자기 사업의 전체 분야에 걸치여 주체성 확립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주체, 그것은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우리 나라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복무시키는 것》인 바 이는 맑스—레닌주의를 산 지침으로 조선 혁명의 실천에 창조적으로 결합시킨 리론과 실천의 통일성에 대한 규정이며 국제 혁명 운동과 조선 혁명 운동과의 통일성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주체라는 명제에 포함된 요구는 지대하다. 그것은 혁명 전통 문제로부터 군중 관점에 이르기까지의 광범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니 만큼 지나간 투쟁에서 민족적 특성은 무엇이며 전통의 계승성은 어떠하며 매개 투쟁 계단에서 주되는 임무와 차요적 임무는 무엇이였는가 하는 것과 조선 혁명의 성과의 매 걸음은 국제 혁명 운동에 어떠한 도움을 주며 또 거기에서 조선 인민 자신은 어떠한 역할을 놀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당 투쟁사의 심오한 연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내 투쟁의 합법칙성을 옳게 밝힘에 있다. 당내 모순과 의견 불일치는 적대적 계급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불피한 현상이며 당의 발전 강화는 당내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이다.

우리 나라 경우와 같이 해방 전후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종파의 사상적 영향이 남아 있는 조건에서 당내 반종파 투쟁과 당의 사상 의지 행동상 통일을 위한 투쟁은 당 발전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당 창건과 당 건설에 있어서의 특수성들을 리론적으로 해명하는 사업은 아직도 불만족하다. 실로 김 일성 동지의 지도 하에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인 조선 공산당 북조선 조직 위원회를 창건하던 시기와 당 제3차 확대 위원회를 소집하였던 력사적 시기 그리고 로동당 창건 시기들은 충분한 사료에 토대하여 당의 실지 투쟁을 보이여 주어야 하며 그의 정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남반부에서 각종 종파 그루빠들이 미제와 국내 반동의 면전에서 당의 정치 로선과 조직 로선을 파탄시키며 당 대렬을 와해하려고 하던 때에 당 중앙 위원회가 종파를 종식시킬 데 대해서 취한 맑스—레닌주의적 대책들의 정당성을 남김 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당 투쟁사 연구가들은 종파쟁이들이 류포한 소위 《종파의 유익설》이란 반맑스주의적 선전 시도를 계통적으로 폭로하여야 된다. 당은, 혁명적 활동의 전체 기간을 통하여 당내에서 불순한 종파 행동은 무조건적으로 금지되여야 하며 그것이 어떠한 구실 밑에서 진행되든지간에 또한 어떠한 사소한 것일지라도 당의 통일을 와해하는 범죄적 행동으로 단호히 배격할 것을 항상 가르쳤다. 때문에 《종파 유익설》을 주장하려는 반당적 기도를 철저히 폭로하면서 우리는 종파가 해방전 조선 로동 운동 내에서 끼친 막대한 해독성 뿐만

아니라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끼치고 있는 그 죄상을 다방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왕왕이 종파에 관한 력사적 사실들을 폭로함에 있어서 부정확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례컨대 20년대의 소위 《방향 전환론》같은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이 리론상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비속화일뿐 아니라 실천상에 있어서 종파적 분자들의 파쟁적 론쟁으로 되고 있었던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당 투쟁사 연구가들인 우리는 국제 로동 운동에서 일어나는 제 사변에 깊은 주목을 돌리면서 국제 로동 계급의 련대성과 당내 통일의 필요성, 특히 쏘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후 국제 로동 운동상의 제 사변들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이며 정확한 립장을 확고히 파악해야 한다.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과 기타 당 지도 일'군들의 론문들이 충분히 보여 주고 있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련대성에 관한, 인민 민주주의 전취물을 수호할 데 대한 당의 견해들과 미제와 국내 반동의 악랄한 파괴 암해 책동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에 대하여 깊이 리해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현 시기 우리 당 대렬의 순결성을 보지하며 위력의 강화를 위한 당의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당 투쟁 력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 당이 시종 일관 견지하여 오고 있는 당 생활의 레닌적 규범, 집체적 지도의 현명성과 그의 심오한 의의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당이 당원들의 당성을 단련시키며 군중 관점을 확립함으로써 대중과의 련계를 부단히 확대하며 그들의 적극성과 창발성에 의거하여 당 정책을 생활에서 실현하고 있는 당의 군중 로선을 심각히 연구 체득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외에도 당 투쟁사 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상술한 몇 가지 문제들은 당 투쟁사 연구에 있어서의 현존 결함을 퇴치하고 연구의 수준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로 제고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류의하여야 할 기본 문제이라고 생각한다.

《근 로 자》 제5호 (루계 제138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쇄 1957년 5월 20일

인쇄소 로동신문 출판 인쇄소 발행 1957년 5월 25일

ㄱ—40 482 값 45원

근 간 안 내

에프 • 엥겔스

자연 변증법

국판, 400페지, 예정 값 120원
10,000부, 발행 예정 월 6월

이 책은 자연에 있어서의 변증법에 관한 엥겔스의 로작으로서, 1873—1883년에 이르는 기간에 엥겔스가 자연 변증법의 가장 중요한 제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쓴 일련의 기록들로써 구성되고 있다. 이 저작에는 자연 과학 및 수학의 력사의 심오한 연구와 유물론적 변증법의 견지에서의 자연 과학의 가장 중요한 제 문제의 분석이 포함되여 있다.

엥겔스는 이 저작에서 물질 운동의 각종 형태에 관한 변증법적 유물론적 학설을 상세히 론증하고 자연 과학의 일련의 기본적 법칙들의 변증법적 본성을 천명함으로써 당대의 자연 과학의 제 결론들을 철학적으로 개괄하였으며 변증법적 유물론적 세계관의 자연 과학적 기초를 서술하였다.

웨 • 이 • 레닌

국가와 혁명

4×6판, 150페지, 예정 값 33원
15,000부, 발행 예정 월 5월

이 책은 1917년 10월 혁명 직전에 집필한 레닌의 저서로서, 계급 사회와 국가, 국가와 혁명, 국가 조락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문제들을 규명하고 기회주의자들의 비속화와 외곡으로부터 맑스주의 국가 리론을 옹호하여 그것을 일층 발전시킨 고전적 로작이다.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자들의 혁명 투쟁에 있어서 이 저서는 중요한 강령적 문헌으로 된다.

대중 정치 용어 사전

4×6판, 356페지, 예정 값 98원
80,000부, 발행 예정 월 6월

이 사전은 근로 대중의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정치, 경제, 철학, 력사, 법률, 자연 과학, 문학 예술 등 각 부문에 걸친 용어중 비교적 리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 2,144개를 수록하였다. 특히 이 사전은 일반 근로 대중의 정치 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용어의 해설에 있어서 일반 지식 정도로 리해할 수 있도록 실례를 넣어 알기 쉽게 서술하고 있다.